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18-02-02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제28권 제2호(2018년 여름) Vol. 209

인쇄일·발행일 2018년 6월 30일

펴낸이 국립국어원장

편집위원 남길임·박재현·이동은·이상혁·김윤종

기획·편집 김문오·이은민·홍규화

제작 (주)늘품플러스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27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2호 · 여름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2호·여름

차례

[특집]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과 9

이보라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 31

김중섭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49

김정숙·이정희

해외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73

박진욱·이수미·장미정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101

김지혜·박나리·강현자



지금 이 사람

글쓰기 지식 소매상

– 유시민 작가 125

이상혁

문학 속 우리말

언어의 육체

– 방언의 문학적 효용에 대한 단상 143

우한용

삶과 우리말

우리말을 사랑하려면 155

강주헌

세계의 언어 정책

스리랑카의 언어 정책 163

차투리카 닐라니(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

배움터 풍경

샘물한글학교, 우리 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어 줍니다

– 동경 샘물한글학교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181

전정선(Kasai Suzumi)

국립국어원 소식 199

특집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과

이보라미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관

1. 머리말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은 매우 다양하며,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과 특성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어교육이 폭넓게 성장하는 주된 동력이 되었으나 양적인 성장 못지않은 질적인 성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기도 하였다. 질적인 성장에서 가장 큰 요구를 받는 부분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었다. 물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도 각 기관마다 자체 교육과정에 맞춰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그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수정·보완 연구와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모형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단계로 진행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은 장기간에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각 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부족하나마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 및 과정을 소개하여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가

걸어온 길을 고찰하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그 개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 및 과정

2.1. 개발 배경

이정근(1976:365)에서는 교육과정의 계획은 교육 목표에 영향을 받으므로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학습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른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교육과정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초기 한국어교육 연구인이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교육은 발전 초기 단계부터 학습 대상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학습자들의 특성과 학습 목표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 발전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정근(1976)에서 언급된 교육 대상이 외교관, 정보원, 재외동포 유학생이라는 점, 그중에서도 재외동포 유학생에 대한 대학 부속 언어교육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흥미롭다. 오늘날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이주민 학습자, 취미 목적으로 한류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 등 다변화된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 발전 초기에는 중요한 고민이 아니었을 것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대학 부속 언어교육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관심은 개별 교육 기관의 교육 시스템의 발전에 주목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가 가속되면서 한국어교육 학습자들도 다양화·다변

화되었고, 학문적 토대의 성장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의 다변화와 양적인 성장만큼 교육의 질적 성장도 크게 요구되었다. 국내와 해외라는 교육 환경이 다른 배경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이 구성¹⁾되어 있는 점은 한국어교육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1단계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육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지역이나 기관마다 비체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이 운영되는 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고, 이러한 한계에는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연구되기 이전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에 제1회 시험이 시행²⁾되었다.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어 학습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 도구이다. 이 시험에서 정한 6등급 체계(1급~6급)와 평가 기준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각 등급의 교육 목표와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도구이며 그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것에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의 주된 응시 대상자가 국내 대학 유학을

-
- 1) 2016년 12월 기준, 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은 총 1,302개로 대학 부설 기관(220개), KSL 교육 기관(5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8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301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63개)의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외 한국어교육 기관은 세종학당(144개), 한글학교(1,848개), 초·중등학교(830개), 대학(1,243개)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수는 총 4,065개이다(출처: 국립국어원, 2017b).
 - 2) 1997년과 1998년에 시행된 제1회, 제2회 시험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였으며, 1999년 시행 기관이 변경되어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시행기관이 변경되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희망하는 학습자들이다 보니 그 평가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론 평가와 교육과정의 긴밀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가라 할 수 있지 그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양상이다.

한국어교육 학계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 차원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설계·운영되는 교육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의 증가, 해외 세종학당이 신설·확대되면서 체계화된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다변화에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2007년에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8년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³⁾’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각 연구는 세종학당의 초기 운영 기틀을 마련한 의의를 가지며,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여성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기초가 되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기관별로 교육의 내용과 체계가 달랐고, 특히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해외 혹은 신설 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발주하게 되었고 학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2008년도에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 지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과 보고서는 2009년 1월 20일에 제출되었다. 이 원고에서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2008년도를 연구 시기로 보며, 참고 문헌으로는 국립국어원(2009)으로 표시한다.

2.2. 개발 과정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총 4단계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전체 개발 흐름과 각 단계에서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단계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 사업명

구분	개발 연도	연구 사업명
1단계	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3단계	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4단계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다소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 모형(education model)과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육학적 개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교육 과정은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게 선택된 교육의 내용으로 방법적 원리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직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수 절차, 학습 경험, 교육 평가의 순환적 과정이 포함(국립국어원, 2009:1)’된 개념이다. 그러나 교육 모형은 좁게는 수업 모형으로 보기도 하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교육 모형’은 좀 더 일반적 개념으로 절차와 내용을 담는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라 할 수 있다.⁴⁾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4)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에 ‘타일러(Tyler)의 합리적 모형’, ‘슈와브(Schwab)의 실제적 개발 모형’, ‘아이스너(Eisner)의 예술적 접근 모형’ 등이 있다고 하면, 이때의 모형은 각 학자들이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할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은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교육 유형에서 표준적으로 적용할

의미와 연결되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학습 대상자를 고려한 분명한 교육 목적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한국어교육의 특성상 ‘표준 교육과정’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초기의 연구에서는 ‘교육 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전문가들도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까닭인지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부재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육 모형’이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교육 과정에 비해 그 구체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2016년 수정·보완 연구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전면에 부각하게 되었다. 비록 ‘교육 모형’과 ‘교육과정’이 교육학적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지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전체 연구에서는 이 둘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개발 흐름과 개발 내용을 살펴보겠다. 2010년에 발주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의 제안 요청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업으로는 (1)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국내·외 자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자국어 교육 표준 모형 조사 및 분석, (2)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과정, 내용, 수준 등에 관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3)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세종학당)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요강(교육 수준, 교육 항목, 교육 내용 등), 평가 등 위한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연구·개발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기관의 특성상 통일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수 있는 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수 절차, 교육 평가’ 모두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각 기관마다 가르치는 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결국 참조 기준으로서 적용 가능하고, 한국어교육 체계화에 무엇보다 시급한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등급 범주, 교육 목표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단계 연구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대강 등 교육과정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어교육 기관의 운영 실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지식을 수집하고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는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적용하였다.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술을 위한 영역으로 ‘주제, 언어 기술, 언어 지식, 문화’ 영역을 설정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연구 분야와 선행 연구의 부족, 짧은 연구 기간(약 7개월) 등의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한 차례의 연구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후속으로 2단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2단계 연구에서는 2010년에 진행된 1단계 연구를 구체화하고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을 개발함으로써 표준 교육과정의 범용화, 범세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등급

5)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집단으로 총 26명이 참여하였고,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국립국어원, 2010:28).

- 현장 경험 10년 이상
-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설계와 관련한 연구 경험자
- 한국어 교재 개발자
- 교육과정 관련 연구 및 실제 평가 참여 경력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全) 분야 강의 경험자

화한 체계에 맞춰 각 등급의 목표 및 내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기능/과제, 문화’의 교육 내용을 해당 등급의 목표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된 2011년 당시에는 세종학당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맞는 세종학당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변인별 표준 교육과정의 설계로서 ‘세종학당 모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된 세종학당 교육과정 변인과 교수요목은 세종학당의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 교수요목 설계의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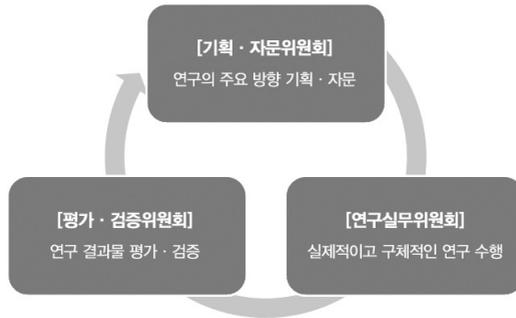
1단계와 2단계 연구가 발표된 후,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한국어교육 내용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연구 결과가 적용되었다. 한국어교육 내용 선정 및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참조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었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개발 내용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1단계와 2단계 연구가 진행된 이후 시간이 지나 한국어교육의 다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국가 수준의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해졌다. 또한 기존 연구가 한국어교육 현장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되었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족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6년과 2017년에 3-4단계 연구가 추진되었다⁶⁾.

6) 3-4단계 연구는 기존 1-2단계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연구의 과업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상세화된 내용 개발 및 현장 적용성 점검 등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 2년 차에 걸친 연구로 추진 예정. 단, 각 연차별 사업 내용을 구분하여 연구 영역 수행자는 매년 공모·선정함.
 - (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기 개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1·2단계)’의 등급 체계·교육 시간·등급 범주 재점검, 등급별 목표 및 내용 상세화, 주제·어휘·문법 등 등급화된 교육 내용 간의 동일 숙달도 내에서의 연계성 점검, 교육과정 차원에서 평가의 방법 및 내용 연구 등

3단계에 설정된 연구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각 기관의 사정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에 참조가 되는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국가 수준의 평가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유럽공통참조기준 등 여타 외국어 교육과정과 비교 가능한 기준이 제공되는 수준으로 연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전제로 하여, 기존에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1·2단계)’의 장점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한국어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수정·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학계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림 1 위원회 구성·운영(안)(3단계 연구 제안요청서, 2016:3)



- (2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1차년도 수정·보완 사항 재점검, 교육 현장별 유형화(모듈화)된 적용 내용 개발, 한국어교육 현장의 비전문가를 위한 구체화·상세화된 자료 개발 등
* 출처: 3단계 연구 제안요청서 2쪽

위원회는 총 3개의 분과로 구성⁷⁾되었으며, 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어 교육 학계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의 연구 방향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무위원회는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를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1단계와 2단계 연구를 재검토하면서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선정된 검증위원회는 한국어교육 기관의 대표자, 중진 연구자,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을 각 기관에 시험 적용해 보고 그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절차인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도되었으며, 무엇보다 학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합의가 중요하여 최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1-2단계 연구에서 정립한 7등급 체계가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검토하여 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등급별 총괄 목표, 등급별 기술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각 범주별로의 체계성이 확보된 것에 비해, 동일 등급에서 정하는 범주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등급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문화 영역을 등급에 맞춰 구분한 것이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성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숙달도를 등급별로 제시하지 않고 ‘초·중·고’ 3단계로 제시하였고,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구분에서 ‘문화 실행’은 주로 교육과정 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 지식과

7)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은 3단계 연구 보고서(《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다루지 못한 ‘평가’ 영역을 설정하여, 한국어 평가의 목표 및 범주 설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4단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등급별 기술의 세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이 다양한 현실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 인력이 국내에 비해 다소 부족한 해외 중등학교와 해외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한눈에 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소개 자료도 개발하였다. 그리고 4단계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인 ‘한국어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4단계)’와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연구(1-4단계)’를 적극 검토하여 언어 지식인 ‘문법’과 ‘어휘’를 6등급 체계에 맞춰 등급화한 결과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 2단계 연구와 앞선 두 연구를 종합한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3.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개발 원리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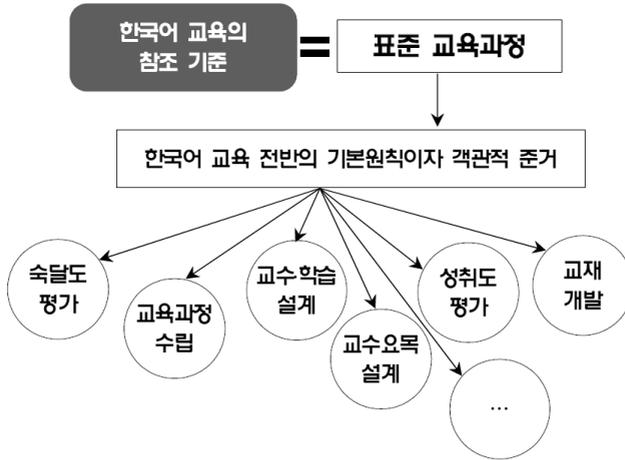
3.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는 연구 초기부터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성상 ‘초·중등 교육과정’과 달리 하나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칫 하나의 교육과정을 표방한다면, 어느 집단의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할

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1-4단계)’ 연구에서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2단계 연구인 국립국어원(2011:7-9)을 적극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문제만 생길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연구에서부터 ‘표준’을 ‘참조 기준’으로 정의내리고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교수·학습 목표와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한국어교육 전반에 적용·참고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국립국어원, 2011:7)



2단계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어교육 현장을 하나의 통일된 교육 모형으로 재편성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준거가 필요하며, 한국어교육이 양적 혹은 질적으로 방대해지는 만큼 교육의 형식적·내용적 측면도 서로 상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어교육은 일반적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외국어 교육과정 포함)과 같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가진 교수·학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불가능한 교육 모형의 설정은 오히려 한국어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서로 상이한 교수-학습 대상과 상황에서 적절하게 변형-적용될 수 있도록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수-학습이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준거로서 각기 다른 등급 체계, 학습 목표,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의 유기적인 연관성 확보와 기관별 상호 교환(학습자, 교수자, 교육과정 설계자, 교재 개발자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3.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으로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1단계 연구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로 '내용의 포괄성', '사용의 편리성', '자료의 유용성', '적용의 융통성'이라는 4가지 개발 원리를 설정한 바 있다. 각 원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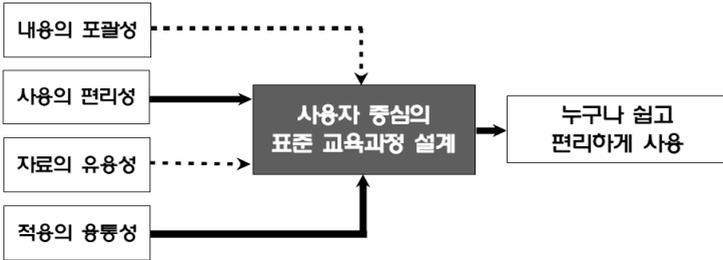
표 2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국립국어원, 2010:135-136)

원리	내용
내용의 포괄성	개인, 공공, 직업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언어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해 개발해야 하는 지식, 기능 및 문화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각 학습 단계별 능력 수준을 규정해야 한다. 개개의 등급 범주와 목표 및 내용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능력(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분명한 표상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자신의 학습 진척을 기술 체계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리	내용
사용의 편리성	표준 교육과정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내용은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전달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으로 기술해야 한다. 사용자가 각자의 환경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적도록 한다.
자료의 유용성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 실제 적용 가능한 유용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요구, 학습 동기, 개별 성향에 따른 다양한 목적과 목표 설정에 유용해야 하며 학습 목표의 설정이나 학습 내용 선정, 교육 자료의 선택 및 제작, 평가 등에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기관 및 교육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교수 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의 요구와 관련된 언어 지식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교육 기관, 교육 설계자 등의 교육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적용의 융통성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표준적이고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범용의 한 축은 다양한 변인에 맞게 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이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이 가능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공동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유일한 통일 체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체계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들 원리 중에서 ‘사용의 편리성’과 ‘적용의 융통성’은 표준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1단계 연구에서는 등급 체계를 세우고 등급별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목표와 그 내용을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있었지만, 2단계 연구부터는 기존에 설계·구축된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술을 범주별로 구체화·등급화하여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3 표준 교육과정 설계의 원리(국립국어원, 2011:8)



표준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주로 교육과정 설계자, 교재 개발자가 된다. 이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교재 개발을 위해 교수요목을 마련하고자 할 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이 편리해야 할 것이다. ‘사용의 편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유럽공통참조기준,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 등 해외의 교육과정 등과 비교하여도 등급별·범주별 내용이 상세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등의 등급별 기술 내용이 매우 상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4단계 연구에서는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 지식의 ‘발음 영역’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을 대분류, 중분류,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⁹⁾

9) 2단계 연구에서는 발음 목록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4단계 최종 보고서에서는 <표 4>와 같이 내용을 상세화하고, 구체적인 예시 제시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표 3 2단계 발음 목록의 등급화 예

대분류	중분류	항목	등급					
개별음소	모음	모국어에도 있는 모음의 경우,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					

다음으로 ‘적용의 융통성’은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사용자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을 마련하고자 할 때, 교수 학습의 목표와 대상의 특징,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축소하거나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용의 융통성’은 ‘선택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최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부담을 갖는 점을 단점으로

대분류	중분류	항목	등급						
개별음소	모음	모국어에도 있는 모음의 경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						
개별음소	자음 (초성)	모국어에도 있는 자음의 경우,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						
개별음소	자음 (종성)	모국어에도 있는 종성을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						
개별음소	자음 (종성)	모국어에도 있는 종성의 경우, 발음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개별음소	모음	모국어에도 있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					

표 4 4단계 발음 목록의 등급화 예

대분류	중분류	예시	내용	등급							
				1	2	3	4	5	6		
음소 (분절음)	모음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ㅟ, ㅡ, ㅣ	단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단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ㅝ, ㅟ, ㅞ, ㅟ, ㅠ, ㅡ	이중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이중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자음 다음의 ‘ㄴ’은 ‘ㄷ’로 발음하며 그 외에는 ‘ㄷ’과 ‘ㄱ’로 발음할 수 있음. 예) 무늬[무니], 회의[회의/회이], 우리의[우리의/우리예]	‘ㄴ’이 가 달리 발음되는 환경을 알고 구별하여 발음한다.			●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은 교육과정 설계자나 교재 개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적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큰 결점이 될 수는 없다.

한 예로,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시간을 다르게 설정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은 72시간(12주*6시간)을 최소치로 잡고, 국내 정규 기관 및 한국어능력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200시간(10주*20시간)을 최대치로 설정하고 있다. 최소 필요 교육 시간인 72시간과 최대 200시간은 교육 현장을 분석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도출된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72시간과 200시간의 교육내용을 설정할 때에는 분명한 현실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때 72시간용 교재를 개발하거나 200시간용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교수요목 설계자와 교재 개발자의 몫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단계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한 아래와 같은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범주의 교육 내용을 교육 시간에 맞게 선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 주제: 17개 범주 85개 항목 제시
- 기능 및 과제 5개 범주 52개 항목 제시
- 언어 지식
 - 어휘: 10,635개 제시
(1급: 735개, 2급 1,100개, 3급 1,655개, 4급 2,200개, 5급 2,365개, 6급 2,580개)
 - 문법: 336개 제시
(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
 - 발음: 5개 범주 72개 항목 제시
-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 텍스트: 4개 범주 144개 항목 제시
- 문화: 3개 범주 100개 항목 제시
- 평가: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언어 지식의 하위인 '어휘 영역'에서는 총 10,635개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이 모든 어휘를 교육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최소 필요 교육 시간만을 염두에 둔 어휘 교육 항목을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면, 그것은 획일화된 어휘 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은 이용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적용의 융통성'을 표준 교육 과정 설계의 원리로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개발 성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성과를 진단하기에는 수정·보완된 4단계 최종 보고서가 최근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2단계 연구가 폭넓게 인용된 점, 3-4단계 연구 과정에서 실시된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의 검증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기초인 교육 내용을 공고히 하고 체계화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등급별 총괄 목표, 범주별·등급별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등급 기술 영역은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텍스트, 문화, 평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각 범주별 교육

내용을 등급별로 종합하여 제시한 것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 내용을 등급화·목록화하여 체계성을 마련한 점은 한국어교육의 교육적 토대를 공고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관련 연구 분야에 폭넓게 인용되면서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개별적으로 낱알이 흩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기준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표준적으로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공신력 있는 기준의 부재로 개별 연구자들도 연구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면서, 다른 연구에 활발히 활용하게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자양분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각 기관 유형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인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별로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더라도 전체적인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는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폭넓게 적용되었을 때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각 기관별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이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현장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재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현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는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 교육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의 해외 학습자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과 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 설계 원리 그리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2010년 처음으로 연구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2016년과 2017년 다변화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현장의 적용성을 더욱 높이고 연구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연구 초기에는 과연 방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어교육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틀을 잡아 갔고 한국어교육의 기본 원칙이나 참조 기준으로서 모습을 공고히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진뿐만 아니라 자문 위원, 현장 검증 위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이름을 달고 4단계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다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정제된 대상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학계를 비롯한 교육 현장 곳곳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의 후속

으로 교육과정 적용에 관한 공동 연수(워크숍),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적용 결과들이 다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순환되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국내외 더 많은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한국어교육 발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책임 연구원: 허용).
- 국립국어원(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책임 연구원: 허용).
- 국립국어원(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7b),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 (책임 연구원: 이정란).
- 이정근(1976), “한국어 교육과정의 새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 서울대 재외 국민교육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27, 한국어교육학회, 297-320쪽.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

김중섭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한국어 학습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 목적도 단순한 관심의 수준을 벗어나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부재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의 장기적인 발전에 한계점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요구로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의 범주와 항목, 세부 내용이 개발되었다. 이는 이후 한국어교육의 현장과 관련 연구 영역에서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나, 한국어 교육의 질적·양적 팽창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다각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재점검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교육과정을 사용자 측면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 이 글은 국립국어원의 연구 과제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김중섭 외, 2017)’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재구성하였다.

활용되고 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는 2016년 수정·보완 연구의 과업을 최종 점검하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국내외의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형별 교육과정 및 지침, 다국어 요약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구 개발 결과 중 등급과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구성을 위해서 먼저 해외의 주요 언어 교육 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의 문헌 자료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¹⁾,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²⁾,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³⁾ 등을 살펴보았다.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은 기초적 언어 사용(Basic User/A1)부터 숙달된 언어 사용(Proficient User/C2)까지 세분화된 6개의 숙달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계는 유럽의 언어 교육과정 설계 및 언어 교수, 학습, 평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대강

-
- 1)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은 유럽 내 교육 제도의 차이나 언어 교수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서로 다른 언어와 국가라도 언어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 2) 2008년에 만들어진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대강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중국어 교육과정으로, 중국어교육의 구성과 계획을 세우고 어학 능력의 평가 측정 및 교재 편찬의 참고 방향 및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공통참조기준’과 ‘국제중국어능력기준’을 참조하여 설계되었다.
 - 3)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는 1967년에 설립되어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국어 전문 교육 연구 단체이다. 58개 언어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세계 유일의 전문 교육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는 미국의 학교, 기업, 국가 단위의 언어 프로그램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말하기 평가 분야에서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은 교육과정을 총 5단계(1~5등급)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각 급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언어 지식(음운, 한자 어휘, 문법, 기능, 화제, 단락),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략, 문화 의식(문화 지식, 문화 이해, 문화 간 이해, 국제화 시야)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미국외국어교육 평가전문위원회(ACTFL)의 주요 등급은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Superior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Superior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세 등급은 다시 세 개의 단계(HIGH, MID, LOW)로 세분화되어 있다. 한어 수평고시(HSK)는 'HSK 1급-6급'의 필기시험과 'HSK 초급·중급·고급' 회화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등급 체계가 총 4단계에서 5단계(N1~N5)로 세분화되었다. 등급에 따라 N1~N2는 언어 지식(문자·어휘·문법)·독해, 청해의 두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N3~N5는 언어 지식(문자·어휘), 언어 지식(문법)·독해, 청해의 세 범주로 분류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과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설정을 초급 1~2급, 중급 3~4급, 고급 5~6급, 최상급 7급으로 설계하였다. 최상급으로 7급까지 교육과정을 설계한 것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아카데미 토픽(Academic TOPIK)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최상급을 설정함으로써 고급 이하의 등급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등급의 하향 조정은 각 등급의 숙달도 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변인의 학습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의 등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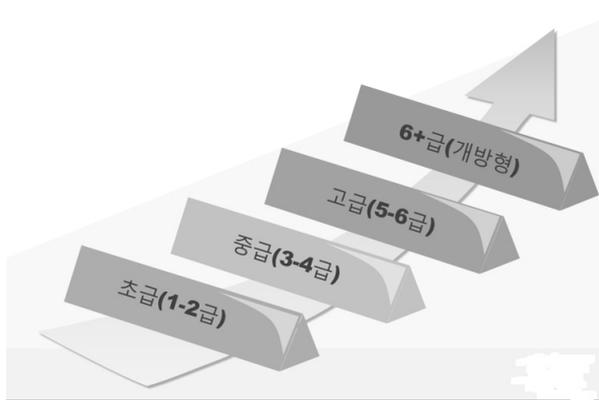
한국어능력시험	표준 교육과정
고급(5-6급)	최상급(7급)
중급(3-4급)	고급(5-6급)
초급(1-2급)	중급(3-4급)
	초급(1-2급)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7등급 체계는 대부분 6등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해외의 경우 7등급으로 이루어진 교육 과정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교육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국내 교육 기관에서도 기존 학습자의 특성상 7등급 체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역시 6등급 체계로 이루어져 국가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과 국가 주도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간의 등급 차이로 인해 연구자와 교수자, 학습자들에게 혼란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하여 7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전환해 상세화, 명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국어 교육과정의 범용화를 위해서는 등급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고 사용자의 교육 환경과 조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제안 과정, 착수 보고회, 연구진 회의, 자문 위원회 등을 거쳐 기존의 7등급을 ‘6등급 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사용의 편리성과 적용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기존 7등급 체계를 6등급 체계로 조정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6급 이상 수준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요구는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단계 이상의

도달 목표를 한정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두어 '6+등급'을 설정하여 6등급을 상회하는 목표 기술을 남겨 두었다. 6+등급은 개방형으로, 6급의 목표와 내용 기술을 웃도는 한국어교육의 모든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등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6급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인 것에 비해 6+등급은 개방형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등급의 도달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2017)의 등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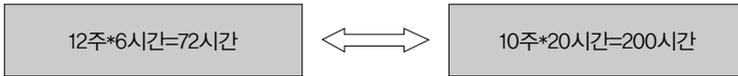
3.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시간은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어교육은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육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국내외 지역별·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교육 시간에 관한 정보도 여전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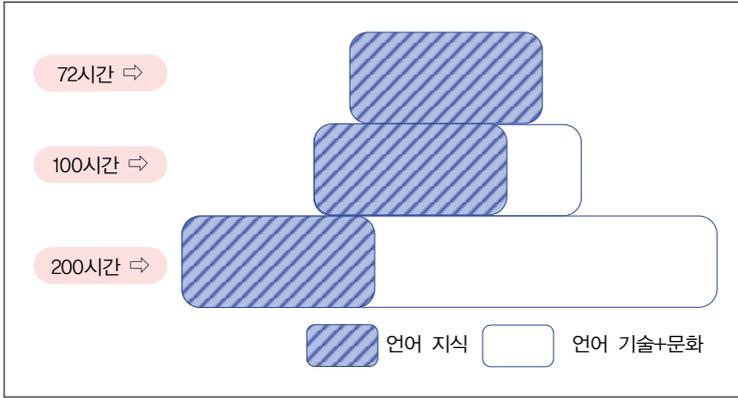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연구(2010)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을 최대 시간과 최소 시간으로 설정하여 교육 여건과 환경, 교육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제시된 표준 교육 시간은 각 등급 당 72시간~200시간이었는데, 이는 해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72시간(12주*6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정규 기관 및 한국어능력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200시간(10주*20시간)을 최대 시간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림 3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의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1단계 연구에서는 200시간, 144시간, 100시간, 72시간 등으로 교육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200시간, 144시간 모형이라 하더라도 학습 대상과 학습 목적에 따른 변이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1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예시 모형 72시간, 100시간, 200시간의 각 영역별 비중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으며 이 예시 모형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교육 시간 모형에서 내용 기술의 영역별 비중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을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2017)의 각 시간별 영역 비중



최소 필요 교육 시간인 72시간과 최대 필요 교육 시간인 200시간은 귀납적 방식으로 이끌어 낸 교육 시간이지만, 72시간, 100시간, 200시간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72시간을 배운 학습자와 200시간을 배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어교육에 노출된 시간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육 시간의 차이에 따른 한국어 숙달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등급의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은 비슷하게 배운다고 보기 때문에 언어 지식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 활동과 연계된 교육 시간, 문화와 관련한 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으며 교육 기관별 운영 환경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범주 설정 및 활용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교육 시간과 더불어 등급의 범주는 교육 과정의 내용 기술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4단계 연구에서는 기존의 1~3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의 전체 내용을 검토한 후에 범주별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고 기능, 주제, 문화 범주 설정의 타당성 및 각급 총괄 목표, 목표 기술, 내용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기술하였다. 등급 기술의 영역은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 언어 기술, 텍스트, 문화, 평가로 구분하였다.

또한, 4단계 연구에서는 3단계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언어 지식 중 ‘어휘’와 ‘문법’을 보완하였다. 어휘는 언어 지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4단계)’에서 선정한 어휘 목록을 초·중·고급의 3단계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문법 목록의 경우 먼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에서 선정한 초급과 중급의 문법·표현 목록을 바탕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단계)’의 목록 중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의 초급과 중급에서 선정되지 않고 남은 초급과 중급, 그리고 고급 단계의 문법 목록을 보충한 후 1급에서 6급으로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타 영역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의 숙달도 등급을 파악한 후 총괄 목표를 확인한다. 그 후에는 등급의 총괄 목표에 맞는 주제 항목을 점검하고 선정한 주제 항목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과 과제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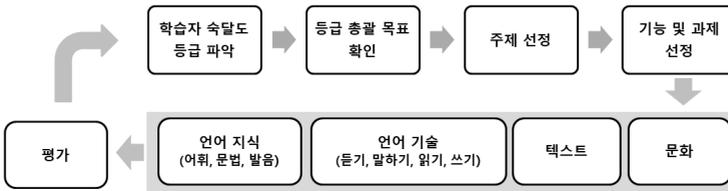
다음으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기능과 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언어 기술 항목이 선정되고, 각각의 기술 항목의 내용이 되는 어휘, 문법, 발음의 언어 지식을 선정할 수 있다. 그 과정 가운데 기능과 과제에 적합한 텍스트나 주제와 연계되는 문화 항목까지 배열되면 교육과정의 일부가 완성된다. 언어 기술과 언어 지식 항목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선정할 것인가는 기능과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두 영역 간의 등급 간 균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언어 기술을 정교화하는 과정 가운데 선정 및 배열 작업이 수반될 것이다.

마지막 작업으로 교사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평가는 단순히 학습자의 능력을 진단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평가의 결과가 다시 교육과정 설계의 시작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현장의 교사나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설계나 교재 개발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육과정 설계 절차



5. 등급별 총괄 목표의 수정 및 보완

총괄 목표는 각 등급의 한국어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며 각 등급의 세부 목표와 세부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급별 총괄 목표는 각 등급의 주제, 언어 지식, 언어 기술, 문화의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 학습의 해당 단계가 끝날 때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각 등급의 핵심적인 목표로서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각 등급의 목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국제한어 교학통용과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국내외 주요 언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해당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관련 문헌 자료 등급별 비교

등급	구분	목표
	한국어 능력시험	'자기소개 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초급	유럽공통 참조기준	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 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익숙하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이 주가 되는 경우, 반복적인 단순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변 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을 기술할 수 있다.
	국제한어 교학통용 과정	학습자는 개인 또는 일상생활의 기본 언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 단어나 구의 다시 말하기, 외우기 및 받아쓰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나아가 중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자신감을 고양 시키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는 교사의 지도하에 중국어로서의 간단한 학습 전략, 자원(resource) 전략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로

등급	구분	목표
중급		하어급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초보적인 다문화 의식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도록 한다.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여행사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명하기, 묘사하기, 거절하기 등의 언어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신에게 친숙한 사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직업, 사건, 국가, 생활, 문화 등의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 작성 및 보고 등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유럽공통 참조기준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짧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고급	한국어 능력시험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유럽공통 참조기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다.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한어 교학통용 과정	사회적인 범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친숙한 주제에 대해 묘사, 설명, 비교를 하여 더 정확한 문장을 생산할 수 있다. 중국어 학습에서 자신감과 흥미를 보여 준다. 학습 전략, 의사소통 전략, 자원 전략, 다전공 전략의 지식을 일부 숙달한다. 입문 단계의 중국 문화 지식을 습득하고, 예비적 수준의 교차 문화적 인식과 국제적 관점을 습득한다.

등급	구분	목표
최상급	한국어 능력시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유럽공통 참조기준	수준 높은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길로 확연히 드러나게 어구를 찾는 일이 별로 없다. 사회생활, 직업 생활, 대학 교육과 직업 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텍스트 연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읽거나 듣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문어나 구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근거와 설명을 조리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아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국제한어 교학통용 과정	폭넓은 주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문장을 찾아낼 수 있으며, 문단 단위로 결속력 있는 담화를 구성해 낼 수 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유창하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중국어 학습에 자신감과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학습 전략, 의사소통 전략, 자원 전략, 다문화 전략과 관련된 지식에 통달하였다. 중국 문화 지식에 대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문화 간 인식이나 국제적 관점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이러한 국내외의 언어 교육과정의 등급 분류와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총괄 목표를 설계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기술 방식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7등급 체제를 6등급으로 전환하였으며 등급 간의 연계성과 계열성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해당 급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연구에서의 관련 등급과의 대조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등급 간의 연계성과 계열성을 중심으로 해당 등급의 특성을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총괄 목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단계 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등급별 총괄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 2, 3단계 연구의 총괄 목표

등급	기존 연구	내용
1급	1, 2단계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적인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요일, 시간, 장소 등의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 절 단위 혹은 짧은 문장 단위의 매우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변 사물과 장소 등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모의 음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 기본 문장의 억양을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일상생활에서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으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급	1, 2단계	슈퍼, 식당 등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자주 접하는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뿐만 아니라 친교, 문제 해결 등의 특정 상황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주제와 관련된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슈퍼, 식당,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하여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3단계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마트, 식당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급	1, 2단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에 임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비교적 친숙한 사회적 소재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고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나이, 성, 지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간

등급	기존 연구	내용
		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나이 등과 관련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급	1, 2단계	공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 등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업무나 공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 사자성어, 속담 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음운 변동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원어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대중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3단계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와 업무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나이 등과 관련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5급	1, 2단계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적 소재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사자성어, 속담, 시사 용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억양에 나타난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한국 문화 속에 반영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적 영역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적 영역에 대해 대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맥락에 맞게 격식을 갖추어 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 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1, 2단계	사회적, 추상적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들로 이루어진 글이나 발표, 토론, 대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예시, 비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폭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려운 사자성어, 속담, 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법을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취 문화, 제도문화,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등급	기준 연구	내용
	3단계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를 다루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 텍스트 구조를 이용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 속에 반영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7급	1, 2단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폭넓은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조율, 협상 등의 다소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발표, 토론, 업무 보고서, 사업 계획서 등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학술 활동과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거의 오류 없이 대부분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별 어려움 없이 어감 차이를 고려하여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성취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3단계	7급 체제를 6급의 개방형인 6+등급으로 변경하였음.

1급과 2급인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3급과 4급인 중급 단계에서는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 5급과 6급인 고급 단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일상적인 것 → 친숙한 것 →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체계를 가지며,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도 중급에서는 친숙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 고급 단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확장된다. 언어 사용 능력에서도 ‘간단한 의사소통(1·2급) → 최소한의 의사소통(3급) → 비교적 유창한 의사소통(4급) → 대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음(5급) →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6급)’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총괄 목표는 각 범주에서의 등급별 목표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

4단계 연구에서는 3단계 연구에서 제시된 총괄 목표의 내용을 등급별 계열성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등급별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먼저 과제의

측면에서는 초급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의사소통, 중급은 친숙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 의사소통, 고급에서는 덜 친숙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 의사소통으로 확대하였으며 언어 사용 맥락의 경우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영역, 중급 단계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영역, 고급에서는 덜 친숙한 사회적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총괄 목표 기술 순서는 ‘과제·기능 → 주제 → 언어 사용역과 격식 → 문화’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반영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최종 총괄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3 4단계 최종 등급별 총괄 목표

등급		총괄 목표
초급	1급	정형화된 표현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자기 소개, 인사, 물건 사기 등)을 할 수 있다. 기초적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2급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는 개인적·구체적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중급	3급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급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고급	5급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기본적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

등급	총괄 목표
	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공식적인 맥락에서 격식을 갖추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및 대표적인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다룰 수 있다.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텍스트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에 대해 정리하였다. 2017년 연구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를 우선 수정·보완하고 점검하였다. 등급 체계를 ‘6등급’ 체계로 수정하고 교육 시간을 72시간에서 200시간의 탄력적 적용으로 구체화하였고, 등급 범주는 어휘와 문법 세부 범주를 추가하여 주제, 기능, 언어 기술, 언어 지식, 문화, 평가로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등급별 총괄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서술하였다.

한편,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만을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 2017년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등급과 목표를 바탕으로, 등급별 기술 내용을 주제, 기능,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유형별 교육과정을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정, 해외 대학의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중등학교 제2외국어 과정에서는 국내의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참고하는 한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술하고 개발의 예까지 제시하였다. 대학 과정에서는 해외 각국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학 한국어 교원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여 개발 방안과 그 예시를 제시하였다.

현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내외 다양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기관 운영, 교재 개발, 연구, 조사 등 다양하게 적용 및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더욱 다양한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김정숙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정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것에 대한 요구로 연구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총 4단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2단계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범주와 항목,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한국어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영역에서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현장에 다각적인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표준 교육과정의 보완이 3단계 연구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4단계 연구가 이루어졌다. 4단계 연구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이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세목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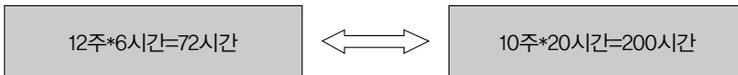
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

2.1.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한국어교육 현장의 경우 학습자의 학습 목적, 기관의 운영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국내외 지역별·기관별로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과 기관에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교육 시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제시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연구에서는 교육 시간을 최대 시간과 최소 시간으로 설정하여 각 지역과 기관의 교육 대상과 시간, 혹은 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72시간(12주*6시간)에서 200시간(10주*20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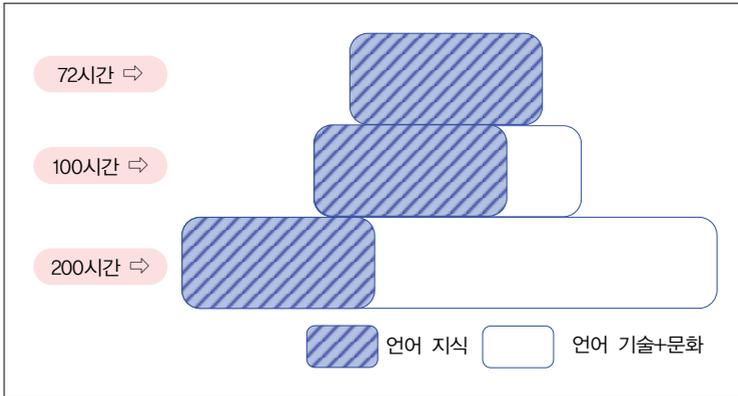
그림 1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이 연구의 변이형으로 제시된 해외 중등학교, 대학 기관, 세종학당,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200시간, 144시간, 100시간, 72시간 등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교육 시간을 운용하는 경우 무엇을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72시간, 100시간, 200시간의 각 영역별 비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각 지역과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교육 시간이 다를

경우 해당 등급의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영역의 비중은 유사하며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문화와 연계된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교육 기관별 운영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림 2 각 시간별 영역 비중



2.2.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범주 설정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교육 시간과 더불어 등급의 범주는 교육과정의 내용 기술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 텍스트, 문화, 평가로 교육과정을 범주화하고 각 급의 총괄 목표와 내용 기술을 통해 교육과정 구성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범주화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등급 범주 설정

범주	항목
주제	17개 범주 85개 항목 제시
기능 및 과제	5개 범주 52개 항목 제시
언어 지식	- 어휘: 10,635개 제시(1급 735개, 2급 1,100개, 3급 1,655개, 4급 2,200개, 5급 2,365개, 6급 2,580개) - 문법: 336개 제시(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
발음	5개 범주 72개 항목 제시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텍스트	4개 범주 144개 항목 제시
문화	3개 범주 100개 항목 제시
평가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3.1. 주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주제 범주는 모두 17개 범주 85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1단계 연구에서는 각 급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모두 78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후 2단계에서 88개의 구체적인 주제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3단계 연구에서 유럽 공통 참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김정숙 외, 2013), 영어과 교육 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2011),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강현화 외, 2012), 2단계(강현화 외, 2013), 3단계(강현화 외, 2014)의 주제 목록을 살펴본 후 최종 수정된 범주의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분류를 한국어교육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선정하여 최종 주제 범주의 목록을 확정하였다.

표 2 주제 목록

범주	항목
개인 신상	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 연애, 결혼, 직업, 종교 등
주거와 환경	장소, 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 지리, 동식물 등
일상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쇼핑	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등
식음료	음식, 음료, 배달, 외식 등
공공 서비스	우편, 전화, 은행, 병원, 약국, 경찰서 등
여가와 오락	휴일, 취미·관심, 라디오·텔레비전,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독서, 스포츠 등
일과 직업	취업, 직장생활, 업무 등
대인 관계	친구·동료·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등
건강	신체, 위생, 질병, 치료, 보험 등
기후	날씨, 계절 등
여행	관광지, 일정, 짐, 숙소 등
교통	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 운송, 택배 등
교육	학교 교육, 교과목, 진로 등
사회	정치, 경제, 범죄, 제도, 여론, 국제 관계 등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등
전문 분야	언어학, 과학, 심리학, 철학 등

최종 주제 항목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의 등급 선정 제안을 기준으로 제시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 등급(●)을 표시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빗금 표시된 등급은 해당 주제가 등장할 수 있는 숙달도를 표시한 것이며, 중점 등급(●)은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신상의 범주에서 ‘이름’은 초급인 1급과 2급에 나타나는 주제이나, 1급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숙달도별 주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주제 등급화의 예

구분		급					
범주(17범주)	항목(85개)	1	2	3	4	5	6
개인 신상	이름	●					
	전화번호	●					
	가족	●					
	국적	●					
	고향	●					
	성격			●			
	외모			●			
	연애				●		
	결혼				●		
	직업				●		
	종교						●

3.2. 기능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1단계 연구에서는 기능 대신 각 등급 별 과제를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2단계 연구에서 과제의 상위 단계를 기능으로 설정하고 한국어 교재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총 90개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능 항목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기능(Functions)’은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간 한국어교육에서 혼재되어 온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90개의 기능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태도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 등 모두 5개의 대범주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기능 범주와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기능 목록

범주	항목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진술하기, 보고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선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경고하기, 충고하기/충고 구하기, 조언하기/조언 구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주의 주기/주의하기, 지시하기
태도 표현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 부인하기, 추측하기, 문제 제기하기, 의도 표현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바람·불만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안도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심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

기능 범주 역시 주제 범주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급을 빗금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으며 다소 넓은 범위의 등급 설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용의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중점 등급(●)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4 기능 등급화의 예

구분		급					
대범주(6)	항목(63)	1	2	3	4	5	6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		
	진술하기						●
	보고하기					●	
	묘사하기				●		
	서술하기			●			
	기술하기						●
	확인하기			●			
	비교하기					●	
	대조하기			●			
	수정하기					●	
질문하고 답하기		●					

3.3. 언어 지식

3.3.1. 어휘

어휘의 경우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의 어휘 목록을 그대로 수용하고 초·중·고급의 3단계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어휘 등급을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에 맞추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의 활용을 고려한 것이다. 6등급 체계로 세분화된 어휘 목록은 어휘의 교수요목 설계, 교재 개발, 평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등급 조정은 본격적인 등급 세분화 작업에 앞서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에서 어휘 목록 선정에 사용한 어휘 빈도, 중복도 등의 계량적 자료를 참고하여 1차적인 등급을 판정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 전문가 및 어휘 전문가, 한국어 교사에 의한 주관적 평정(공평하고 올바른 평가)을 통해 선정된 목록들로, 등급 세분화 작업에서도 객관적 지표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 한국어 교재의 최초 출현 등급과 등급별 중복도를 추가하여 참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재가 현행 한국어교육과정의 6등급 체계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 외에는 6등급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참조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다음은 검토된 객관적 지표와 관련된 정보들을 엑셀에 입력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급 735, 2급 1,100, 3급 1,655, 4급 2,200, 5급 2,365, 6급 2,580으로 합계 10,635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에서 선정한 초급 단계의 어휘를 1급과 2급, 중급 단계의 어휘를 3급과 4급, 고급 단계의 어휘를 5급과 6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6등급 체계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는 교수 현장에서 어휘 외의 다른 언어 지식,

언어 기능과의 체계를 맞추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교재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3.3.2. 문법

문법은 어휘와 함께 언어 지식의 핵심 영역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에서 문법 영역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의 문법·표현 목록에 따르고 있다. 어휘 영역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표준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에서는 초급과 중급의 문법·표현 목록만을 선정하여 고급 단계의 문법·표현 목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6+등급의 체계에 따르고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달라 실제적인 적용에서 활용도가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의 초급과 중급에서 선정되지 않고 남은 초급과 중급, 그리고 고급 단계의 문법 목록을 보충한 후 1급에서 6급으로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타 영역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문법의 대표형 설정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의 지침에 따랐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에서는 결합하는 어휘의 품사, 시제 등에 의해 변이형이 포함될 경우 모국어 화자의 사용 빈도, 형태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고급 단계의 문법·표현 목록을 정비하였다. 이외에 해당 항목의 객관적 사용 지표와 전문가 평정의 과정을 통해 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로 총 336개의 문법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법 목록은 어휘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교재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목적에 따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3.3.3. 발음

발음의 경우 최종적으로 개별 음소, 음절, 음운 현상, 초분절음, 현실 발음의 5개의 대분류, 72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발음의 내용은 일반적인 음운론적 지식의 흐름을 고려하여 ‘음소-운소-음절-음운 현상-현실 발음’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중분류의 선정과 배열은 <표준 국어 문법>의 체계를 따랐으며 보편적인 언어 현상에서 덜 보편적 현상의 순서로 즉, ‘대치-탈락-첨가-축약’의 순을 따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운 현상’의 항목들은 ‘경음화-비음화-유음화-구개음화-‘ㅎ’ 탈락-‘ㄴ’ 첨가-격음화’의 순서로 제시하였고, ‘현실 발음’은 ‘경음화-조음 위치 동화-반모음화-원순 모음화-모음 변화-‘ㅎ’ 탈락-‘ㄹ’ 첨가-모음 축약’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또한 소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항목은 자각과 산출로 나누어 제시한 후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등급부터 끝나는 등급까지 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교육이 여러 등급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중점 등급으로 따로 표시하였다. 특히 발음 교육은 학습 초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으로 교육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최종 등급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중점 등급(●)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은 발음 등급화의 예시이다.

그림 5 발음 등급화의 예

대분류	중분류	예시	내용	등급						
				1	2	3	4	5	6	
	모음	단모음: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단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단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중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이중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자음 다음의 'ㄴ'은 'ㄴ'로 발음하며 그 외에는 'ㄴ'과 'ㄹ'로 발음할 수 있음. 예) 무늬[무니], 회의[회의/회이], 우리의[우리의/우리 에]	'ㄴ'이 달리 발음되는 환경을 알고 구별하여 발음한다.		●					

3.4. 언어 기술

언어 기술은 등급의 적절성, 기술의 균형성, 적용의 실용성이라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1, 2단계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 기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문헌 조사와 실태 조사에서 도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각 급별 목표와 내용을 구성한 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등급별 목표 및 내용 기술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설문 조사에 의한 전문가의 기술 예측 방법)’를 실시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3단계 연구에서 각 급별 세부 내용이 문법, 어휘, 발음 등의 언어 지식을 비롯하여 주제, 기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4단계 연구에서는 종합적 기술을 보완하였다.

3.4.1. 듣기

듣기 영역의 목표 기술은 듣기 영역의 구어적 특성과 이해 영역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제시하였으며 듣기 영역에서의 맥락성은 대화 상대자나 담화 상황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내용 기술에서 어휘나 발음 등 언어 지식의 목표 기술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듣기 기술과 관련된 항목들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각 등급별 특징을 살펴보면 1급에서는 매우 간단한 대화와 정형화된 표현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2급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에서의 담화 이해를 목표로 한다. 1급과 2급은 모두 일상생활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황과 장르에 차이가 있다. 3급과 4급은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한 담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3급에서는 간단한 담화, 4급에서는 다양한 담화 이해 능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3급의 ‘일상생활에 관한 담화의 유창한 이해’라는 목표는 4급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5급과 6급은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서의 담화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5급에서는 ‘간단한 담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면 6급에서는 ‘다양한 담화를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듣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듣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 대한 쉽고 기초적인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듣고 이해한다. 대화 상대방의 자기소개를 듣고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발화를 이해한다.(1, 2급)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질문, 제안, 명령 등의 표현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식당, 가게, 영화관 등)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공공장소(병원, 은행, 기차역 등)에서의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발화를 이해한다.(1, 2급)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대한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동의, 반대, 금지 등의 표현을 듣고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한다.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듣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비교적 복잡한 구성의 일상 대화를 듣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속도의 발화를 대체로 이해한다.(3, 4급)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대한 담화를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요청, 보고, 지시 표현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는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요약 보고(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오가는 대화를 어려움 없이 이해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속도의 발화를 대체로 이해한다.(3, 4급)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대한 간단한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협상, 보고, 상담 담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일반적인 주제의 학문적 대화나 강연, 토론을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일반적인 내용의 방송 담화(뉴스, 다큐멘터리, 생활 정보 등)를 듣고 내용을 대체로 이해한다. 발음, 억양, 속도 등에서 개인차가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대부분 이해한다.(5, 6급)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담화를 듣고 대부분 이해한다. 설득, 권고, 주장 담화를 듣고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전문적인 주제의 발표, 토론, 강연 등을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방송 담화(보도, 대담, 토론 등)를 듣고 인과 관계를 분석하며 내용을 추론한다. 발음, 억양, 속도 등에서 개인차가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대부분 이해한다.(5, 6급)

3.4.2. 말하기

말하기에서의 목표 기술은 말하기 영역의 구어적 특징과 표현 영역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 간 위계를 정밀하고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용어와 표현을 가다듬고, 상황 및 담화 정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각

등급별 특징을 살펴보면 1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매우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2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반면에 4급에서는 ‘비교적 유창하게’ 이를 묻고 답할 수 있다는 데에 차별성을 두었다. 3급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들어서 4급 이상부터 나오는 업무, 학문 영역 및 전문 영역과 구별시켰다. 4급의 경우, 업무 관련 한국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요약 보고(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라는 제한을 들어서 5급에서 ‘유창하고 타당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구분하였다. 한편 5급에서는 학문 영역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고 타당하게’ 말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등급인 6급에서는 전문 분야에 대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어의 대화 및 담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발화와 발화 전략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목표를 들어서 5급 목표인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와 차별화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말하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말하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 주변의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말한다. •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대해 짧게 묻고 답한다. •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적절하게 말한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1, 2급)

등급	내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비교적 잘 말한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식당, 가게, 영화관 등)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 공공장소(병원, 은행, 기차역 등)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화를 한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1, 2급)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한다. •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유창하게 말한다. •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간단한 담화를 말한다. • 대화 상대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말한다.(3, 4급)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 간단한 보고나 요청, 지시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한다. • 주변의 인물이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요약 보고(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식,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격식과 비격식 표현을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말한다.(3, 4급)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업무, 학문 영역에 대해 유창하고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주장한다. • 업무, 학문 관련 공식 상황에서 격식에 맞게 말한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러 유형의 대화나 담화 상황(화상 회의, 전화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적절하게 말한다. • 상황에 따라 한국인과 같은 주저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한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대담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 대화 및 담화 구조와 전략을 알고 이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3.4.3. 읽기

읽기의 등급별 목표와 내용에는 문어적 특성과 이해 영역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장르와 전개 구조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도록 보완하였다. 특히 내용 기술에는 읽기 능력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글의 장르에 대한 기술을 설명적, 설득적 텍스트부터 문학 텍스트에 이르는 순서로 제시하였다.

1급에서는 매우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총괄 목표에 수준을 맞추었다. 2급의 목표에서는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글이기에 ‘쉽고 간단한 생활문’으로 두어 해당 급에서 다룰 수 있는 텍스트의 정도성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1급과 2급에서는 ‘주제’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제의 범위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급에서는 ‘구성이 복잡한 생활문과 실용문, 구성이 단순한 설명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로 4급에서는 ‘설명문, 논설문, 짧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로 제시하여 등급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장르에 차이를 두었다. 그리고 ‘구성’이라는 용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의 기술 영역에서 ‘구조’로 사용된 것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로 사용하였다. 5급과 6급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소재’로 목표를 제시하였다. 문학 작품에 대한 목표는 4급에서는 ‘쉽고 짧은 문학 작품’, 5급에서는 ‘비교적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 6급에서는 ‘비교적 쉬운 문학 작품’으로 구체화하였다. 읽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읽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을 식별하여 띄어쓰기 단위로 어느 정도 끊어 읽는다. •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짧은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간판, 안내 표지판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등급	내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내문이나 게시문의 주요 정보를 읽고 이해한다. 간단한 생활문(메모, 일기 등)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일상생활을 설명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복잡한 구조의 생활문(전자우편(이메일), 초청장 등)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복잡한 구조의 실용문(전단지, 안내문 등)을 읽고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 단순한 구조의 설명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한다.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며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비교, 대조, 나열 등이 사용된 설명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비교적 친숙한 소재를 다룬 논설문을 읽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이해한다. 소재가 쉬우며 길이가 짧은 문학 작품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고 글의 논리적 구조에 따른 의미를 파악한다. 길이가 비교적 짧고 전개 구조가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며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다양한 소재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논리적 의미 관계 및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텍스트의 유형이나 형식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복잡하지 않은 전개 구조와 비유나 함축 표현이 적은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한다.

3.4.4. 쓰기

쓰기 영역의 목표 기술은 각 언어 기술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술하였다. 쓰기는 읽기 영역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문어적 특성을, 말하기와 같은 표현 영역인 만큼 표현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습득 과정의 숙달도 차이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1급과 2급에서는 ‘일상생활’이라는 주제의 통일성을 제시하되, 텍스트 전체 길이를 포함한 문장의 복잡성, 인물, 사물, 장소로 소재가 확대되는

글의 특성에 주목하여 내용 항목을 제시하여 1급과 2급의 급 간 위계를 두고자 하였다. 3급과 4급 즉 중급에서는 주제를 통일하되 간단한 구조의 글을 쓰는 3급 단계에서 확대되어 4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급에서는 설명문, 논설문, 쉽고 짧은 감상문을 제시하여 급 간 차별성을 둔과 동시에 급 간의 긴밀성과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5급과 6급 즉 고급의 특성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를 제시하여 주제의 통일성을 제시하되, 5급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6급에서는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논리적 구조의 글도 쓸 수 있도록 5급의 내용에서 확장시켰으며 다양한 장르에 따른 글의 특성을 알고 이를 고려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급 간의 위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쓰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쓰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글자를 쓴다. • 맞춤법에 맞게 짧은 문장을 바르게 쓴다. • 간단한 메모를 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쓴다.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일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 경험한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다. • 친숙한 인물, 사물, 장소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을 장르적 특성에 맞게 쓴다.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관련된 생활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쓴다. • 실용문(안내문, 전자 우편(이메일) 등)을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다. • 간단한 구조의 설명문에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 친숙한 소재를 다루는 논설문의 구조에 맞게 자신의 주장과 뒷받침 내용을 쓴다. • 짧고 간단한 구조의 수필을 일관된 내용으로 쓴다. • 예시, 비교/대조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등급	내용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해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 글을 쓴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 • 다양한 소재의 글을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요약문을 쓴다. • 정의, 인용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해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전개하는 글을 쓴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연결되도록 글을 쓴다. • 평론, 학술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의 전문적인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간단하지만 일관된 내용 구조를 가진 글을 쓴다. • 비유, 분류, 분석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3.5. 텍스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텍스트’의 내용은 관련 선행 연구¹⁾에 따라 ‘텍스트 유형’을 한정하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항목과 항목별 활용 등급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활용도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각 텍스트 항목은 해당 등급에서 활용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에 기반 하여 각 등급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제와 기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활용 등급을 확정하는 데에는 각 등급별 총괄 목표, 기능과 주제의 연관성이 반영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 다만 텍스트의 경우는 유형별 활용 등급이 제안되고 있으나 중점 등급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텍스트는 텍스트의 언어적·구조적 특징뿐 아니라 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져 중점 등급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류는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사회적 상호 작용을

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국립국어원, 2015)에서 한국어 읽기 교육 자료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한 텍스트,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 등 모두 4개의 대분류로 나누어지며 이와 같은 대범주에 중범주 항목을 등급 표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3.6. 문화

문화의 경우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교육 모형을 채택하여 최소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요구 수준(숙달도)만을 제시하였다. 문화 항목 제시 시 언어 숙달도 요구 수준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범주와는 달리 숙달도가 낮은 순으로부터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만 표시하였는데 이는 그 등급에서만 학습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급에 서부터 학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먼저 ‘문화 지식’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해 선언적 지식을 교수·학습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교재의 문화란을 통해 주로 읽기 텍스트로 교육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문화 실행’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해 절차적 지식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했다. 주로 교실 밖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 행사, 견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점’의 경우 한국 문화와 자국, 세계 문화를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며 문화 비교에 대한 말하기나 쓰기 등과 같은 기능 수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7. 평가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도, 타당도, 실제성, 상호 작용성, 실용성, 역류 효과와 같은 기본적인 평가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역류 효과를
 미치기 위한 평가 항목의 개발을 위해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기술에 근거하여 평가 모형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평가 범주에서는 한국어 평가의 목표 및 범주
 설정의 방향을 논하고 이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 평가 범주와
 목표, 초·중·고 등급별 평가 내용을 기술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마지막 단
 계인 평가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역시 문화 범주
 와 마찬가지로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평가 총괄 목표’,
 ‘주제’, ‘기능’, ‘언어 지식’, ‘텍스트 유형’ 등에서 각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자
 들이 학습해야 할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4. 마무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은 2010년, 2011년,
 2016년, 2017년 총 네 차례의 체계화되고 정밀화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
 되었다. 2010년에 수립한 총괄 목표 기술 역시 2016년에 정교화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등급의 특성, 등급 간 일관성, 등급 간 연계성, 기술의 명료성
 등을 점검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이해가 쉽도록 세밀화하고 보완하는 작업
 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수정과 보완의 방향은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게 되었다고 본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의 경우 사용자
 가 교수요목을 구성하거나 교재 개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하였고 기능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제 및 활동 개발이 가
 능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술은 목표를
 중심으로 영역별 특성과 영역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포함하게 하였고 해당

기술별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 개발 및 활동 개발, 평가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발음, 어휘, 문법을 등급화하고 목록화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다양한 변인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문헌

- 강현화 외(2012),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3),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2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4),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3단계)》, 국립국어원.
- 김정숙 외(2008),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중섭 외(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국립국어원.
- 김호정 외(2012),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 외(2013),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 외(2014),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 외(2015),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 이정희 외(2015),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한송화 외(2015),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 van EK, J.A. & Trim, J.L.M.(2011), 《Vant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EK, J.A.(1980), 《Threshold level English》, Oxford: Pergamon Press.
- Wilkins. D.A.(1976), 《National Syllabuses》, Oxford University Press.

해외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박진욱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이수미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우전임교원

장미정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 교수

1. 서론

이 글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해외 중등학교에 적용하여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의 활용 절차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 단위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명칭: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에 2단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이후 5년간의 현장에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보완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7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보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끝으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은 목적과 지역, 대상, 교육 환경 등에

* 이 원고는 《한국어교육》 29권 1호에 게재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 적용 연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를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에 표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변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이러한 표준과 변용이 가능했던 것은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이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해 주되, 세부적인 항목에서 현장성을 가미할 수 있는 참조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조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주체는 한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교재 개발자가 될 수도 있으며, 교사 개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은 그 양이 방대하고 현장에 맞추어 구체화·상세화를 시도해야 하기에 그 활용 방법이 수월하지는 않다.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자의 입장에서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과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며, 다음으로 국내외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제2외국어 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고, 내용 체계와 상세화의 과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현황

2.1. 해외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 관련된 제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황 조사와 관련 연구들을 통해 교육과정이 사용될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겠다.

교육부(2017a)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외 초중등학교에 개설된 한국어반은 27개 국가, 1,309개 학교, 115,333명의 학생 수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학교 수는 일본 548개, 미국 155개에 이어 태국 82개, 대만 74개의 순이었으나 학생 수는 태국이 26,365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해외공관(한국교육원)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개설된 한국어반의 수는 2013년에 24개국에서 2014년 26개국, 2015년에는 28개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반 개설은 한국어의 중요도를 그 나라의 교육제도 안에서 인정받음으로써 대학에서의 한국어과 개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인 성장을 촉구하여 지속적인 양적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해외 초중등학교는 학교별로 정하는 외국인 시수 및 교사의 수급 문제를 포함한 특수성과 더불어 국가별로 외국어별 인지도 및 외국어교육의 역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부재,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교사 및 교재의 부족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외 중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태국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태국의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¹⁾에 대해서는 진정란(2012), 권현숙(2014)의 연구가

1) 2017년 10월 한국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3월에 '태국중등학교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태국에서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가 발간되었다고 한다. 이는 2008년 태국 교육부가

이루어졌다. 특히 진정란(2012:236~255)에 따르면 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제2외국어는 태국 교육부의 기초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데, 중학교 과정(일부 초등학교 과정 포함)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지정하지 않고 방과 후 특별과정으로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곳이 많으며 수업 시수도 주당 2~6시간 정도로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도 한국 소개나 한국 문화 체험 등으로 한국어 학습보다는 ‘한국 맛보기’ 정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태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진입 초기 단계이므로 지나친 언어 교육의 강조보다는 학습자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체험 활동과 실제적 실용 표현 중심의 언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현숙(2014:33~35)에서도 태국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며, 태국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한국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한류와 케이팝(K-POP)과 가수, 한복, 드라마와 영화, 음식 문화, 한국의 의식주, 한국의 중고등학생 문화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어교육 연구 중 해외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언어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한국 언어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 문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기능, 언어 지식에

한국어를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한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였다. 태국 정부는 이로써 태국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2018학년도부터 태국 대학 입시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태국에서의 중등학교 대상 한국어교육이 보다 공고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속적인 동기,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 시수는 많게는 3시간, 적게는 1시간 정도로 한국어를 학교에서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 따라 한국어 선택 시기가 다른데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전체 교육 시수를 고려한 교육 내용 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현지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팀 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 티칭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배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2. 국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앞선 조사와 연구들을 통해서 해외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반 조사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제시하며 교육과정의 현실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이 정리가 되었다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교육과정의 출발 수준과 종료 수준에 대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수준을 결정할 때도 단순히 개발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여러 사례들을 통해 목표 수준 결정의 지침을 얻을 필요가 있다.

2.2.1. 국내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교육부, 2015)을 살펴보면,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제2외국어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외국어 과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생활 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I·II로 심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 과목 편성

구분		과목명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 선택 과목	- 생활 독일어 - 생활 프랑스어 - 생활 스페인어 -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 생활 러시아어 - 생활 아랍어 - 생활 베트남어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진로 선택	-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이 중 교육부(2015:3)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생활 외국어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은 언어 기능의 연마라는 실용적 가치 이외에 인격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얻어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 보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 주고,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생활 외국어'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이다.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접하는 '생활 외국어'를 통해 학습자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격 성장,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이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부(2015:4)에서는 생활 외국어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 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교육부(2015)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의 경우 독일어, 프랑스어 등 각 과목마다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과목의 교육 목표를 검토하였을 때 교육 목표의 주안점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어 학습을 통해 문화 간 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며, 외국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의 생활 외국어와 교육의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과목의 교육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2외국어 과목 중 유럽 참조 기준이 반영되어 제시되고 있는 ‘생활 독일어’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제2외국어 생활 독일어의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요소	내용	기능
언어적 내용	발음 및 철자	· 독일어 표준 발음 · 독일어 정서법	· 올바르게 발음하기 · 올바르게 글쓰기
	어휘	·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독일어 교육과정 [별표 II]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25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한다.	· 문맥과 상황에 맞게 낱말 사용하기 · 어법에 맞게 문장 사용하기 · 상황과 의도에 맞게 의사소통 표현 사용하기
	문법	·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문법	

영역	핵심 요소	내용	기능
	의사소통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독일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참고 · 인물·사물, 감정·의견·건강, 날씨·의식주, 사회생활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 · 생활 독일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참고 	
문화적 내용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문화(관용적 표현, 속담과 격언 등) · 생활문화(의식주, 여가·취미, 기념·축제일 등) · 지역 사정(지리, 제도 등) · 사회·문화(인물, 문화유산, 예술·체육·학술 등) 	·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독일어의 경우,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을 축으로 하여 언어적 내용 안에 언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음, 어휘, 문법이 있으며 이외에 실생활 표현으로 의사소통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 내용 안에는 문화라는 핵심 요소 안에 언어문화, 생활문화, 지역 사정, 사회·문화 등 목표어에 대한 폭넓은 문화 지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육부(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독일어, 독일어 I, 독일어 II의 내용 체계를 비교하면 <표 2>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각각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언어 내용의 수준은 생활 독일어와 독일어 I이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학습하며 독일어 II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학습한다. 어휘의 수가 각각 250개, 500개, 800개 내외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유럽 참조 기준의 A1(기초적 언어 사용) 수준²⁾에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 제2외국어 한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 교육 목

2) 심봉섭 외(2010:80)에 의하면 고등학교 제2외국어 수준은 대체적으로 1년 100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 동안 400~500개의 어휘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므로 언어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휘의 수적인 면이나 학습 시간만으로 볼 때 이는 회화 수준의 전통적인 등급 구분인 초급-중급-고급에서 보통 가(假)초급 혹은 초급 이전의 기초나 초보라 불리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한다.

표는 일상생활에 대한 회화 능력 및 목표어권에 대한 문화 이해 함양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 내용은 초급 수준을 다루지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연속하여 학습하는 경우와 고등학교부터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의 수준을 세분화하고, 교육 항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2.2.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해외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심봉섭 외(2010)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외국어(영어 포함)를 2개 이상 학습하도록 권장하면서 초·중·고 졸업 시까지 자신이 선택한 외국어에 대해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일정 등급을 획득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졸업 시까지 획득해야 하는 수준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에는 제2외국어의 경우 B1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표 3 프랑스 외국어 교육에서 각 교육과정별 획득해야 하는 언어 수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연한 (16세)까지	고등학교
제1외국어	A1	A2	B1	B2
제2외국어	—	A1(선택)	—	B1
제3외국어	—	—	—	A2(선택)

또한 독일에서는 각 연방주 교육부장관 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각 학교의 형태에 따른 외국어 능력의 목표를 표준화해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김나지움 10학년까지 제1외국어로 영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B1 수준에 도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김나지움 졸업 시 도달해야 할 등급은 주마다 서로 다르다고 한다.

국가별 제2외국어 교과 편제를 연구한 한상헌(2005:218)에서는 국가별 제2외국어 수업 주당 시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상헌(2005:218)에서는 국가별 제2외국어 교육의 평균 주당 시수와 제2외국어가 전체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나라의 학제에 적용하여 <표 4>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표 4 국가별 제2외국어 주당 평균 시수와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의 비중

학년 \ 나라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초등학교 (1-6학년)	0시간 0%	0시간 0%	(2.1)시간 (8.1%)	0시간 0%	0시간 0%	0시간 0%
중학교 (7-9학년)	(0.7)시간 (2%)	(3)시간 (10.7%)	3.6-(4.0)시간 6.1-(12.1)%	5.2시간 16.4%	3시간 10%	0시간 0%
고등학교 (10-12학년)	1-(2)시간 2.8-(5.6)%	(6)시간 (17.2%)	4.9시간 13.8%	5.9시간 18.8%	2.8시간 9.2%	1.6시간 10.8%

위의 <표 4>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하며, 다수의 국가가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3시간 내외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주로 중학교부터 시행되며 교육 시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제2외국어 과목에 적용할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할 때 해외 교육과정의 시수(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제2외국어로서만이 아닌 제3외국어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과정

2장의 논의를 통해 해외 중등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자는 지침과 가상의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수립한 지침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목표 등급 설정과 단계 세분화, 교육 목적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내용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제2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비해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시작 시기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적은 대체로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B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B1 수준은 단계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3단계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준으로 3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세부적인 성취 수준을 보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 언어의 계통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구현되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는 국제어로서의 위상 및 한국어 해외 보급률, 계통적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유럽의 외국어 교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표 5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비교

구분	세 부 내 용
한국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p>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p> <p>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p> <p>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p> <p>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유럽 공통 참조 기준 B1의 총괄 척도	<p>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여 업무, 학교, 여가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p> <p>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짚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p>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급의 총괄 목표	<p>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는 개인적·구체적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p>

위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수준에서의 핵심은 일상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장소)도 일상적인 맥락으로 한정하고 있다.

3.2.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설정

해외 중등학교용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총괄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를 몇 개의 단계에 걸쳐 가르칠 것이냐, 각 단계는 몇 시간으로 운영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여건과 환경,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등급별 시간은 최소 72시간에서 최대 20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 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도 총 운영 학기, 학기당 총 운영 시간, 주당 수업 시간 등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기에³⁾ 등급별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표 6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시간⁴⁾

목표	등급별 소요 시간	학기	주당 수업 시수	목표(2급)까지 소요 학기
2급	72시간 (총 144시간)	18주	2시간	4학기(2년)
			4시간	2학기(1년)
2급	144시간 (총 288시간)	18주	2시간	8학기(4년)
			4시간	4학기(2년)

<표 6>은 72시간 모형과 144시간 모형으로 학기를 운영할 때 최종 등급인 2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144시간과 288시간이 됨을 보여준다. <표 6>을 기준으로 본다면 특정 국가의 중등학교에서 총 4학기에 걸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주당 수업 편성을 4시간으로 할 수 있다면 144시간 모형으로 4학기(2년)를 운영하면 되는

3)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면 중학교의 경우 주당 교육 시간이 짧게는 2시간에서 5시간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4시간까지 편성된 경우를 볼 수 있다.
4) <표 6>에서 제시한 시간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등급 당 최소 소요 시간 72시간과 그 두 배 교육 시간인 144시간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기 당 18주는 국내 정규 학교의 학기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것이다.⁵⁾

해외 중등학교용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도 학제, 기관, 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급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등급의 균등적 세분화 단계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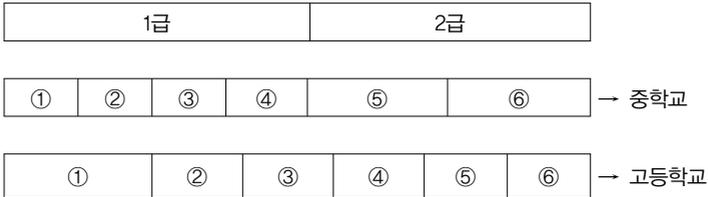
1급				2급				
①	②	③	④	4단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단계

위의 예시는 2급으로 이루어진 목표를 운영 학기 단위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세분화한 모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단계 설정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전체 4학기로 운영을 하는가, 혹은 8학기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위의 방식이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 학기에 따라 균등하게 세분화한 것이라면 아래의 예시는 학습자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계를 세분화한 예시라고 하겠다.

5)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최종 목표를 2급으로 하되 교육 여건에 따라 등급별 소요 시간에 차이를 두었기에 같은 등급이라도 교육 시간에 따라 학습자의 세부적인 언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2급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최대치로 본 200시간을 교육 받은 학습자와 최소치인 72시간을 교육 받은 학습자 간에는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교육의 시간에 따라 해당 등급의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등급의 과제들 중 일반적이고 쉬운 과제에 한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하겠다.

그림 2 학습자 연령 및 인지 발달을 고려한 단계의 예시



중등학교 학습자의 경우 인지적 발달이 성인 학습자의 경우와 다르다.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내용이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의 연령이 다소 낮은 경우 초급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일상적 경험의 범위가 좁은 만큼 다를 수 있는 주제와 상황, 맥락도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2외국어 교육 이후 실제 목표어 국가 사람들과의 대면 기회 등을 고려한다면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2급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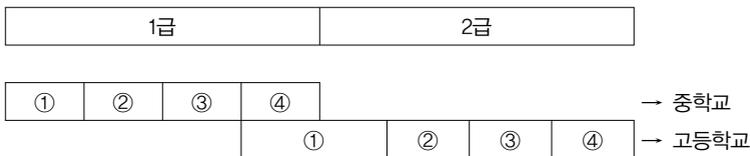
이러한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등급을 2급으로 설정하더라도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내용의 비중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위의 <그림 2>의 첫 번째 모형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6개 단계에 걸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제2외국어 교육이 마무리가 된다면,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2급을 목표로 하더라도 학기마다 다를 내용의 비중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6개 학기 중 첫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준을 설정하여 낯선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어 학습에 조금 익숙해진 5단계부터는 앞의 두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하고 전체 6단계를 운영한다고 하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인지 발달 및 사회 경험이 확대된 것

으로 판단하여 난이도가 낮은 1단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으로 설정하되 이후 어휘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는 1단계에 비해 내용의 양을 줄여서 학기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급 중반부터 어휘의 양과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마지막 6단계의 경우 지향점은 2급으로 하되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2급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다 단단하고 밀도 높은 수준의 2급을 최종 목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중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과정은 선택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해외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중등학교 과정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선택을 하고 두 과정이 연계되어 진행된다면 단계별 목표가 보다 유기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중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각각 4학기에 걸쳐 연계되는 교육과정이라면 다음 <그림 3> 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를 고려한 단계의 예시



중학교 단계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4단계로 설정하여 세밀하고 점진적으로 학습하여 2년간 안정적인 1급 수준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세밀하고 점진적으로 1개 등급(2급)의 내용을 4단계에 걸쳐 학습할 수 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1단계 수준은 중학교의

종료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중학교 4단계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2급의 25% 수준까지를 다룸으로써⁶⁾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며 수준을 심화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고등학교 단계로 들어설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이후 2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점진적인 단계로 학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2급에 도달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3.3.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과 내용 상세화 방안

3.3.1.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 설정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목표 수준과 등급별 세부 단계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단계별 교육 내용에 대한 선정과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내용 범주로 주제, 기능/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텍스트, 문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범주의 각 항목들은 교육의 목표에 맞춰 유기적인 관계로 재편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는 해당 맥락에서 요구되는 인사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하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이 선정될 것이며, 어휘와 문법은 언어 기술과 통합되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등급에 활용 가능한 텍스트가 고려될 것이며, 학습자 수준과 배경을 고려한 문화적 맥락도 참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구체화할 때에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 환경, 학습자의 요구와 인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중을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등급별 소요 시간이 72시간인 교육과정에서는 제도권 교육으로서

6) 유동적 분지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1단계 수준은 1+ 등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평가 개발과 현직인 교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언어 지식, 언어 기술, 문화의 비중을 5:3:2로 설정한다면, 144시간 모형에서는 같은 등급 내에서 교육 시간 확보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언어 지식을 확대하기보다는 언어 기술과 문화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등급별 소요 시간이 72시간인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 예시

$$\text{총 72시간 모형} = \boxed{\text{언어 지식}} + \boxed{\text{언어 기술}} + \boxed{\text{문화}}$$

3.3.2. 교육 내용의 상세화 절차

범주별 비중이 결정되었다면 내용 항목에 대한 선정 및 구체화 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등급별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이므로 교수요목 설계를 위해서는 이를 학습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고, 상세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겠다.

교육 항목 개발은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등급별 주제 항목 중 중등학교 학습자에 적합하도록 상세화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제 선정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을 다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항목에서 선정, 기능별 과제를 다시 중등학교 학습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상세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주제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등학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관심과 흥미의 지속으로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 학습’이 주제, 기능,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

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학습자라는 학습자 특성, 즉 인지 발달 단계를 반영하고 학습 시간 등의 환경적 특성, 즉 일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대부분 한국어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등학교 학습자가 한국어와 문화를 통합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학습으로 지속적인 한국어 전문 언어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학습자의 ‘지금’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을 예로 제시하면, 2급은 일상생활을 주제로 설정되어 있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제와 기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능은 구체적인 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형태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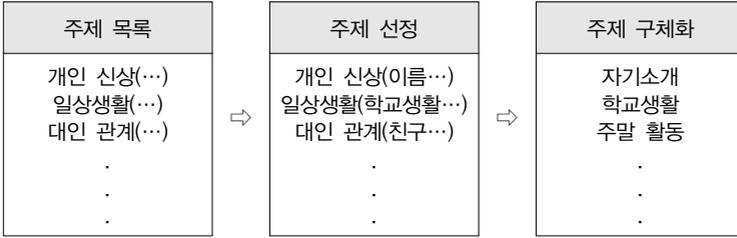
표 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 주제

등급	주제
2급	개인 신상(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 주거와 환경(장소, 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 일상생활(가정생활, 학교 생활), 쇼핑(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식음료(음식, 음료, 배달, 외식), 공공 서비스(우편, 은행, 병원, 약국, 경찰서), 여가와 오락(휴일, 취미·관심,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대인관계(친구·동료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건강(신체, 위생, 질병, 치료),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통(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

2급의 주제 목록 중 ‘개인 신상’, ‘일상생활’과 같은 주제는 중등학교 학습자에게도 적합하며 초급 단계에 활용되기에도 적합하므로 이러한 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선정된 주제들의 세부적인 주제인 고향 등은 중등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제 목록 중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중등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중등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주제 선정의 절차



기능 영역 또한 주제 영역과 같은 절차로 구현이 가능하다. 즉,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항목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세부적인 기능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기능은 과제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의 기능은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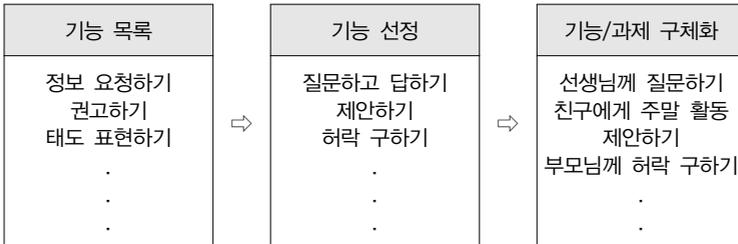
표 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 기능

등급	기능
2급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요청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추측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

2급의 기능 목록 중 ‘질문하고 답하기’, ‘제안하기’와 같은 주제는 중등 학교 학습자에게도 적합하며 초급 단계에 활용되기에에도 적합하므로 이러

한 기능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능 목록 중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중등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능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중등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기능 및 과제 선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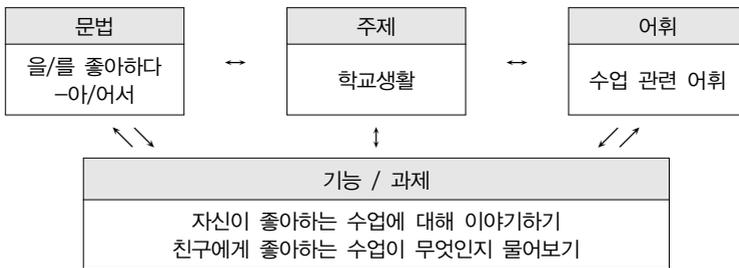


위와 같이 구체화된 주제와 그 주제 하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구체화한 과제가 정해졌다고 하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지식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⁷⁾ 언어 지식은 문법과 어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두 영역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표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선정할 때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법과 어휘 목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과 어휘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조 기준으로서의 문법과 어휘라는 점이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록으로서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개발자)의 관점에 따라 등급을 넘어서는 문법이 선택될 수도 있다.

7) 과제를 구체화한 후에 언어 지식(어휘, 문법)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수요목 개발자에 의해 전후 단계가 조정될 수 있고, 또한 기능과 과제 언어 지식에 대한 선정은 회귀적이고 순환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과 어휘의 자체 난이도보다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더욱 중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목록은 사용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법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의도에 맞게 활용형이나 복합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림 7 주제와 기능/과제, 문법, 어휘의 연계



<그림 8>은 위의 과정을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기능 및 과제, 문법, 어휘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학교생활’을 주제로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의 과제를 수행 하게 하며 이때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상세화할 수 있다.

3.3.3.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

해외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앞선 절차를 참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할 수 있다.

표 9 교육과정 개발 과정 중 교수요목 설계 예시

등급	2급			2급
주제	일상생활	가정생활	⇒ 상 세 화	좋아하는 수업
		학교생활		
기능	감정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 친구에게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 자신이 어려워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 친구와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조언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는 한국인과 직접 대면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학교에서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학교 맥락을 중심으로 주제와 기능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능 중 선호 표현하기의 경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심과 취미라는 주제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중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서는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좋아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에서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주제와 기능을 수행할 때 실현되는 발화나 텍스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명사+을/를 좋아하다', '명사+이/가 재미있다(재미 없다)어렵다(쉽다)', '-아/어서'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에서는 학교 수업 관련 어휘 및 감정과 관련된 어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과 어휘 목록을 참고하고 언어 수준에 맞는 문법과 어휘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하나의 단원으로 교육 항목들을 <표 10>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10 단원 구성 예시

주제	기능 / 과제	문법	어휘
좋아하는 수업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구에게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을/를 좋아하다 -아/어서	수업 관련 어휘 감정 관련 어휘
.	.	.	.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등학교 학습자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에 대한 관심, 흥미이며 이러한 ‘나의 감정’이 ‘친구와 비슷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수업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를 알고’ 동시에 ‘친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한국어 학습을 통한 자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결론

지금까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을 개발해 보았다. 한 기관의 교육과정은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교육의 출발과 종료 수준 설정, 학기별 단계 설정, 수업 운영 시간 설정, 교수요목 설계, 평가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개발된다. 특히 한국어교육은 교육 목적에서부터 국가, 지역,

기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실현되기에 기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관리자가 이러한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제2외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 권현숙(2014), “태국 중·고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진욱 외(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 적용 연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52쪽.
- 심봉섭 외(2010),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도입방안 기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선근(2009),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과목에 채택시키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5-72쪽.
- 임형재(2013), “태국 내 한국어교육의 변화와 교육 기반 연구-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75-98쪽.
- 정서영(2015),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45-181쪽.
- 진정란(2012), “태국 중고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8-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35-257쪽.
- 쩨티투르영·안경환(2017), “베트남 고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시도와 장점-호찌민시와 붕따우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71-500쪽.
- 한상현(2005), “제2외국어 교과 편제에 대한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교원 교육》 21-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21쪽.
- Council of Europe(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김한란 외 역(2010),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 교육부(2017a), 2016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개설반 현황,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8&boardSeq=71270&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ts=moe&tm=040103&opType=N>, (검색일 2017.9.7.).
- 교육부(2017b), 태국 최초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 발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ts=moe&tm=0503&opType=N&boardSeq=72235>, (검색일 2018.1.5.).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김지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박나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조교수
강현자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조교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를 활용하여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내 14개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숙달도 검증 조사를 한 2016년의 3단계 연구 결과에 이어¹⁾ 최근의 여러 보고 자료와 각종 연구 결과물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숙달도 검증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행정적인 부분인 수업 시수와 최종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해외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완 연구(김중섭 외, 2016)>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의 대학 내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숙달도 검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대학마다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최종 등급은 서로 다르나 석사 과정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5급 정도를 최종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시수와 관련하여 평균 12주, 한 학기에 학년별 차이를 두지 않고 상정한다면 90시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먼저 최근의 보고 자료와 연구 결과물을 살펴본 결과 해외 대학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과정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어 혹은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된 경우
-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
-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1.1. 한국어 혹은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된 경우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단일 전공으로 개설된 경우와 한국학 전공에서 필요한 도구적 성격으로 한국어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학 관련 전공으로 범위를 넓혀 한국어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교육은 대개 1, 2학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3, 4학년 때에는 통번역이나 강독, 한국학 관련 강의로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중국의 경우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대학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발음, 어휘, 문법을 교육하면서 언어 지식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언어 기술 활동을 하고 있었다(추애방, 2017). 일본의 경우 2015년 15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한국어 전공 과정의 한국어 강좌는 전체 이수 학점의 50~66.7%를 차지하며 1, 2학년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협정대학과 복수 학위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박진완, 2015). 베트남의 경우 졸업 후 한국 관련 기관 혹은 기업에서의 업무나 한국어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13개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으며(응웬티리, 2017) 하노이국립외대처럼 졸업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었다(찐티란아잉, 2015). 대만은 3개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전공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 4급 혹은 5급을 제시하고 있었다(왕청동, 2015). 태국은 2015년 현재 9개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 송클라대학교와 실파콘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50%에 육박함을 볼 수 있었다(홍혜련, 2015).

유럽 지역은 전공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5, 6급을 졸업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수업 시수로 볼 때 높은 속달도를 예상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대학교의 경우 1학년에는 주당 14시간씩, 2학년 때에는 16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받는다. 3학년 때에는 한국학 세미나를 수강하며,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4, 5학년 때에는 한국어 강독과 논문 준비 과정이 있다(정현숙, 2016). 영국 런던대학의 경우 한국어 강좌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은 2학년 때 반드시 한국의 자매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해야만 진급할 수 있다. 1학년 때 수강해야 하는 한국어 수업은 21주 동안 주당 10시간인 것으로 파악된다(연제훈, 2015). 프랑스에서는 13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 과정에서는 한국어 수업으로 매 학기 전체 시수의 54%에 해당하는 104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1학년은 초급, 2학년은 중급, 3학년은 고급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조태린,

2013).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ELTE 국립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도 6학기 동안 한국어 과목을 43학점(총 540시간) 이수해야 하고 모든 과목이 전공 필수이다(이은선, 2015). 한편 러시아에 ‘한국어’ 혹은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학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와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두 곳인데 정해진 외국어 교육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강좌의 시수나 교수법 등은 교수자가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송아라, 2014).

미국에서 동아시아학과의 설치된 4년제 대학은 약 60여 개인데 이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학이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지원, 2014). 남캘리포니아대학,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 등 북미 지역 대학 동아시아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일반 목적 한국어(KGP)와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KGAP),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KSAP), 특수 목적 한국어(KSP) 등이다. 이 중 일반 목적 한국어(KGP)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1, 2학년 때 집중된다(강주연, 2016).

한편 아프리카 지역인 이집트에서는 아인샤스대학교에서만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학과의 교육 목표가 외국어 전문가와 번역 전문가 양성에 있으며 주로 문법과 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말하기의 비중이 낮다(송경옥, 2017).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첫째, 한국어교육은 대개 1, 2학년 과정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3, 4학년 때에는 통번역이나 강독, 한국학 관련 강의로 진행된다.
- 둘째, 국가의 특성에 따라 중국처럼 대학 전체가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을 따르는 곳도 있지만 러시아처럼 교수 개인의 재량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 셋째, 학생들은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이상으로 높은

한국어 숙달도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1, 2학년 때까지 일정 수준의 숙달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발판으로 통번역 기술이나 한국 혹은 한국어 관련 지식을 심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환 학생 등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여 공부하고 귀국한 학습자들의 경우, 따로 이들 학습자를 위한 차별화된 한국어 강좌 개설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

해외 대학의 부전공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은 전공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 부수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수의 대학에서 전공 과정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부전공으로서의 한국어 과정’은 한국의 대학처럼 주전공 이외에 부가적으로 일정한 조건의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한국과 다른 교육 여건임을 감안해 ‘정황상’ 부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국립동방대에서는 통번역학과를 비롯하여 역사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및 대학원 등 관련 학과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과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은 단순 교양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지형, 2015).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 학부에 전공 이외에도 교양 과목으로 주당 2시간 정도의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검정 과정’을 두어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2년 동안 주당

4시간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수업 시수로나 연속성으로나 다른 일반교양 과목과 차이를 보인다 (Edirisuriya, 2016).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는 대만과 태국, 아랍 에미리트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한국어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3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정치대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공 학생 171명에 부전공 학생은 250명에 달한다 (왕청동, 2015). 태국의 경우 송클라대학교, 실파콘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의 경우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할 경우 18학점에서 22학점까지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학점 143학점 중 약 15%에 해당한다(홍혜련, 2015). 아랍에미리트의 UAE대학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던 한국어가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되었는데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인 문어 및 구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영어와 아랍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와 아랍어로 짧은 글을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총 18학점의 한국어를 수강한다 (송경옥, 2017).

부전공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업 시수가 전공에 크게 못 미쳐 전체 학기에서 20학점 내외의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어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전공으로만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많으므로 보다 정비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3.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전공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745개 대학 중 한국어 강좌가 있는 대학은 468개교 (전체의 62.8%)에 달하며(박진완, 2015)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

서도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 외국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수업은 다수의 대학에서 2년간에 걸쳐 주 2회(90분) 정도로 전체 135시간 정도에 그친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학습자와 전혀 무지한 학습자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적이다(오고시 나오키, 2015). 다만 역시 전체 159개 대학 중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한 대학이 모두 57곳에 이르며, 이는 전체의 약 36%에 해당된다(왕청동, 2015).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은 다른 전공의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경우 한국학 과정은 일본학 전공자를 위한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I(4학점)과 한국어 II(4학점)가 개설되어 있으나 주당 1회 두 시간씩 13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이다(강란숙, 2015). 그러나 아직 한국학이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의 대학에서는 전공보다는 교양 과목을 통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아랍권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모로코, 이라크, 요르단, 알제리 등의 여러 대학에서 교양 한국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년에 2학기, 주당 2회씩 3~4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수강자가 많아져 교양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급까지 개설되어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권현숙, 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한 학기나 두 학기에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한국어 학습에 높은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초급에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언어 지식이나 기능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아닌 다양한 등급과 수업 내용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2. 현지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요구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와 학습 환경, 교수자 등의 변인과 상관없이 범용 가능한 한국어교육 항목 개발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2016년 연구의 숙달도 검증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내용 학습 단계 전에 도달해야 하는 한국어 언어 기술 함양 중심의 교육과정만을 변이형 개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에서는 선행연구와 숙달도 검증 조사 결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의 목표를 4급으로 설정하고, 1급에서 4급까지 다를 수 있는 주제, 기능, 과제 등을 살펴 각 대학에서의 학습 환경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이형의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해외 5지역의 11개 기관의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의뢰하였다.

2.1. 설문의 방법 및 내용

설문 조사는 베트남,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암만 5개국 11개 기관을²⁾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응답자 및 기관 정보’, ‘소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및 기관 정보’를 통해서 해당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 한국어 교원 수(한국인과 외국인 별개),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연도 등을 확인하였다. ‘소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설문 기관의 한국어교육 과정의 종류, 최종 목표, 수업 시수, 졸업 조건, 교과목의 특성, 졸업 후 진로, 기존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을 알아보았다. ‘해외

2) 구체적으로 밝히면 하노이국립외대, 하노이국립대, 호치민사범대,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원땃탄대(NTT), 호치민외국어정보대, 인도네시아 반히엔대, 요르단대학교, 인도네시아교육대, 카자흐국재관 계및세계언어대, 파라과이ISE(국립교원대)가 설문 조사 대상 기관이었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숙달도 4급이 목표로 적합한지, 기능, 과제 등은 적합한지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유용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2.2. 설문 결과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각 대학의 한국어 담당 교수의 수는 평균 1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어 교수는 5명, 외국인 교수는 6명이었다. 교수들의 한국어교육 경력은 평균 8년 정도였고, 학습자의 수는 평균 295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745명, 파라과이는 39명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각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공 과정이 57%, 교양 26%, 부전공 17%로 나타났으며 전공 과정의 경우 도달 목표를 5급으로 설정한 기관이 46%에 이르렀다. 부전공의 경우 2급부터 5급까지였으며 교양의 경우에는 1급부터 5급까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공 과정은 한국어 능력 5급으로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부전공이나 교양 과정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였다.

교육 시수는 한 학기가 15주인 경우가 82%, 16주인 경우가 18%에 달했으며 한 주당 교육 시간은 각 대학과 과정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한 단계의 등급을 수료하는 데에는 평균 1학기(34%)에서 1학기 반(33%), 2학기(33%) 등으로 대부분 2학기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졸업 조건에 한국어능력시험의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전공 과정의 경우 5급을 요구하는 기관이 50%, 4급이 25%, 3급이 25%로 나타났다. 부전공과 교양 과정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몇몇 기관에 불과했으며 기준도 상이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의 한국어 담당 교수들은 대부분 소속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졸업 기준의 한국어 숙달도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는데, 67%가 ‘보통이다’, 3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교과목 중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은 79%, 선택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21%로 나타났다. 그중 언어 기술 관련 교과목은 61%, 내용 중심 교과목은 39%이다. 추가 개설이 필요한 과목으로는 문법, 듣기, 한국어능력시험, 통번역, 시사, 비즈니스, 관광 업무, 대중문화, 한국어교육학 등 비교적 실용적 교과목을 들었으며 폐지해야 할 과목으로는 전통예술 이해, 인지언어학, 문체론, 텍스트언어학 등을 꼽았다.

설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 초안에 대한 현지 적절성에 대해서는, 김중섭(2017)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총괄 목표 4급이 적절하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5%가 ‘보통이다’, 23%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수업 시간을 4학기 동안 360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언어 기술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는 적합성 5점 만점에 4.2점을 읽기는 3.6점을 쓰기는 3.5점을 부여하였다.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이기는 하나 구어와 문어 중 문어 영역에서 현재 설정된 목표가 다소 높다고 판단하였다.

주제 영역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 4.82점의 높은 적합성 정도를 보였다. 다만 세부 내용을 확인했을 때 주제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인 ‘교육’ 부분의 적합성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여가와 오락’, ‘기후’ 같은 주제는 적합성 5점 만점을 보였다. 주제 관련 결과는 교육 항목 배열의 선후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과 과제 영역에서는 기능과 각 기능마다 최소 3개에서 10개 이상

의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적합성을 물었는데, 전체 평균 4.59점의 적합성 정도를 보였다.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4.76점, ‘설득하기와 권고하기’가 4.66점, ‘태도 표현하기’가 4.5점, ‘감정 표현하기’가 4.44점으로 나타났다. 설명, 묘사, 서술, 확인 등 가장 보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역시 가장 높은 적합 정도를 보였다. ‘감정 표현하기’의 경우에는 위로, 불평, 불만, 후회, 안도, 놀람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부 항목마다 적합성 정도의 차이가 커서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설문문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현지 교재, 부교재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유용하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집중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3.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이 글에서는 한국어 과정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변이형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는 부전공과 교양 과목만 운영된다고 해도 한국어 전공 과정의 틀 안에서 학습자 집단의 요구와 흥미, 관심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범용적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전공의 경우는 제안된 해외 대학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의 중반부까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교양 과목의 경우는 초중반부까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전공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해외 대학의 경우 졸업 조건이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4~5등급이며 한 학기당 평균 15주

약 90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를 보인다. 또한 1, 2학년 때에는 언어 기능 자체에 집중하지만 3, 4학년에 들어서면서는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학 등의 내용적인 학문 영역이 적극 도입된다. 다시 말해 전공 영역에서 한국어 집중 과정은 대개 2학년까지 운영되며, 전공 영역에서 목표 숙달도는 최저 4급임을 알 수 있다. 3, 4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 자체가 아닌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전문 학문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교수자의 영역을 넘어서며 대학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 과정의 편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전공 내용 영역은 변이형 제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졸업 자격을 5급으로 제시한 대학의 경우도 3, 4학년에 마련되어 있는 한국어 과목을 통해 한 단계 이상의 등급 상향, 곧 4급에서 5급으로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을 아래와 같은 모델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과정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의 한국어 집중 과정
대상 학년	1~2학년
도달 목표	4급
수업 시수	학기당 90시간 × 4학기, 총 360시간

이제 교육과정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해외 대학용 교육과정 변이형 개발의 현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이형을 ①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②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③ 교육 내용의 범주와 내용 상세화로 나누어 제안하고 이어 ④ 변이형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한국어교육 목적을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차별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5급부터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4급을 해외 대학 교육과정 변이형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4급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합성 판정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³⁾ 총괄 목표의 기술을 위와 같이 직업 관련 기본 업무, 주제, 문어와 구어 및 격식과 비격식의 구분, 문화의 4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2.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최종 숙달도 목표를 4급으로 하는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이형은 1, 2학년 총 4학기 360시간의 교육 시간을 제한하되 아래와 같은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1급	2급	3급	4급
1학기(90시간)	2학기(90시간)	3학기(90시간)	4학기(90시간)

3) 해외 대학 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4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데 대해 62%가 '적절하다', 15%가 '그렇다'로 대답함으로써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다(23%)'고 생각하는 이유로 '수업 시간을 4학기 36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은 4급의 총괄 목표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만일 1급부터 1학년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중고등학교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태국어 그 예이다(홍혜련, 2015).⁴⁾ 이때 대학 1학년 학습자들은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경우, 중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한국어를 배운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⁵⁾ 따라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으나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경우를 최저점으로 삼아 아래와 같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급	3급		4급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3.3. 교육 내용 범주와 내용 상세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내용 범주로서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모든 범주는 유기적으로 구성되며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과 요구, 흥미와 관심, 곧 학습자 변인에 적합하게 선택 및 배열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와 ‘해외 대학용 교육과정 변이형 개발의 현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설문 조사’의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해

4) 2015년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는 51개교에 달한다(홍혜련, 2015:64).

5)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변이형의 경우, 2급을 목표 도달 등급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때 2급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중학교에서는 2급의 50%까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2급의 75%까지를 목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제와 기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⁶⁾

주제	여가와 오락, 기후 → 쇼핑, 대인 관계, 공공 서비스 → 개인 신상 → 주거와 환경, 일상생활 → 식음료, 건강, 여행, 교통 → 교육
기능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 태도 표현하기 → 감정 표현하기

먼저 ‘여가와 오락’ 가운데 하위 항목인 ‘대중문화’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 및 이번 설문 조사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나타났다. 중급 단계의 주제 항목으로서 한국인의 비즈니스 문화나 직장 예절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도 특징적이었다.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는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능으로써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의 거시적인 학년별 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문법 교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한국어 지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1, 2학년의 경우 ‘한국어학개론’과 같은 문법 교과를 한국어 기능 교과와 함께 가르치는 방안이 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졸업 기준으로 정해 두고 있으므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의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학개론’을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과 연계시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의 선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요 관심 주제인 한국의 대중문화 및 한국 문화 능력 함양에 대한 보다 현지화된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⁷⁾ 저학년

6) ‘로 나열된 영역은 동일한 적합성 점수로 집계된 경우이다.

7)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은 강민규·윤여탁

에서의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문화(異文化)능력 배양과 같은 보다 난도 높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3, 4학년의 경우, 전문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결되는 한국어 기능 과목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비서 한국어’ 등 취업에 필요하거나 취업 시 요구되는 실용 한국어 과목이 제안될 수 있다.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학습자들의 수적 증가를 본다면 한국어 교수법 과목 개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통번역 희망 학생을 위한 한국 이해 과목 개설 및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1, 2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3, 4학년 과정과 달리, 다소 가볍고 일상적인 주제를 거시적인 범주로 다루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의 미시적인 주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어려운 정치, 사상, 철학 등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 응답 내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과 과제’ 면에서는 학문이 목적인 학습자들에게 ‘정보 요청하기와 전달하기’ 및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에 대한 대학 과정 학습자와 교수자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 2학년 단계부터 이러한 기능과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

이 부분에서는 해외 대학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으로 ‘3급’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1급과 2급의 경우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과의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 어려우며, 최종 목표인 4급의 경우는 현지 사정에 따라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기관 별로 이질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2), 김훈태(2013), 이일수·주진오(2015), 김효신(2016), 김선아(2017), 김중섭·최은정(201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해외 대학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어 학습 목적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1위)’, ‘한국 및 한국 회사에의 취업 및 통번역, 여행 가이드 등의 취업(2위)’, ‘유학 등 한국 대학원 진학(3위)’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한국 대중문화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히 높은 대학교 1, 2학년 과정의 학습자’를 가정하고 3급의 주제 및 기능/과제를 선별하고 구안하고자 한다. 먼저 3급의 총괄 목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의 ‘주제’ 중 설문 조사 결과 적합성 판정 점수가 높았던 것은, ‘기후,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 일상생활(학교생활), 주거와 환경, 공공 서비스’이다. 그중에서도 ‘학교생활’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3급 주제로 중고등학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실제적인 주제이며 학습자 요구 분석에서도 1위 필요군 주제로 분류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여가와 오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대중문화’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 주는 공통된 주제이며 세부 주제 ‘영화, 공연’이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역시 3급의 주제로 분류되어도 무리가 없다. ‘쇼핑’은 주제 등급화에서 1급부터 4급에 걸쳐 있되 중점 등급은 2급이지만 설문 조사에서 교수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어 3급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대인 관계’의 경우 ‘편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 곧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모임’의 중점 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어

3급 기술에 매우 적합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대학 교육 과정 변이형 3급의 주제로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하위 주제 항목을 제안한다.⁸⁾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 일상생활(학교생활)

한편 ‘기능’의 경우,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써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에서 맥락과 상황을 설정하고 언어 자료와 활동을 상세화하는 동인이 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3급 기능 중 이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에서는 이 가운데 해외 대학 변이형 기능의 예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를 선정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 요구 조사에서도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세부 하위 기능에 관계없이 필요 1, 2위군 안에 들어간다는 공통점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어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3급에 해당하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는 다음과 같은 세부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다.

설명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위 기능과 관련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3급 세부 과제

8) 적합도 판정에서 ‘여가와 오락’과 함께 5점 만점을 받은 ‘기후’ 그리고 ‘주거와 환경(4.78)’, ‘공공 서비스(4.98)’의 경우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주제라 판단되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선택 지침 및 이 제안에서 상정한 ‘한국 대중문화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히 높은 대학생 1, 2학년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과제’를 구안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3급 주제로 선별하였던 ‘학교생활,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에 따라 범주별로 제시한다.

주제	과제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다양한 편의 시설과 사용법 알아보고 소개하기 · 교내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신청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학교 근처 맛집을 소개하고 상황별 최고의 맛집 추천해 주기 · 다양한 교내 동아리 알아보고 설명하기 · 인기 있는 교양 명강의 알아보고 소개하기 · 학교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발표하기 · 전공 중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 한국 교환 학생으로 가는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교내 학생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받는 방법 설명하기 · 한국인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메일이나 편지 쓰기 · 학교의 역사를 조사한 후 시대별로 기술하기 · 대학생 기부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학교 기숙사 소개하고 기숙사 특성과 규칙 기술하기 · ‘기숙사 생활 잘하는 법’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결과 발표하기 · 학교 교환 학생 제도 소개하기 · 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는 전략 소개하기 · 효과적인 한국 유학 준비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와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 소개하기 · 학교 축제와 학과 학술제 소개하기 · 자취생을 위한 3분 요리 조리법 기술하기 · 한국 대학생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조사하여 특징 설명하기 · 한국어교육 관련 무료 사이트(예, 누리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누리집)와 이용 방법 소개하기 · 학과 홍보 전단지 만들기 · 학과 교과 과정을 누리집에서 검색한 후, 학년별 교과목을 짜고 함께 확인하기 · 학점 잘 받는 법을 선배에게 물어서 소개하기 · 학과 졸업생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기 · 대학생 때의 소망 목록(버킷리스트) 진술하기 · 자랑 또는 결석한다는 메일이나 편지, 문자 메시지를 한국인 교수님께 보내기 · 우리 학교 특징 묘사하기 · 기숙사 건물과 전공 학과가 위치한 건물 특징 묘사하기 · ‘공강 시간 의미 있게 또는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여가와 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한국 영화 소개하기 · 한국 대중문화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소개하기 · 한국과 자국의 대표적인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비교대조하기 ·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한국 영화와 자국 영화 비교·대조하기 ·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한국의 대중가요와 자국의 대중가요의 가사 비교·대조하기

주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에게 팬레터(fan letter) 써서 보내기 ·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공통된 특징 묘사하기 · 한국의 국민 배우와 자국의 국민 배우 비교·대조하기 · 한국의 국민 가수와 자국의 국민 가수 비교·대조하기
대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받는 선후배 되는 법'을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 '좋은 친구의 요건'을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 '좋은 기숙사 룸메이트(roommate) 되는 법'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대화 방식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타인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란?'이란 주제로 토론하기 · 한국인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카드나 메일 쓰기 · 한국 대학생의 연애관을 조사한 후 자국 대학생과 비교·대조하기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근처의 좋은 가게 소개하기 · 좋은 중고 제품 싸게 사는 방법 설명하기 · 한국에서 반드시 사야 할 쇼핑 목록 조사하여 발표하기 · '인기 있는 부모님 생신 선물 품목'과 '생신 선물 잘 사는 법' 설문 조사 후 발표하기 · '이성 친구 선물 잘 사는 법'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우리 학교 기념품 품목 제안하고 이유 설명하기 · 최근에 산 물건 묘사하기
개인 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 학생 인터뷰 장면에서 자기 소개하기 · 아르바이트 사장님 앞에서 자기 소개하기 · 자신을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고 이유 설명하기 · 자신의 관심 분야 서술하기 ·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팬클럽 회원 신청서에서 자기 소개하기 · 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소개하기 · 자신의 멘토를 인터뷰한 후 멘토에 대해 설명하기

지금까지 기술한 주제, 기능 및 과제를 결합하여 항목을 예시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등급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환 학생 제도를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교환 학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할 수 있다.
3	학습 시간	2차시(1차시/50분)
	주제 항목	학교생활
	기능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학생 제도를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설명하기 · 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를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전략 소개하기 ·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짜고 글로 써 보기

주제와 기능 및 과제가 정해졌다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문법과 어휘 항목을 참고하여 문법과 어휘 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제, 기능, 과제와 함께 해당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목표와 학습자들의 요구라는 변인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예시한 문법과 어휘 항목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과 4급을 참조하였으며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 및 기관의 교육 목표에 따라 유연성 있는 선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구분	어휘	문법
내용	교환 학생 선발 시기, 교환 학생 면접, 교환 학생 기간, 교환 학생 지원 자격, 지원 가능 전공, 학교 지원 내용(장학금 또는 생활비 등), 학점 이수 규정 관련 어휘	학교의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요청과 정보 전달에 필요한 문법
예	교육과정, 국가, 등록, 등록금, 면접, 보험, 생활비, 신청서, 장학금, 재학, 평가, 휴학(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 강의, 교류, 귀국, 연령, 요구, 원서, 자격증, 최종, 책임자, 추가, 취업, 학비, 합격자, 허가, 허용(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급)	-던데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기 위해서(교환 학생 자격이나 교환 학생 지원 목표에 대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에 대한/에 대하여(교환 학생 제도에 대해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면 좋겠다(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를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는 전략 소개하기) -아아겠/어아겠/여아겠(교환 학생이 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짜고 글로 써 보기)(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 -더라고/더라고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에 따르면, -에 의하면(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대(요), -래(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급)

4. 결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위계와 범주를 제시하는 가장 표준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능한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척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대학이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환경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교육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란숙(2015),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어교육과정 사례로 본 유럽 한국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 2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5쪽.
- 강민규, 윤여탁(2012), “한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35~56쪽.
- 강주연(2016), “북미 대학 한국학 전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현숙(2016),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아(2017), “홍콩 내 주요대학의 한국어문화교육 현황과 사례”, 《이화어문논집》 42, 이화어문학회, 5~32쪽.
- 김중섭 외(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 최은정(2017), “한국 대중문화 노출이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한글》 318, 한글학회, 199~219쪽.
- 김지원(2014), “미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의 역사성”,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32,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71~196쪽.
- 김지형(2015), “한국학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성-권역별 국외 대학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275쪽.
- 김효신(2016), “문화 간 의사소통 문제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 85, 한국사상문화학회, 505~532쪽.
- 김훈태(2013),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55쪽.
- 박진완(2015), “일본내 한국어전공의 교육과정 비교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0~372쪽.

- 송경옥(2017), “카타르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아라(2014),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의 현황 및 전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제훈(2015), “런던대학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쟁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1~111쪽.
- 오고시 나오키(2015),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5쪽~330쪽.
- 왕청동(2015),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전망”, 《한국어교육》 26-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3~163쪽.
- 응웬티리(2017),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선(2015),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헝가리 ELTE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일수, 주진오(2015), “드라마 활용을 통한 한국어교육콘텐츠 개선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4, 한국콘텐츠학회, 45~55쪽.
- 정현숙(2016),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구보학보》 14, 구보학회, 251~283쪽.
- 조태린(2013), “국의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프랑스 주요 대학”, 《동방학지》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9~259쪽.
- 쩨티란아잉(2015),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하노이국립외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1~359쪽.
- 추애방(2017), “중국 대학 학부 과정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종합한국어의 교육 내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혜련(2015), “태국의 한국어교육현황과 발전방안”, 《국제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63~85쪽.
- Edirisuriya(2016), “스리랑카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글쓰기 지식 소매상

- 유시민 작가



유시민(작가)

질문자 이상혁(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때 2018. 5. 2.(수) 곳 파주 자유인의 서재

파주 자유인의 서재로 유시민 작가를 찾아갔다. 적지 않은 봄비가 추적 추적 내리던 5월 어느 날, 그와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끈질긴 인터뷰 요청을 결국 허락해 준 유시민 작가. 이 시대의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고 대중적 글쓰기를 전업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서 정치인이 아닌, 작가 유시민의 내면을 훑어보았다. 역시 그는 달변가였고, 그의 삶은 긍정적이었다. 한국어로 글을 쓴다는 의미와 글쓰기 철학에 대한 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즐겁고 유익한 두 시간이었다.

이상혁 안녕하세요? 유시민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사이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인 근황은 어떠신지요?
 유시민 ‘썰전’ 녹화 때문에 월요일만 서울에 가고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작업실에 있어요. 나머지 방송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자유인의 서재에서 혼자 보내지요. 재작년부터 강연은 안 합니다. 이제 문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죠. 개인 사업자입니다(웃음).

이상혁 먼저 선생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의 기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시절은 선생님께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시민 이승만 정부 시절은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박정희 군사 독재 시대에 우리는 국민 교육 현장 세대였지요. 국민 교육 현장을 무조건 외우고 이상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반공 글짓기 대회나 웅변대회에 쫓아다니던 반공의 시대로 요약되기도 하죠. 10월 유신 이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련이라는 군사 훈련을 받았죠. 학생들이 예비 군인처럼 지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지성이 모두 이러한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주체적인 사유 능력이 살아 있는 한 이상한 교육을 받아도 그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국가가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견 아닌 거 같다는 생각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저의 바람이 기억 저편에 남아 있었어요.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중고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역사 교사를 역임하신 걸로 아는데요.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유시민 독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6남매에게 책을 많이 읽히려고 학교에 사서 교사를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끝없이 책을 가져 오셔서 집에 책은 많았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말고는 그때 놀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집에 굴러다니는 책을 주로 보게 되었지요. 어린이 신문과 월간 잡지를 구독할 수 있어서 문자 텍스트

트를 접할 기회가 적지는 않았어요. 초등학생 시절에는 누나들이 읽던 《톰 소여의 모험》, 《빨강머리 앤》, 《소공녀》 이런 거 읽으면서 주인공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모습 때문에 아주 분개했던 기억도 나네요(웃음). 중학교 때는 주로 루팡 시리즈를 비롯한 추리 소설을 죄다 읽었어요. 무협지도 좀 봤지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그런 책들은 끊고 가끔 공부가 안 될 때 《죄와 벌》, 《좁은 문》, 《주홍 글씨》, 《여자의 일생》 등 이른바 명작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모파상 단편집》, 《체호프 단편집》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었어요.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회 대학에 입학하셔서 경제학을 전공 하셨네요? 왜 경제학이었습니까?

유시민 원래는 법대를 가려 했어요. 그런데 유신 체제일 때라 군부 독재 정권에서 판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나 박정희 밑에서 판사 못 하겠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다른 과를 가기로 정하고 경제학과를 선택한 거예요. 당시에 경제학도가 합격선이 더 높았고 취직도 엄청 잘될 때였거든요. 부모님께 말하기 좋잖아요? 그때는 세간에서 경제학과라고 안 부르고 '상대'라고도 했어요. '서울 상대' 이라면 또 좀 괜찮잖아요? 법대는 가기 싫고 다른 사회대 전공은 마음에 안 들고 집에 설명은 해야겠고……. 그래서 제일 말하기 좋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그만 가게 되었지요. 경제학 관련 에세이도 출간했지만, 사실 저는 경제학에 재능이 없어요. 지금이라면 사회학이나 인류학을, 인문 대의 역사학이나 언어학을 선택할 겁니다.

이상혁 선생님의 대학 4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말이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없으셨나요?

유시민 제가 당시에 대학은 3학년, 그러니까 1980년 5월까지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을 공개적으로 써 본 적도 없었지요. 그 5월에 대학생 병역 훈련 거부 선언문이 아마 제가 처음 써서 공개한 글인가 싶네요. 당시 제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총학생회 주위에서 아무도 그 선언문을 안 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도서관에 가서 프랑스 인권 선언 등의 자료도 찾아보면서 며칠 고민한 후 이상한 선언문 한 쪽을 썼어요. 그것이 발표하기 위해 처음으로 써 본 글이었어요.

이상혁 저는 선생님의 <항소 이유서>가 공개적으로 처음 쓴 글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나요?

유시민 모르겠어요. 어디 있겠지요? 민주화 운동 기념관 같은 곳에 있을까요?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스스로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유시민 1980년 5.18 직후 5월 하순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진술서를 쓰는 동안에는 수사관들이 안 때려요. 그러니까 되도록 진술서를 오래 써야 돼요. 그런데 계엄사 수사관들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한 내용을 쓰면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쓸데없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실들을 상세하고 길게 썼어요. 예컨대 시위 장면에 대한 묘사 같은 것은 길게 쓰는 거예요. 현수막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시위 행렬은 얼마나 길었으며 시위의 대오는 어떠한고 등등……. 그걸 쓰는 시간만큼은 털 맞으니깐 편지지처럼 생긴 종이에 하루에 100장의 진술서도 쓴 적이 있어요. 정말 팔이 아프게 썼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쓴 것을 본 수사관이 ‘잘 썼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 동료나 부하에게 읽어주더라고요. 정말 기억력도 비상한 놈이고 서울대 놈이라 그런지 글도 잘 쓴다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봐도 별 내용도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좀 쓰나 보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상혁 우문입니다만, 글쓰기는 선천적인 언어 능력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의 산물일까요?

유시민 둘 다입니다. 노래 잘하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원래 유전적으로 문자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이 어린 시절에 일찍 발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장기에 뇌의 시냅스 구조가 형성된다고 봐요. 물론 많은 외적인 자극과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어린 시절은 언어 능력 향상에 아주 중요한 시기지요. 제가 학교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문자 텍스트가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 그것을 촉진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혁 1980년대 후반에는 문단에 등단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신 셈인가요?

유시민 네. 소설도 한 편 썼습니다. <달>이라는 창비 신인 추천 작품이었어요. 지금 보면 좀 수준이 낮은 소설입니다. 그 뒤로 제가 소설을 안 써서 좀 민망합니다. 5.18 때 제적된 후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지 한 달 만에 또 잡혀 갔어요. 구속에 이어 징역 1년 6개월 받고 <항소 이유서>라는 걸 그때 썼어요. 그것 때문에 항소심 판사가 6개월을 감형해 줘서 1년 만에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니까 선배들이 주로 성명서, 조사 보고서 따위의 글 쓰는 일을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6월 항쟁까지 약 2년 동안 단련된 글쓰기는 한 셈이지요. 그런데 6월 항쟁 후에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다가 또 경찰에 수배가 되었어요. 그때 독산동 자취방을 빠져 이사한 후 은평구 달동네에 숨어 있었거든요. 겨울에서 봄까지 할 일도 없고 해서 한 편 써 본 게 유일한 이 단편 소설입니다.

틈틈이 써 놓았던 글을 좀 손봐 《거꾸로 읽는 세계사》 원고도 그 겨울에 탄생했지요. 그때부터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웃음).

이상혁 생업을 위해서 방송 드라마 대본을 쓰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시민 방송국에 제가 아는 피디 선생님께서 제 글쓰기 능력을 아셨는지 돈 좀 되는 거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잠깐 했어요. 원작 소설의 멜로드라마 8부작을 각색하는 작업이었어요. 제 이름을 안 쓰고 가명을 사용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좀 비싼 ‘알바’를 한 셈이죠.

이상혁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청춘의 독서》, 《표현의 기술》, 《유시민의 논술 특강》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와 독서 관련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책들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유시민 제가 정치할 때 후원을 많이 했던 분들,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의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글쓰기 강연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몇 개 도시를 돌며 후원자들의 홍보 도움으로 강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없애기는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논술 특강》을 따로 부록처럼 낸 것은 글의 성격이 달라서 글쓰기 특강에는 넣기가 어려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부록 형태로 《논술 특강》을 출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쓰기 상담소를 운영했는데 상담을 받아서 답변을 올려다 주다가 그것도 그냥 없애기에는 아깝다고 해서 책으로 만들었지요.

이상혁 《글쓰기 특강》을 보면 ‘영업 비밀’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쓰기의 비결을 언급하시고 계신데요. 선생님만의 글쓰기 노하우 한두 개를 말씀해 주세요.

유시민 제일 결정적인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소리를 내서 읽었을 때 발

음하기 쉽고 귀로 듣기에도 나쁘지 않고 뜻이 잘 전달되는 글은 잘 쓴 글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인쇄술의 발달, 미디어의 보급이 지식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큼니다. 그런데 지식 대중화와 보통 교육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랜 기간 일부 계층이 문자를 독점하고 향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텍스트를 생산하는 기준, 예컨대 문자 텍스트의 미학적 기준과 관념이 소수의 특권 계층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았고 권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지식 계급의 글은 말에서 멀어졌어요.

이상혁 ‘말처럼 글을 쓰라’ 그런 뜻인가요?

유시민 이른바 문어체는 눈으로 읽으면 괜찮은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문어체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글이 다 그렇게 가 버리니까 이걸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대중화, 정보 대중화, 쌍방향 미디어 시대에는 글도 말처럼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말이 근본이에요. 글은 말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경험적으로 배운 겁니다.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오덕 선생님의 주장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음성 지원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입으로 발음하기 어려우면 눈으로 읽어도 불편해요. 발음이나 소리 중심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으로 글을 쓰면 눈으로 읽을 때도 잘 안 읽혀요.

이상혁 이러한 글쓰기 철학에 영감을 주신 분이 계신지요?

유시민 언어의 근본은 말이고 언어의 존재 이유는 소통에 있어요. 이 원리를 저 자신에게 알려 주신 분은 이오덕 선생님이셨어요. <항소 이유서>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초판을 다시 보니 제 글이 너무 형편없어서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이오덕 선생님을 직접 뵈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오덕 선생님의 책을 통해

잘못된 제 글쓰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결국 제 글쓰기의 큰 스승은 이오덕 선생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혁 평소 글 쓰는 습관은 개인적인 습관은 있으신가요?

유시민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다만 제 초고는 아주 형편없어요. 저는 그것을 '초초고'라고 불러요. 그것을 한참 손봐야 초고가 돼요. 이 '초초고'는 출판사 편집자들에게 줄 수 없는 원고예요. 사실 제가 생각은 빠르는데 손이 느려요. 제가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공병우식 타자기로 배운 저는 그냥 손가락 4개 정도로 타이핑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타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각과 손의 움직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제 생각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바로 구성하지 못해요. 중복과 비약도 많아서 생각을 어설픈 문장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그걸 손봐서 초고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초고를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문장을 정교하게 쓰시는 분들과는 달라요. 쓰다가 막히면 잠시 중단하고 고민하면서 한 단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글쓰기 습관이 제 초고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 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 글쓰기는 메시지 중심으로 지나가는 생각을 빨리 붙잡아 두는 데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습관이 있는 셈이지요.

이상혁 문체나 문장의 유려함 차원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나 작품이 있으신지요?

유시민 번역된 것인지만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문장을 참 좋아해요. 원문의 분위기가 살아 있어요. 원문을 대조하지 않아도 이 원문이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잘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밀의 문장은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주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논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게 정교해요. 얼핏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교한 논리 구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최고의 문장이지요. 국내 작가로는 작고하신 리영희 선생님의 글을 좋아해요. ‘시사,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글을 주로 쓰셨지요. 그런데 그분의 글은 문학의 향기가 많이 나요. 《전환시대의 논리》가 대표적이고 자서전 《역정》은 더욱 그렇지요. 제가 그만큼은 못 쓰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이예요.

이상혁 문학 작가 중에서 한 분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유시민 박경리 선생님이시지요. 《토지》와 같은 작품은 제가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휘나 표현이 아주 풍부해요. 글이 고와요. 《토지》는 고운 우리글이고 우리말이에요. 곱고 예쁜 표현과 정교한 문장들로 가득차 있는 작품입니다. 어휘력을 기르고 멋진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글쓰기에서는 어휘가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토지》를 반복해서 읽으라고 많이 권했지요.

이상혁 글쓰기는 부와 권력을 얻는 길이기도 하며 단련된 글쓰기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그게 없다면 돼지의 삶과 무엇이 달라요? 표현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이루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언어야말로 호모 사피엔스를 다른 종과 구별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 종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우리 종의 본성을 이루는 작업이고 나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 성공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직업으로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업무 효율성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론적으로 무엇을 지향한다는 것 이전에 저에게는 글쓰기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이상혁 선생님은 언젠가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 입니까?

유시민 저는 지식 소매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한 작업이 요약(다이제스트)을 하는 일이었어요. 지식 소매상으로서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도 거의 대부분 요약이지요. 그런데 지식 생산자가 되려면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해요. 특히 다양한 세계어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정보 습득, 그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저는 청년기에 제가 그런 도구를 익힐 기회를 못 가져서 지식 생산자는 안 됩니다. 생산 능력은 안 되지만 유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식 소매상을 자처했지요. 사람들이 널리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편집하고 해석해서 가공하는 작업을 통해 남의 생각과 감정을 소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혁 선생님의 저서가 10권이 넘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유시민 애착이 가는 책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 많이 반영된 책입니다. 그게 비교적 많이 들어간 책이 《청춘의 독서》예요.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판매량은 부진한 책인데 제 자신,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비교적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이상혁 결론적으로 선생님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유시민 저한테 글쓰기는 사회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할 자격을 저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 살아가려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글쓰기는

제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나도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갈 존재의 근거를 글쓰기가 제공해주지 않았나 싶네요.

이상혁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입장에서 사전이란 무엇일까요?

유시민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사전을 거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정보의 입출력이 원활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어휘가 잘 들어오고 내가 출력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금방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래시계가 자꾸 뜨는 거예요. 버퍼링이 심해졌지요(웃음). 이제 뇌의 시냅스 연결이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게 돼요. 머리에서 바로 단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전은 웹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요. 편리하죠. 우리말 사전을 주로 이용할 때는 유의어 찾기가 저에겐 아주 도움이 돼요. 용례들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은 아주 어려울 때나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국어사전이 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해 줘요. 이 단어 말고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들을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전을 이용합니다.

이상혁 국립국어원에는 ‘우리말샘’이라는 이름의 개방형 한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개방형 한국어 사전도 온라인 기반 시대에 의미가 있으니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고 누가 의도적으로 왜곡과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권위를 가진, 그 자체의 능력과 진실성이 담보된 그런 개방형 한국어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국가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럴 경우에 일반인이 적극

참여하는 건 반대입니다. 민간의 의견을 따로 낼 수 있게 해 주는 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의견을 받아서 검증하고 반영하는 건 전문가 영역입니다. 개방형 한국어 사전의 생명도 신뢰성에 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의견은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작업은 국가가 보증하는 지성 집단의 후처리가 필수적이지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민간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상혁 개방형 백과사전에 대한 선생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유시민 지금 백과사전이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의 제일 큰 문제는 정보의 진실성과 정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작업이 이른바 집단 지성으로 추진되는 것은 좋다고 봐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인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저는 독일어와 영어 위키사전을 종종 보는데요. 우리 것과 수준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정보의 내용이나 정확성, 그것을 문장으로 가공하는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독일하고 국내 총생산(GDP)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집단 지성의 수준의 차이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영어는 사용 기반이 전 세계이니까 영어는 뭐 말할 나위도 없지요.

이상혁 외래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저는 민족주의적인 언어관을 갖고 있진 않아요. 다른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언어는 서로 접촉하고 충돌하고 진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 우리 언어' 이런 것에 대해 저는 가치를 크게 부여하진 않아요. 언어는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의 말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 다음에 몽골이 침략해 들어와서 한동안 지배했을 때 몽골 말이 많이 유입되었겠지요.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들어와서 일본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요, 중국 말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지요. 특히

우리는 한자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국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근대에 들어와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일본말의 유입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복 이후 미군정을 겪은 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영어가 우리 사회에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외래적인 요소와 교섭과 접촉, 충돌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말에 외국어와는 다른 '고갱이는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곤란하겠지만, 민족주의적 언어관을 가지고 있질 않아서 그런지 저는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일이 크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진 않아요. 한자 말이나 서구 외래어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휘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추상적인 관념, 아이디어, 물건, 사물, 기술 관련 용어들이 들어오니까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운 것은 외래어라도 수용해서 우리말로 만들어야지요. 그런 과정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 이상혁 그렇다면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는 건 불필요한 일인가요?
- 유시민 저는 우리말과 어울리는 글을 쓰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글이 말에서 너무 떨어진 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보그체'는 토와 어미만 우리말이지 그건 우리말·글이 아니에요. 어려운 중국 한자어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문제지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고 그 말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으면 그것이 더 좋지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말이 생기거든요. 예전에 '갓갈을 노견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일본 말이거든요. '노견'에서 그걸 우리말로 풀어낸 '길어깨'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것만 못했어요. 나중에 시행착오

끝에 ‘갯길’로 정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갯길’이라고 하면 뜻이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말다운 우리말, 곱고 예쁜 우리말이 탄생할 수 있어요. 제이시(JC)에서 ‘교차로’, 인터체인지에서 ‘나들목’으로 정착되는 걸 보면 이 역시도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된 좋은 예라고 봅니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된 우리말 형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외래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말의 본령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립국어원이 그거 하는 데 아납니까?(웃음) 다만 그걸 ‘순화’라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순화라는 것은 순수한 것과 오염된 것을 전제한 말인데 완전히 순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어는 어차피 다 섞인 거 아닌가요?

이상혁 작가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관광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공공 언어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공 언어에 대한 작가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시민 오죽헌 사례를 보면 오죽헌 관리 사무소의 책임이 아니에요. 문화재청의 책임이지요. 문화재청이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안내문은 건의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의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문화재청 안내문을 심의하는 구성원들의 언어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사상적으로 보면 마치 우월한 정보력을 과시하는 듯하지만, 쓸데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한자 말 등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수십 년째 변하지 않은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 주는 안내문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마찰이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우리말에 대한 보편적 특성과 개성, 미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상혁 영어 등의 외국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유시민 조금 다른 말이지만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과연 잘할까요? 자기 모국어에 기대어서 외국어가 자라는 겁니다. 뇌 과학자 연구 결과도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국어가 먼저 서고 하나의 언어가 중심을 잡고 연결 부위에 외국어를 다루는 영역이 생겨서 그 통로가 넓으면 외국어를 잘한대요. 자기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야 외국어도 정확히 구사해요. 물론 영어 사용권에서 태어나서 그 언어에 직관이 생긴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겠지요. 이중 언어의 능력은 아주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구현되는 것이지요. 두 개 언어를 배운다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혁 한국어와 외국어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시민 한국어 문장이 요령부득이면 어떤 외국어도 깔끔하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외국어를 쓰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독일인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면 제가 유창하게 독일어를 못해요. 그들이 다 잘 알아들어요.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제가 독일어를 잘할 필요는 없었어요. 물론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잘하면 더 좋지만,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해했어요. 소통이 된 거거든요. 문제는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관건이지요. 따라서 모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혁 유학 경험이 있으셔서 독일어도 잘 하시지요?

유시민 제 자랑 한번 해야겠네요. 97년 무렵에 제가 독일어 석사 논문을

널 때는 주제를 정하고 3~4개월 안에 논문을 제출해야 했어요. 지도 교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그렇게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석사 학위 논문은 창조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합의한 주제를 가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으고 그 정보를 독해하고 가공하고 해석하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요령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박사 논문은 창의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제가 논문을 다 쓰고 나서 공부 잘하는 제 독일 친구에게 일주일 정도 교정 좀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발견한 문법 오류 두 개 말고는 별로 해 줄 말이 없대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자신의 문장과 저의 문장이 완전 달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 논문은 신문 기자의 글쓰기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한겨레신문 통신원을 할 때인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우리말로 글을 쓰듯이 독일어로 논문을 쓴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문장을 빼고는 제가 주로 단문 위주로 글을 썼어요. 논문의 분량도 한 70쪽밖에 안 되는 짧은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 학기 졸업생 중에서 복수의 평가 교수가 다 만점을 준 경우는 저밖에 없었어요. 만점 받은 이유를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평가서를 받아 보고 알았어요. 신청을 하면 그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최신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잘 모았고, 그것을 주제에 맞게 잘 해석하고 활용했으며 이해하기 쉽게 논문을 작성했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논문도 알아듣기 쉬우면 되는 거예요. 제 자랑질입니다(웃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어 문장이 요령부득이면 어떤 외국어도 깔끔하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외국어를 쓰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이상혁 선생님께 한국어와 한글은 어떤 존재일까요?

유시민 호모 사피엔스는 누구에게나 모국어와 있고 전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한국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특별하지요. 한글은 축복이고 세종대왕이 주신 우리 삶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는 주장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왕인 것은 확실해요. 제가 본 역사에서 왕이 우매한 민중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그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살기 바란다는 취지의 서문을 남기고 문자를 창제한 분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세종대왕 말고 들어본 바가 없어요. 민중을 위해서 쉬운 문자를 만들어 준 그거 하나만으로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세종대왕이 그와 같은 문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고맙습니다.’를 항상 외칩니다. 제가 그 글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중을 위해서 이렇게 한나절이면 익힐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하셨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세종대왕은 시간 여행자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봐요. 결국 지금의 8천만 정도의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정말 엄청난 행운과 축복을 주신 거지요. 비록 장영실에게 곤장을 때려서 내쫓았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중에 있긴 했지만요(웃음).

이상혁 작가로서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작품은 있으신지요?

유시민 작품이라는 말은 좀 낮간지럽고 민망하고요. 이제 곧 6월에 책이 나올 예정인데 《역사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하면 《History of Writing History》로 역사 서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역사 서술의 역사로 제목을 붙이면 치렁치렁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역사》로 줄였는데 이럴 땐 영어로 표기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역사도 역사가 있거든요 역사의 발생사를 추적하는 작업인데, 정작 역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재미 삼아 공부를 해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출간하는 교양서입니다. 공부도 부족하고 나이도 먹고 해서 지적인 긴장도가 높은 글을 쓰는 것은 이제 한계가 온 거 같아요. 야구선수로 치면 속구의 구속이 저하된 거지요. 이젠 제 글쓰기도 변화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지요. 변화구 구사도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코치로 가야 하잖아요(웃음). 제가 이전에도 지적 긴장도가 아주 높은 글은 못 썼지만 《국가란 무엇인가》와 근간 《역사의 역사》와 같은 이런 글들은 이제 쓰기 힘들어요.

이상혁 그럼 조금 가벼운 글쓰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유시민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 에세이를 써 볼까 고민 중이에요. 힘이 좀 덜 들 것 같아서요. 여행을 제가 많이 다닐 수는 없지요. 보통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일주일 동안에 몇 군데씩 보잖아요. 그것보다는 약간 심화된 수준의 자유 여행을 하면서 3박 4일 정도 한 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안내서를 계획 중입니다.

이상혁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학생, 시민,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쓰기 관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텍스트로 이루어진 책, 문자 텍스트와 함께 보세요. 문자 텍스트와 친하게 지내게. 심심할 때 글을 읽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출발선에 서지 못한 채 달리기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 달릴 수 없어요. 문자 텍스트와 더불어 놀자. 그것이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의 육체

- 방언의 문학적 효용에 대한 단상

우한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

1. 필자의 자기소개

이런 일이 떠오른다. 누구네 상고가 있어 문상을 갔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너, 우한용이지?” 하면서 손을 내미는 동년배 친구가 있었다. 나는 건성으로 “오랜만이야, 반갑네…” 하면서 얼버무렸다. 얼굴은 어렵 뜻이 윤곽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상대방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너는 나 잘 모르지?” 그렇게 들이대는 것이었다. 면구스럽고 겸연쩍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친구는 나에게 한 마디를 더 없었다. “그래, 너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지.” 그 말 뒤에는 자기는 말썽꾸러기였고, 공부는 별로였다는 그런 자조 섞인 감정이 묻어났다. 자주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 친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중에, 친구는 자기 이름을 밝히는 대신 “술이나 한잔 해.” 하면서 소주잔을 내밀었다. 답답한 일이었다. 소주 맛은 썼다.

그 장면에서 이청준 소설에 나오는 전깃불 모티프를 떠올리며 잔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작자가 내 얼굴에 전깃불을 비쳐 나는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지를 들고 있는 상대방의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나는 겁에 질리고 주눅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책으로 읽는 많은 글들은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때 책은 대개 ‘얼굴 없는 목소리’가 된다. 그래서 저자 혹은 필자는 현저(顯著)하게 드러나는 저자(著者)가 되고, 독자는 위상이 쭈그러드는 저자(低者)가 된다. 누구나 알듯이 저자를 영어로 author라고 한다. 저자가 지닌 현저함을 우리는 권위라고 한다. 영어의 권위를 뜻하는 author(ity)는 글자 그대로 본다면 ‘저자다움’이다.

‘저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이자’ 또한 속이 편하다. 속이 편해야 말을 터놓고 하고 들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와 연관된 행적을 알아야 친밀해지고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2.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

이 글에서는 방언이 문학의 언어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 당신은, 이 글과 연관되는 어떤 체험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구사하는 언어는 어떤 상황인가 의당 궁금해질 것이다. 나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당신들한테는 방언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실감이 적다.

요약적으로 핵심부터 말하기로 한다. ‘나는 표준어 교육의 피해자다.’ 표준어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결과이다. 교육을 너무 잘 받았다는 것은 별다른 비판 없이 말 잘 듣는 범생이로 살았다는 뜻도 된다. 그런 피해자도 있나? 정황을 잠시 이야기하기로 한다.

내가 초등학교(아래아 한글에서 ‘국민학교’를 입력하면 초등학교로 금방 바뀌 놓는다.)에 입학한 것은 1955년 3월이다. 휴전이 되고 3년째 들어가는 해였다. 나의 표준어 교육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표준어는 옳고 사투리

(방언)는 그르다는 식으로 배웠다. 국민으로서 이 나라 표준어를 모르면 교양 없는 인간이 된다는 우격다짐으로 공부했다. 내 고향은 충청남도 아산인데, 당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짚은 충청도 사투리를 썼다. 내가 표준어 교육을 잘 받아 표준어로 말하게 되면서 어른들이 하나같이 명칭하고 바보 같은 헛바지들로 부각되었다. 그런 인식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배우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대학에서는 골라서 간 데가 사범 대학이라, 표준어를 국어 교사의 자질이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표준어를 가르치면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표준어를 내 언어로 만들기에 헌신했다. 표준어에 대한 헌신은 30년 넘도록 지속되었다. 나는 표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국어 선생이 되었다. 충청도 물이 싹 빠진 것이었다.

표준어가 미신으로 둔갑하기 시작한 것은 소설가로 등단한 이후이다. 소설가로 등단할 당시 나는 전북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짚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동료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한 표준어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하기도 했다. 소설의 대화를 전라도말로 쓰자 해도 자신이 없었다. 충청도 말도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사 학위 논문에서는 채만식 소설의 언어 특징을 다루었는데, 사투리(방언)가 얼마나 적실한 삶의 현장을 보여 주는가 하는 점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언어의 육체는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방언)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다. 아니, 언어 자체가 육체를 지닌 존재란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3. 문학의 영토와 언어

우리는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갈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정작 문학이 무엇인지를 따지자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좁게는 예술성을 지닌 언어 작품을 문학이라 하자는 제안이 있다. 그러면 금방 누군가 민감한 사람이 ‘예술이 뭘데?’ 하고 대들기 십상이다. 장르를 들이대면서 시, 소설, 희곡 등에 해당하는 작품을 문학이라고 하자는 대안도 제기된다. 그러면 ‘수필은 왜 문학이 아닌가?’ 하고 달려드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범위에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문학이라고 하자는 무대책의 규정이 나오기도 한다.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갈라보기 어렵다고 해도 문학이 언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그걸 사실로 인정하면, 문학에서 운용하는 언어와 문학 아닌 영역에서 운용하는 언어는 어떻게 다른가 따지게 된다. 문학의 독립 선언을 위해서는 문학의 ‘언어적 독자성’이 드러나야 한다.

문학의 독자성을 드러내기 위해 시(詩)를 앞세우는 이들이 있다. 시의 언어를 문학 언어의 전범으로 상정하고 시의 언어가 구체성, 모호성, 상징성 등을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상 언어를 뒤틀어서 ‘낯설게’ 운용하는 게 문학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문학을 언어의 조직물로 보는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르라는 게 있어서 시의 언어와 소설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가 묻게 된다. 또한 희곡(드라마)은 언어 운용 방법이 소설과 어떻게 다른가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장르라는 게 그렇게 선명하게 문학의 영역을 갈라 주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산문시’가 있고, ‘서정 소설’을 내세우는 논자도 있다. 아무튼, 문학의 장르는 고정성보다 가변성이 더 큰 개념이다.

그러다 보면 인생을 실감나게 그려 보여 주는 언어 작품을 문학이라고 해야 한다는 어리벉벉한 주장에 이르게 된다. 다시 그 실감이라는 게 무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그 실감을 텍스트의 자질로 규정하고 ‘형상화란 용어를 동원한다. 언어적 형상화에 어느 정도 이른 작품을 문학의 영역에 이끌어 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면 다시 형상화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따라 나온다.

좀 급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형상화란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인간이 이루어 내는 행위가 인간의 감수성과 이성에 들어맞도록 언어적 처리를 한 것으로 규정된다. 구체적 시공간은 작중 인물이나 시적 자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뜻한다. 아울러 독자 혹은 수용자가 독서 과정에서 그려 내는 시공간을 뜻하기도 한다. 이 시공간은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로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이 구체적인 이미지는 언어가 사물성을 지향하는 특성에 연관된다는 것이 J.P. 사르트르의 설명이다.¹⁾

언어는 본래 의미 소통을 위한 도구인 기호이다. 기호는 넓은 의미의 사물을 대신해 준다. 이때의 사물은 책상, 전등, 사과, 봉숭아 같은 사물은 물론 영웅 등 관념적 형상까지를 포함한다. 사물 ‘사과’는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며 향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기호 ‘사과, 苹果, apple, la pomme’는 먹을 수 없다. 기호는 사물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어적 기호를 이용해 사물 이미지를 환기하는 일을 형상화라 한다. 그렇게 형상화된 언어 작품을 정당한 의미의 ‘문학’이라 한다.

1) 강중권 외(2017), 《사르트르의 미학》, 예크리, 242쪽.

4. 문학에 동원되는 방언

기호를 가지고 사물 이미지를 환기하는 형상화는, ‘이런 장면에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또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 추론은 구체적인 감각을 환기하는 그런 추론이다. 실제 장면과 실제 인간을 이미지로 떠올리게 한다.

김현승 시인의 시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기도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다. 따라서 오만할 수 없다, 겸허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언어는 낯설지 않은 ‘모국어’라야 한다. 이때의 모국어는 시공간으로 보았을 때, 방언과 바꾸어 놓아도 좋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고향의 언어이다.

김영랑의 시 <오-매 단풍 들것네>는 전라도 방언(사투리)의 어감이 잘 살아나는 작품이다. 추석을 앞두고 감잎의 잎맥에 단풍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감수성 예민한 누이가 쳐다보고 놀라서 “오-매 단풍 들것네” 하고 놀란다. 내일모레 돌아올 추석을 기다리면서 바람이 자주 부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오빠는 누이와 교감이 이루어져 누이와 함께 “오-매 단풍 들것네” 하고 공감 어린 탄성을 지른다. ‘기둘리리’, ‘잡이 어서’ 등도 지역성을 질게 드러내는 어휘들이다. 세 차례나 반복되는 “오-매 단풍 들것네”를 경상도 말로 바꾸어서 ‘마아 단풍들지 않겠노’ 그렇게 말한다면 느낌이 사뭇 달라진다. 인용하는 시를 음미하기 바란다.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붉은 감잎 날아와
누이는 놀란듯이 쳐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잦이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

경상도 방언을 투박한 기교로 시에 엮어 넣은 예를 박목월의 <이별가>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제로 인연을 맺어 이 세상을 살다가 하직을 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는, 혹은 이승에서 어딘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는 뱃머리,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득하게 들린다. 유한한 인간의 시간 ‘동아뱃줄이 안타깝게 삭아 내리는 장면, 그러나 하직을 말하며 외치는 형에게 아우가 뭐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바람에 날려 안 들리는 안타까운 장면에서, 안타까운 대로 오냐 오냐 응답을 해주는 심정, 인연은 갈밭을 지나는 바람이라는 은유로 허무하게 옷자락처럼 날리는 인연이지만 그게 갈밭을 지나는 바람이기 때문에 갈밭 저쪽 어디선가 목소리끼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는 안타까운 하직의 뱃머리……. 속으로 오염하는 인연의 야속함……. 그 장면이 눈에 선연하게 떠오른다.

전라도 말로 ‘자네 뭐라 한당가 그렇게 늘어지게 말하면 안타깝고 급박한 정서가 살아나지 않는다. 오냐 오냐 오냐를 충청도 말로, 그랴 그랴 그랴 그렇게 바꾸어 본다면 전면적인 허용이 녹어 들어 실감이 나질 않는다. 경상도 시인의 경상도 말이 이 시를 살린다. 인용한 시를 경상도 어조로 낭독해 보기 바란다.

뭉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뭉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뒹락카노 뒹락카노
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뒹락카노 뒹락카노 뒹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뒹락카노, 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5. 소설의 언어적 형상화

흔히 문학 언어의 특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와 소설을 대비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는 운문과 산문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언어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내세우는 언어 행위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모든 언어 행위는 서사 행위이다.”

물론 ‘모든’이라는 전칭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예외를 배제하기 때문에 독단으로 갈 소지가 있다. 서사(敍事)란 글자 그대로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일이다. 사건은 인간들의 얽힘과 다툼과 풀림으로 이루어진다. 인간들이 행동하기 위해선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조정되어 있다. 혹은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동이 전개된다.

예를 들기로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의 뜻을 누가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문장이다. ‘나’와 ‘너’라는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되어야 뜻이 드러난다. 언어 행위에서 주체들은 상호 주체적이다. 나는 주체이고 너는 대상이라는 양분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의미의 소통이 아니라 ‘전달’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아가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가를 따져야 의미가 규정된다. 또한 ‘너’라는 주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때로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소설은 넓은 의미에서 서사의 근대적 형태이다.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라는 연작 소설집이 있다. 1970년대 초기의 작품들을 모아 출판할 때 그런 제목을 붙였다. 그 가운데 첫 작품이 <일락서산(日落西山)>이다.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갔다가 자기 고향 동네가 개발 성황 가운데 변화해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고, 자신의 어린 시절 풍속이 살아 있던 고향의 정경을 그리는 가운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얽힌 추억을 더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할아버지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문단이 있다.

서원말 사람으로 우리집을 가장 자주 드나드는 이는 언제나 패랭이를 쓰고, 두루마기도 없이 짚세기를 켜 채 구력을 메고다니던 환갑늙은이였다. 그는 무시로 드나들어 나하고도 피차 얼굴이 익어 있었는데, 그는 동구 앞이나 신작룻가에서 놀던 나를 만나면 나보다도 먼저 허리를 굽신대면서

인사를 했다.

“되린님, 나리마님 지신감유?”

그것이 그가 하는 인사말이었다.

“예, 시방 사랑에 지셔유.”

나는 늘 그렇게 대답했는데 한번은 앞서 나서서 사랑 앞에 이르러,

“할아버지 손님 왔슈.”

“뉘라느냐?”

“위편 뇌인양반유.”

했다가 나중에 호된 걱정을 듣기도 했었다. 할아버지는 그 패랭이 쓴 늙은 이더러 늘,

“오냐, 수뵻이 왔느냐.”

마치 선머슴이나 다루듯이 하대를 했던 것이다. 그가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나를 불러놓고,

“승현… 쇠님은 무어이며 뇌인양반은 또 뭇이란 말이나. 폐에엥--”

할아버지의 꾸중에 나는 일언반구의 말대답도 못 한 채 물러앉았다. 그 패랭이를 쓴 늙은이가 서원의 원노(院奴)였음은 그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뒤에 안 일이었다.

- 이문구(2004), 《관촌수필(이문구전집 8)》, 랜덤하우스중앙, 41쪽.

작가 이문구의 고향은 충청남도 대천이다. 대천(大川)을 한내읍이라 한다. ‘한내읍 머리말이기도 한 갈머리<冠村部落>가 ‘관촌’이다. 소설에다가 ‘수필’이라는 장르 명칭을 단 것은 소설의 장르 원칙을 벗어나 자유롭게 쓰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표명한 걸로 읽힌다. 소설 곧 허구라는 등식으로 문학을 파악하는 세태에 대한 거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작가 자신의 고향 동네 이야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삶의 구체상이 언어로 전화(轉化)되어 나타나 있다.

위에 인용한 단락에는 충청도 말의 어투가 살아 있다. 패랭이, 두루마기, 짚세기, 구력 등 ‘서원말’ 원노들의 삶의 세목을 보여 주는 어휘가 동원

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일종의 고유어가 수두룩하게 출몰한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할아버지의 계층 의식과 조손간의 행위 규칙, 아랫사람에 대한 말투 등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손자가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없다. 서원을 ‘지키는 아랫사람이니 수복(守僕)일 뿐이다. 일반 명사 수복은, 조선 시대에 묘, 사, 능, 원, 서원 같은 데의 제사를 맡아보던 사람인데, 주로 청소를 담당했던 걸로 되어 있다. 삶의 지칭과 호칭에서 고유 명사를 안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할아버지의 손자에 대한 태도가 단호하고 일방적이라는 점은 당대까지 유지되던 일종의 가풍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인용 단락에는 인물의 계층, 성격, 인간관계, 인간관 등이 역동적 서사 가운데 나타나 있다. 물론 삶의 구체적인 세목 가운데 나타난 사항들이다. 어쩌면 이러한 양상이 소설의 형상화의 여러 방법 가운데 한 전범이 될 것이다.

6. 언어의 육체란 무엇인가

언어는 물리적 시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로 실현된다. 언어 행위는 인간 행위의 한 영역이다. 문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학 행위라는 말이 가능한 것은 문학이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행위를 떠난 문학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학 행위의 구조나 절차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텍스트 중심으로 언어를 고구하면 언어는 텍스트의 부단한 연관 속에 위치한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처럼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il n'y a pas de hors-texte).”는 데 이르게 된다. 이런 결론은 텍스트의 작용상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논리의 절벽이다. 논리상으로는 그렇더라도 실감이 적다. 그 텍스트를 운용하는 인간, 언어 행위의 주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소통 에너지이다. 이는 언어의 물질 차원을 고려하는 규정이다. 물질은 질량을 지닌다. 질량은 물질의 운동을 따라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일찍이 훔볼트(Humboldt, Karl Wilhelm Von)는 언어의 두 양상을 에르곤(ergon)과 에네르게이아(energeia)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²⁾ 언어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언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이 에네르게이아이다. 소통 에너지는 영어로 커뮤니케이티브 에너지(communicative energy)라 할 수 있는데, 언어를 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언어 도구관을 벗어나기 위한 규정이다. 언어는 행위이고, 행위의 주체는 언어적 존재로서 인간이다. 언어적 존재인 인간은 ‘피와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움직인다. 니체는 말한다. “모든 글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글을 쓰려면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곧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³⁾

인간 행위에서 소통 에너지의 발양인 문학은 문학 내적인 소통과 외적인 소통을 동시에 포괄한다. 문학 행위의 외적 주체가 독자다. 독자의 소통 에너지는 작가의 소통 에너지를 넘쳐나게 한다. 니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의 피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게으름을 피우며 책을 읽는 자를 미워한다.”⁴⁾ 그래서 결국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⁵⁾ 하는 데 이른다. 개념적으로 규정되는 신이 아니라 몸에서 피가 돌아가며, 그 에너지로 춤을 추는 그러한 육체를 지닌 신이라야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언어의 피와 정신이 어우러진 그런 존재가 문학이다. 그런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만이 ‘춤추는 신’의 형상을 지닌다. 그 가운데 방언이 자리 잡는다.

2) 허발(2013), 《언어와 정신》, 열린책들, 151-153쪽 등 참조.

3) 니체(2000),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61쪽.

4) 니체(2000), 위의 책, 61쪽.

5) 니체(2000), 위의 책, 63쪽.

우리말을 사랑하려면

강주헌
번역가

I. 삽화 1

올해 삼일절을 며칠 앞두고 ‘겐세이’ 논란이 벌어졌다. 한 의원이 국회 모 상임 위원회에서 질의하던 중에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위원장에게 “왜 겐세이를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여기에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겐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 게다가 일본어다. 삼일절을 앞두고 공개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겐세이는 ‘견제’에 해당하는 일본어이다. 그 발언의 주인공이 그렇잖아도 국정 농단과 관련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정당 소속이어서 친일로 문제가 확대될 듯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여당 소속 의원도 국회의 다른 상임 위원회에서 ‘겐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밝혀진 덕분인지 친일 문제로의 비화는 수그러들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우라카이’라는 일본어를 자연스레 사용했다. 신문에 언급된 정도만 이 정도인데 우리 삶에서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그것도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낯선 일본어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높으신 양반들이 외국어인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

만으로 슬픈 게 아니다. 그들이 일본어의 앞뒤로 덧붙인 말 때문에 더욱 더 슬프다. 위원장은 “삼일절을 앞두고 공개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말했다. 말꼬리를 잡아 보자. 그럼 삼일절을 앞두고 있지 않았으면 괜찮았을까? 공개 석상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 삼일절을 앞두고 있지 않았으면 공개 석상이어도 괜찮았을까? 삼일절을 앞두고 있더라도 공개 석상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 여하튼 여당 의원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걸 보면, 삼일절을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공개 석상에서 일본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게 분명하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렇다. 어쩌면 친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자들의 세계에서도 용인되는 듯하다.

심지어 일본어가 엉뚱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 4월 초, ‘노컷뉴스’(뉴스는 외래어로 인정하더라도 ‘노컷’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생뉴스’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는 “초등학교는 지금 아이스캐끼 대신 양 기모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 기모피’와 ‘이꾸요잇’이 포르노물에서 종종 사용된다는 이유로 성폭력 언어라고 규정했고, 초등학교에서 두 단어가 쓰인다고 걱정했다. ‘기분 좋다’라는 뜻이고 ‘가자!’라는 뜻인데 포르노물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성폭력 언어로 둔갑해버렸다. 기막힌 논리이지 않은가?

대체 그들은 좋은 우리말을 두고 왜 일본어를 사용할까? ‘견제’보다 ‘겐세이’, ‘베끼다’보다 ‘우라까이’가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들의 이력을 찾아보았다. 적어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들은 아니었다. 모두가 자의로 일본어를 선택해 사용한 사람들이다. 물론 극소수의 단어에 불과하지만, 왜 그들은 우리말보다 일본어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까? 그들에게 공직에 몸담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조국에 ‘국어’는 없다!

II. 삽화 2

지난 5월 12일 토요일 오후, 미수(米壽)를 앞둔 노모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홈 쇼핑 방송을 보고 있었다. 때마침 여성용 의상과 화장품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방송되는 시간대였다. 브라우저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에 ‘브에프르 뉴마랑 브라우저 3종’, ‘샌드 베이지/프렌치 코코/모브 핑크’라고 쓰여 있었다. 브에프르는 상표 이름이라는 건 알겠는데 브라우저 앞에 붙은 ‘뉴마랑’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브에프르’(VEUX ETRE)는 음독도 잘못되었고, 국립국어원에서 권고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도 않다. 하기가 고유 명사이니까 일반적인 음독법과 표기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기는 하다. 그 래도 상표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루이 비통, 크리스찬 디올, 발렌시아가, 까사렐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디자이너 ‘아나이스 귀에 라’와 콜라보로 탄생한 프렌치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브에프르, 고급스런 소재와 세련된 컬러의 조화, 맞춤형 제작하듯 꾸뛰르적인 디자이너의 터치…….” 물론 고유 명사가 쉬였지만,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많다. 색상이면 충분한 컬러에서도 샌드 베이지와 모브 핑크는 그럭저럭 상상할 수 있겠는데 프렌치 코코는 화면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다. 내가 무지한 탓일까? 그래서 구글에 검색해 보았지만 프렌치 코코가 어떤 색인지 연상할 만한 단서가 찾아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발언은 점입가경이다. “에스닉하고 페미닌한 디자인”으로 “코튼 100퍼센트로 텔리케이트하게” 짜였다면서 ‘코튼’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프레스시 퓨어 소프트 코튼”으로 구체화한다. ‘회색이 은은히 섞인 푸른색’이라고 말하면 충분한 텐데 “그레이시한 블루 칼라”라고 말하고, ‘안에 입어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내 노모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고매하신 진행자는 “이 너로 들어가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무척 현학적으로 불편하게 말한다.

영어로 먹고 산다는 나도 어리둥절한데 미수를 앞둔 노모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까? 하기가 내 어머니는 그들의 고객이 아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방송이지만 영어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외국어, 특히 영어의 범람은 홈쇼핑 방송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전 국민이 시청자인 이른바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영어가 넘쳐흐른다. '시니어 토크쇼', '배틀 트립', '블랙 하우스' 등 제목에서만 영어가 쓰이는 게 아니고, 자막에도 영어가 쓰인다. 음독만이 아니라 아예 영어 철자가 쓰이기도 한다. 이제 영어를 모르면 지상파 방송마저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은 중영되었지만, '김생민의 영수증'이란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인 자막, '그웨잇!'을 보면서 10년 전에 무지막지한 비판을 받았던 '어린자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씁쓰레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Ⅲ.

대체 외국어가 이처럼 남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말은 한자어에 비해 속된 말이라고! 정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생식기에 관련된 단어들로 순우리말은 격이 낮고 속된 단어이고, 한자어는 점잖고 격조 있는 단어가 된다. 한자어의 자리를 요즘 세상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겐세이' 파동이 있었을 때 한 야당 대표는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가 혼용되는 세계화 시대인데 유독 일본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법만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며 그 파동을 일으킨 주역을 옹호하고 나섰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때문인지 그 야당 대표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한 기자는 없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외

국어를 남발하는 기자들에게 적어도 언어 문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다양한 외국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맞다. 하지만 한국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면, 우선적으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인 외래어와, 그렇지 않은 외국어를 구분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말로 대화하는 데 아직 외래어로 인정받지 못한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와 일본어의 단어를 뒤섞는 것은 세계화 시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팬스레 멋져 보이고 싶은 허영심에 사로잡힌 ‘어리보기’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어리보기’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기를 바라지만, 있더라도 몇 명이나 될까. 뜻을 모르는 독자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기 바란다. 외국어로 쓰인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띄면 관련된 언어의 사전을 찾아 확인하면서 국어의 경우에는 왜 확인하지 않는가? 여하튼 ‘어리보기’의 뜻을 찾아보면 실망하며 한숨이 나올지도 모른다. 순우리말로 듣기에도 편하고 발음하기도 편한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낯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햏해서 네이키드한 몸으로 에땅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면 멋지게 들리는가? ‘햏’, ‘네이키드’, ‘에땅’ 모두 귀에 익은 단어들이다. 앞의 두 단어는 영어이고, ‘에땅’은 피자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프랑스어이다. 영어에 프랑스어까지 뒤섞어 말하면 상대에게 유식한 사람처럼 보일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외국어를 남발하는 걸까? 우리말과 외국어의 관계에서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적용되는 것일까?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 이 의문에 대한 약간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말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30.7퍼센트)와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30.3퍼센트)가 비슷한 정도로 많은 답을 얻었다.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13.9퍼센트)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10.0퍼센트)라고 응답한 사람도 만만찮게 많았다. 달리 말하면, 상대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4퍼센트, 네 사람 중 한 사람이란 뜻이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14.7퍼센트)라는 대답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 독립적인 모습보다는 주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살고 싶다는 뜻이다. 여하튼 상대보다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이 대답도 상대에게 멋지게 보이려는 범주에 속한다면, 24퍼센트에 약 15퍼센트가 더해져 39퍼센트가 주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셈이다.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말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갑자기 우리말이 질적으로 떨어진 언어가 되고 말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51만 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할 단어가 없단다! 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기에 51만 개의 어휘로도 부족하다는 것일까? 여하튼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대체 머릿속에 얼마나 새롭고 엄청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일까?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라는 대답도 마뜩찮다. 어떤 개념을 표현하려고 할 때 외국어로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우리말로는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대답으로도 설명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말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 그렇다면, 앞의 대답에도 똑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말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금세 떠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자책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결국 외국어의 남발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교활한 수법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5년의 조사에서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게 받는 인상으로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22.2퍼센트), “세련된 느낌이 든다.”(12.3퍼센트), “학식이 높아 보인다.”(9.0퍼센트)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교활한’ 수법이라 말했던 것이다. 어휘력은 인문학적 교양이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말이 아닌가? 그렇다, 작년 초에는 ‘어휘력이 교양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번역된 적도 있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외국어를 남발하는 사람은 인문학적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교양이 없는 무지함을 그럴싸한 외국어로 감추려는 사람이다. 지나친 일반화가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맞다. 하지만 우리말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과장을 해 보았다. 거듭 말하지만,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세계화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말 어휘력을 키워라. 그럼 겐세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우라까이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지만 ‘시나브로’라는 부사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내 노모처럼 일제의 감시하에서도 곳곳이 우리말을 지켜주신 분들을, 한반도 밖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분들보다 나는 더욱더 존경한다.

“더버서 깨벗고 듨병에 뛰어들었다.” 무슨 뜻일까?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라.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리랑카의 언어 정책

차투리카 nil라니(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교 현대언어학과 조교수

1. 머리말

언어는 지역 사회의 민족 총체성의 기본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스리랑카는 오래전부터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즉, 스리랑카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2,000년 이상이 되는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스리랑카가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는 데까지 지리적 요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스리랑카는 북쪽으로는 인도¹⁾, 서쪽으로는 몰디브, 동쪽으로는 니코바르 제도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안다만 제도와 맞닿아 있다. 즉 인도양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해로의 중심으로서 수세기 동안 많은 나라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인도와의 근접성은 스리랑카에 다방면에 걸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영향은 북인도 혹은 인도 아르연과 남인도 혹은 드라비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신탄리즈족이 당시에도 민족의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인도 아르연 출신으로 기원전 500년

1) 인도와는 만나르만과 포크 해협으로 나누어지며, 스리랑카와 아주 근접하게 자리하고 있다.

쯤에 북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온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기원전 3세기부터 스리랑카와 인도 사이에 무역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타밀 종족의 접촉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상인으로 스리랑카를 드나들던 타밀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침입자로 스리랑카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나 10세기까지는 타밀 민족의 정착이 그리 상당하지는 못 하였다. 인도의 아소카(Ashoka) 황제가 특별 불교 사자를 보내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한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 시대의 불교의 유입이 사람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불교에서는 신자들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했으며, 초기부터 승려들은 그들의 속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이나 관례나 예배에서 보존된 신성한 물건들을 기록하는 관습을 개발했다(Godakumbure, 1955). 이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적인 장르로는 ‘방사(vamsa)’가 있으며, 2개의 연대기인 ‘마하방사(Mahāvamsa)’와 후기 기록물인 ‘출라방사(Cūlavamsa)’는 스리랑카의 고대 및 중세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인도에서의 다양한 민족의 이주 유입이 스리랑카 사회를 다민족 사회로 형성시켰다.

16세기에 시작된 식민주의가 스리랑카의 언어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언어 정책과 교육 제도 진화의 결정적인 단계가 되었다고 하겠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스리랑카 사회 그리고 신할리즈어가 처음으로 서구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스리랑카는 1505년에 포르투갈로 시작하여, 1658년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1796년 영국까지 440년간 식민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 포르투갈인들은 서부 해안 지방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장려하고 유럽의 물질문명을 전파하여 스리랑카에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네덜란드인의 통치 목적은 무역과 인도양의 해군력 독점에 있었으므로 포르투갈과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실시했다. 반면에 영국은 전국에 정치적 명령을 시행하면서 영어 소개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곧 사회언어학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지배 국가들의 언어 정책이 스리랑카의 민족 구성과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스리랑카의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현재 언어 상황에 영향을 끼친 식민지 시대의 언어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해방 이후의 언어 정책에 주목하면서 현재 스리랑카의 언어 정책에 대한 문제 점을 깊이 있게 고찰하겠다.

2. 스리랑카의 사회언어학적 특징

스리랑카인의 언어로는 신할리즈어, 타밀어와 영어가 있다. 신할리즈어는 인구의 다수인 ‘신할리즈’ 민족의 언어이며, 타밀어는 소수 민족인 타밀과 무슬림 종족의 언어이다. 영어는 매개의 언어(link language) 역할을 한다. 먼저 신할리즈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할리즈어는 인도의 고전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할리즈인의 고유의 언어로 인정된다. 신할리즈어는 인도-아리안(Indo-Aryan)어족에 속하며, 인도의 언어인 힌디어, 우르두어, 벵골어, 마라티어 등의 언어와 유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인도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할리즈어는 독립적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할리즈어는 스리랑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이며, 드라비다어(Dravidian Languages)²⁾ 언어를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인도 언어와 구별되며 드라비다어의 언어적 특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신할리즈어는 고유의 글씨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 인도의

2) 드라비다어족(Dravidian languages)은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의 타밀어를 포함하고 있는 어족이다.

‘브라흐미’ 문자에서 유래되었다. 불교의 도입과 함께 처음으로 사람들이 쓰기를 익히기 시작했다. 초기 암각문은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동굴 등에서 발견되었다. 신타리즈어로 된 저작물은 10세기부터 확인되는데, 주로 시집이 많았다. 최초의 신타리즈어 문법서인 ‘시다트 상가라바(Sidat Sangarava)’는 13세기에 쓰였으며, 주로 시적 표현을 다루고 있다. 고대의 신타리즈어에 대해 논의할 때 ‘산데샤 카비아(Sandesha Kavya)’³⁾는 빼놓을 수 없는 정교하고도 위대한 문학 장르이다.

천년 동안 깨지지 않은 전통을 지닌 신타리즈어의 쓰기와 문학은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장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Coperahewa, S., 2009). 즉 1815~1956년 동안 국어가 영어로 변경되면서 신타리즈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식민 통치 기간은 신타리즈어가 서구 언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영국의 문물들과 함께 외래어가 신타리즈어에 유입되었다. 특히, 포르투갈과 영국의 식민지 지배력이 강하던 시기에 포르투갈어와 영어가 국어가 되면서 수많은 포르투갈 및 영어 외래어가 신타리즈어에 들어왔다.⁴⁾ 신타리즈어의 외래어 중에서 영어 외래어가 현대 신타리즈어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르투갈어 및 영어에서 현재 신타리즈어에 차용된 외래어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3) 산데샤 카비아(Sandesha Kavya)는 스리랑카의 고대 시대의 문학 장르로 시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한 문학 작품이다.

4) 네덜란드인들은 포르투갈인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은 네덜란드어를 현지어와 병행하여 쓰는 정책을 택하였으며, 결국 네덜란드어를 공식어로 대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Coperahewa, S., 2011에서 재인용).

표 1 신할리즈어의 외래어

포르투갈어 외래어	포르투갈어	영어 외래어	의미
kamisa(셔츠)	camisa	bus	버스
iskola(학교)	escole	rubber	고무
almariya(장롱)	almario	powder	파우더
paan(빵)	pao	bag	가방
minindoru(측량사)	medidor	canteen	식당

현대 신할리즈어는 양층 언어 현상 즉 2개 언어 사용(Diglossia) 현상을 나타내는 언어로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확연히 구별되는 언어이다. 현대 표준 신할리즈어로 인식되는 문어체 신할리즈어는 학교에서 교육되는 언어이며, 행정 서류, 뉴스 보도와 문학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구어체는, 모든 사회적인 수준에서 사용되는 일상의 언어이다.⁵⁾ 신할리즈어의 문어체와 구어체는 어휘부터 문법 체계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모든 면에서 상이하다. 그리고 구어체 신할리즈어는 영어와 신할리즈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사회언어학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타밀어에 대해 알아보겠다. 타밀어는 타밀인과 무슬림들의 언어이다. 타밀 민족은 주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000여 년 전에 남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⁶⁾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인도와 고립되어 있었던 탓에 남부 인도 구어체 타밀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타밀어 방언을 형성해 냈다. 타밀어도 신할리즈어와

5) 가이르(Gair, 1968)는 신할리즈 화자들이 사용하는 신할리즈어 유형에는 문어체와 구어체 신할리즈어 사이에 표준 구어체 신할리즈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표준 구어체 신할리즈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어 문법과 문학적인 어휘가 포함된 언어 현상이다.

6)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타밀 민족은 스리랑카 타밀과 인도 타밀로 구별된다. 스리랑카 타밀인들은 상업 목적으로 수백 년 전에 스리랑카로 이주한 종족이며, 인도 타밀로 불리는 타밀인들은 19세기에 차 농장에 노동 목적으로 이주했던 타밀인들의 후손이다.

마찬가지로 구어체와 문어체가 구별되는 양층 언어 현상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구어체 타밀어는 첸타밀(Centami)이라 일컫고, 문어체 타밀어는 코튼타밀 혹은 코카이 타밀(Koṭuntami/Koccai-t-tami)이라고 일컫는다. 전통적인 타밀 문법 학자들은 문어체 타밀어를 늘 강조하였다(Coperahewa, S., 2009). 역사상으로 봤을 때 13세기 이후에는 타밀어가 명성을 누리던 시기였기에 이는 곧, 신할리즈 문화와 언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13세기 이후에 일상생활, 전쟁, 예술과 행정 관련 타밀어 외래어가 신할리즈어에 유입되었다(Coperahewa, S., 2009). 타밀어는 1988년 헌법 개정 시 제13조에 따라 스리랑카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스리랑카에서의 영어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겠다. 영어는 1796년에 침입자로 들어온 영국인들로 인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1802년에 영국인들이 스리랑카를 식민지로 선포하면서, 영어를 당시 국어로 규정하였으며, 그 후 영어는 행정, 법률, 교육 및 상법 등 모든 분야의 언어가 된다. 19세기의 영어의 도입이 스리랑카에 사회 문화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해방 이후에도 영어에 대한 위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할리즈, 타밀, 무슬림 및 말레이인들은 영어를 일상 혹은 오락의 언어로 다르게 말하여, 가상의 모국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중산층의 상류층 신할리즈인들과 중산층의 타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구사하였으며, 다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였다. 영어는 당시 농민 계급이 아니었던 스리랑카인들에게 전통적 직업 기반 계급 제도에서 벗어나 교육, 정부, 상업적 고용과 돈을 기반으로 한 계급으로 들어설 수 있는 통로였다(Fernando, C., 1970). 현재는 영어가 스리랑카의 공용어 중에 하나이다. 학교에서 제2 언어로 가르치며 주로 교양 있는 사람들 또는 중산층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영어는 서로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스리랑카인들을 위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가 세계와의 소통 그리고 지식 교류를

위한 언어로 변신을 하면서 다양한 대중 사이로 점차 퍼져 나갔다, 현재 스리랑카 사회에서 영어는 수익성이 높은 직업과 사회적 명성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공식 언어이며, 공공 부문에 취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⁷⁾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릴 적부터 국제 학교로 보내려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콜롬보 지역 명문 학교나 주요 도시 사립학교에서는 고학년 수업을 영어로 운영한다. 영어의 사회적 위상에 힘입은 국제 학교들은 소도시에서도 인기를 얻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교에서는 영어가 학부 혹은 대학원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과학, 수학, 경영학 과정은 물론 일부 사회나 인문학부 과정도 강의를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또는 학문 목적이나 취업 목적을 위한 특수 목적 영어 과정도 학위 수준으로 진행 중이다.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영어 학원 홍보 광고만 봐도 영어에 대한 수요와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영어 회화를 위한 학원이 가장 인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인들이 주입시키던 영어에 대한 인식이 현대 사회에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해 같은 권리를 가진 자를 폐위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는 자국어만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영어에 대한 ‘까두와(검)’와 같은 강력하고 독특한 신할리즈어만의 은유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는 영어가 가지는 적대감과 괴로움을 뜻한다(Walisundara, D,C & Hettiarachchi, S., 2015).

스리랑카에는 신할리즈어, 타밀어와 영어 외에 작은 지역 공동체가 사용하는 소수어가 존재한다. 언어학자들은 이와 같은 언어는 멸종될 위기에

7) 영어는 모든 이가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언어이며, 구네틀레케(Goonetilleke, 1983)가 말한 것처럼 스리랑카 사회는 영어와 애증의 관계라는 것이다. 즉, 영어는 사회적 유희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좋아하며, 사회의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뜻이다(Walisundara, D,C & Hettiarachchi, S., 2015).

이른 언어로 칭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소수어에 대한 정책이나 기획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는다(Coperahewa, S., 2009).

표 2 스리랑카의 소수어

언어 종류	설명
베다(Vedda)	베다는 스리랑카 원주민의 언어이다. 현대 베다 언어의 어휘와 문법에서 신타리스어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베다 종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 신타리스어 어휘는 원래 베다 언어에서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Coperahewa, S., 2009).
말레이(Malay)	말레이는 0.3%의 소수민족인 말레이인 ⁸⁾ 들의 언어이다. 그러나 현재는 말레이가 회화 위주의 사투리로만 사용되며, 말레이인들은 영어, 신타리스어나 타밀어로 업무를 해결한다. 베이케(Bakker, 2006)는 말레이어의 음운론은 타밀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Coperahewa, S., 2009).
로디(Rodi)	로디 혹은 가디(Gadi)로 불리는 낮은 계급의 언어이다. 라가반(Raghavan, 1957)은 로디는 신타리스어와 친밀성이 매우 떨어지는 언어이며, 기밀 언어로 신타리스어가 아닌 어휘를 신타리스어 통사 구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텔루구 혹은 아히쿤티카 (Telugu or Ahikuntika)	스리랑카 집시로 일컫는 이 민족은 피리를 불어 뱀이나 원숭이를 춤추게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의 언어는 인도의 텔루구어의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만 모국어를 사용하며 신타리스인이나 타밀인과 대화할 때는 신타리스어와 타밀어를 사용한다.

3. 식민지 시대의 언어 정책

현재 스리랑카의 언어 정책은 스리랑카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식민지 시대의 언어 정책을 의논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코퍼라헤와(Coperahewa, 2009)는 처음으로 여론에서 언어가 거론된 시기가 19세기였으며, 따라서 영국 식민 정부가 시행하던 언어 정책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언어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8) 13세기에도 스리랑카에 말레이인들의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역사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스리랑카에 말레이종족이 들어온 것은 18세기나 19세기인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인의 통치 기간에 말레이인이나 인도네시아인을 노동자로나 군인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인다.

밝혀내고자 한다.

16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의 통치를 받게 된 스리랑카는 1815년에 영국에 의해 정치 지배권을 빼앗겼고, 이는 1948년에 스리랑카가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505년에 스리랑카를 침략했던 포르투갈인들은 동서 무역의 독점이 목표였다. 포르투갈인들은 교역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역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통제를 확보해야 함을 깨달았고 이에 따라 전체 해안 지역에 걸쳐 권력을 확장시켰다. 포르투갈어가 당시 행정언어였으며, 신할리즈어와 타밀어는 포르투갈어와 밀접한 접촉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신할리즈어에 남아 있는 많은 포르투갈 외래어만 봐도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1658년에 네덜란드인에게 해안 지역의 통치권을 뺏기면서 이 지역이 또 한 번의 식민 구역이 되어 버렸다. 네덜란드인 또한 포르투갈인과 마찬가지로 무역과 상업의 독차지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이들의 지배는 해안 지역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다 1796년에 영국인들의 침입으로 138년의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1815년에 영국은 마지막 왕국이었던 켄디를 멸망시키고 영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 그 후 곧 영어를 도입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이는 스리랑카의 사회언어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스리랑카의 영어 도입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영국 식민 행정과 선교사들의 파견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Coperahewa, S., 2015). 영국의 통치 시작 당시부터 식민 행정인들은 영어와 기독교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최초의 영국 총독인 프레드릭 노스(Fredrick North, 1798-1805)는 통치인의 언어와 종교의 전파가 미래의 큰 이득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여, 엘리트 계급과 영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 정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Ludowyk, 1966). 또한 당시 영국 행정인들은 영국 통치자와 대중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영어에 능통하고 교양 있는 공무원 계층을 창출하면서 영어가 가지는 기능적 가치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1832년에 영국 식민 사무소에서 스리랑카의 행정, 경제와 사회 교육 사정 등을 단행하기 위한 콜브룩(Colebrooke)과 캐머런(Cameron) 두 대표자를 비롯한 영국 정부 심의회를 스리랑카로 파견했다. 이 심의회에서는 스리랑카의 법률 검토와 행정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심의회는 스리랑카에 대한 보고에는 언어 계획에 대한 제안도 함께 포함시켰다. 식민지 시대의 스리랑카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에 대한 최초의 선언은 실론 정부의 행정 상황에 관한 콜브룩 보고서(Colebrooke Report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of Ceylon)에서 찾아볼 수 있다(Coperahewa, S., 2015). 보고서에서는 영어가 스리랑카의 공식어로 채택되어야 함을 권유하고 있으며, 중고등 교육에서는 영어를 교육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Canagarajah 2005; Gooneratne 1968, Herath, S., 2015에서 재인용). 콜브룩은 영어가 스리랑카인을 발전을 향해 이끌 것으로 확신했던 반면에 현지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으며, 영어 학교를 통해 지식을 전파하는 것에 주목했다(Mendis, 1956). 이에 따라 영어로 서구 지식을 전파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소수의 대중에게만 전달되었다. 서양화된 엘리트층을 창출하기 위한 영어 학교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들은 식민지 관료제 계급층에서 적은 월급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 영어 학교에서 배운 이들에게는 임금이 높은 취업 자리와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반면에 현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는 임금이 낮은 취업 자리만 있었을 뿐 고등 교육의 기회는 매우 희미했다. 문화 제국주의가 식민지 언어 정책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 문화 보급은 영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스리랑카인들은 영어로 교육받은 계층과 자국어 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나누어졌으며, 영어 학습 목적은 분명했다. 식민 이전에 스리랑카 사회는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였다. 농민 계급은 다른 계급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계급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외의 계급들은 하찮게 대어져 왔다. 영국 식민

통치의 시작으로 경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으며, 영어가 상업, 행정 및 중등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계기로 영어를 배운 이들은 많은 혜택을 얻었으며, 특히, 농민 계급이 아니었던 이들에게는 전통적 직업 기반 계급 제도에서 벗어나 교육, 정부, 상업적 고용과 돈을 기반으로 한 계급으로 들어설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영국 통치 기간에는 선교 활동이 번성하였다. 영국 선교사들은 교육 또는 선교의 목적으로 사전, 어휘집, 문법서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작업을 해 왔다.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모든 선교 활동 중에 가장 중요했다. 현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언어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어떤 선교사들은 신할리지어를 배웠으며, 신할리지어 문법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문학 활동은 근대 신할리즈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즉, 19세기 초반에 발간된 기독교 간행물들은 근대 신할리즈 문학에 큰 자리를 차지하며, 일부 기독교 문학에 나타나는 언어가 신할리즈 산문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재 사전 제작 발전의 시작은 식민지 당시로 추정된다. 이렇듯 인쇄물의 유입은 신할리지어나 타밀어의 언어 표준화와 문맹률 퇴치에 일조했다(Coperahewa, S., 2009).

영어가 공식어가 되어 호황을 누리던 150년의 기간 동안 신할리지어와 타밀어에 대한 인식은 쇠퇴했다. 점차 퍼져 가는 위협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신할리즈인들 사이에서 19세기 후반부부터 20세기 초반부 사이에 신할리지어와 종교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신할리즈·불교’ 운동이 일어났다. 인쇄술의 도입과 함께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과, 이런 작품을 즐기는 독자들이 생겨났고, 학자, 작가와 시인은 자신들의 생각을 인쇄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렸다. 언어에 대한 충성심은 교육과 정치 제도에서 더욱 강했다. 신할리지어의 활성화와 현대화가 언어 기획에서 새로운 유행을 선도했다. 많은 신할리지어 학자들은 신문, 간행물이나 작품을 통해 신할리지어

보급에 힘을 쏟았다. 무니다사 쿠마라툰가(Munidasa Cumaratunga, 1887-1944)는 20세기 신할리즈어의 활성화와 보급에 앞장선 위대한 언어학자였으며, 신할리즈어 순화 운동을 수행하여, 신할리즈어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여러 언어 기획 활동과 언어학적 연구들은 신할리즈어 보급에 크게 공헌했다. 당시 독일 언어학자였던 빌헬름 가이거(Wilhelm Geiger)가 쓴 신할리즈어 문법서인 《신할리즈 문법(Grammar on Sinhala- A grammar of the sinhalese language)》과 실론지사의 왕립 아시아회(Royal Asiatic Society of Ceylon Branch)에서 제작한 《신할리즈어원학 사전(Sinhala Etymological Dictionary)》이 신할리즈어학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1943년에 실론 대학교(University of Ceylon) 동양 언어학부가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와 신할리즈어학과로 재편성된 것은 스리랑카 언어학 역사의 중대 사건이었다(Coparehewa, S., 2009).

신할리즈어와 타밀어가 영어로 대체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는 자국어 운동(Swabhasha movement)으로 행정과 교육의 언어였던 영어를 신할리즈어와 타밀어로 대체하자는 압력이었다. 이는 곧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자국어를 사용하는 스리랑카인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국어 운동은 신할리즈인의 운동이었으며, 영어로 교육받고 특권을 누리던 이들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으며, 영어가 지배하던 공직에서의 중요한 자리를 통제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안을 고려한 중앙 정부 내각에서는 1945년에 신할리즈어와 타밀어를 공식어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조사할 위원회를 임명했다. 결과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포되었다.

1. 1957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할리즈어와 타밀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어야 한다.
2. 국어 위원회의 임명과 함께 공용어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 번역 및 연구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 보고서는 독립 초기에 권고안이 채택되었을 때 국가 공용어의 이중 언어 정책 진화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4. 해방 이후의 언어 정책과 문제점

1948년에 스리랑카가 독립 선언을 하면서 스리랑카 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언어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독립 이후에는 신할리지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영어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국회에 입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Coperehewa, S., 2009). 1951년에는 당시 스리랑카 총독이 3명으로 구성된 공용어 위원회를 임명하여 신할리지어와 타밀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6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시켰다.

- 공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마련한다.
-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할리지어와 타밀어를 행정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재정법과 행정 관련 간행물을 신할리지어와 타밀어로 번역한다.
- 타자수(타이피스트)와 속기자에게 신할리지어와 타밀어 타자 교육을 받도록 한다.
-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와, 선행 연구 목록과 번역서들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그리고 1955년에는 위원회에서 공용어국을 공용어부로 변환시켜 공용어 관리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에 국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국어부서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가 공식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1956년에 유명한 정치인이자 자국어 운동가이었던 반다라나이케(S. W. R. D. Bandaranaike)는 선거 운동 도중에 국민 앞에서 ‘당선된다면 24시간 안에 신할리즈어를 국어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 후 스리랑카의 새 수상으로 임명받은 반다라나이케는 다수인 신할리즈인을 달래기 위해 1956년 공식어 법률에 따라 1957년에 신할리즈어를 국어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어 법률은 타밀어를 공식언어 자격에서 배제시켜 타밀인들을 실망시켰다. 이러한 사태에 반발하던 타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1958년에 타밀어를 지방 언어로 지정하였으나 이 또한 타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타밀인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했다. 1956년 공식어 법률은 타밀인들의 대학 입학과 직업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대학 입학을 원하던 많은 신할리즈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당시 수상은, 타밀인에게 신할리즈인과 다른 비합리적인 입학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신할리즈인에게 대학 입학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1987년에 새로운 헌법 수정으로 타밀어는 다시 공식어의 입지를 되찾게 된다. 즉, 1978년 헌법 수정 제13조에 따라 타밀어는 공식어로, 영어는 연결 언어(link language)로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도 타밀어는 타밀인 지배 지역에서만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던 젊은 타밀인들은 타밀 독립 국가인 ‘엘람(Ealam)’ 세우기 위해 나섰다. 1990년에 타밀 해방군들 혹은 엘티티이(LTTE)는 스리랑카 북부 지방과 동부 지방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쥐고 있었다. 그 후 2009년 5월 엘티티이 지도자의 사망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엘티티이와 정부 간의 인종 간 충돌이 계속되었다.

1956년에 제정된 공식어 법률로 신할리츠인들은 오랜 기간 특권을 누렸으나 이는 신할리츠인과 타밀인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되었다. 이제 타밀인들은 외국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국제 연합 기구나 다른 국제 단체를 통해 타밀 지배 지역에서 타밀어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정부를 개입시켜 지방 자치제를 형성하여 타밀인들이 사는 지역을 지방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콜빈 실바(Colvin R.De Silva)가 말하기를 “두 개의 언어와 한 국가 혹은 한 언어와 두 개의 국가”와 같은 언어 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발언은 타밀 사람들의 언어 권리를 확인시키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가 지니고 있는 언어 정책의 문제점은 영국 통치 시대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분할 통치 정책을 따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교육 제도를 운영하였다. 달리 말하여, 타밀인이 살던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를 설립하여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할리츠인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렇듯,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은 영국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신할리츠인들과 타밀인들의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서로의 말을 배울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나중에 일어났던 인종 갈등이나 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현재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언어 정책에서 유연성 있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은 모국어가 아닌 제2의 국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법률이 생겨났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국어로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언어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고 대답하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제2언어 학습 정책에서 예외 대상은 아니다. 학교 교사들도 필연적으로 제2언어 능숙도를 개발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초등학교까지는 타밀어를 배우게 된다.

영어 사용의 사회 경제적 이점 때문에 영어가 신할리즈어보다 더 우세한 언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영어와 신할리즈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할리즈어를 더 아끼고 고어가 되지 않도록 신할리즈어에 대한 연구나 신할리즈어 보급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독립 이후의 스리랑카 언어 정책 상황에 대해 논하였다. 언어 정책은 언어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 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1956년의 공식 언어에 대한 정책은 민족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독립 이후 언어 정책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회적, 민족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창출하였다.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 보아도 그동안 스리랑카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정치인이었을 뿐 외교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정치인들은 세력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세력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해 왔다. 실권자들이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제2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진정으로 제공한다면 서로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참고 문헌

- Coperahewa, S.(2009), “The Language Planning Situation in Sri Lanka”,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Vol.10, Routledge.
- Coperahewa, S.(2011), “Colonialism and Problems of Language Policy: Formulation of Colonial Language Policy in Sri Lanka”, 《Sri Lanka Journal of Advanced Social Studies》, Vol.1-1.
- Godakumbure, C. E.(1955), 《Sinhalaese Literature》, Sri Lanka: Colombo Apothecaries.
- Herath, S.(2015), “Language Policy, Ethnic Tensions and linguistic rights in Post war Sri Lanka”, 《Language Policy》, Vol.14. Springer.
- Ranjith, H & Weerasekara, N. S.(2013), “Language Policy Practices and National Integration of Sri Lanka”,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Commerce》, Vol.2, No.6.
- Walisundara, D.C. & Hettiarachchi, S.(2016), “English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Sri Lanka – A Critical Review”, 《English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Asia》, Language Policy Book, Volume.11.
- A Survey of Sinhalese Poetry from Ancient Times to the Modern Period–
www.lankalibrary.com
- Evolution of the Sinhala Lanaguage– www virtual library Sri Lanka

샘물한글학교, 우리 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어 줍니다 - 동경 샘물한글학교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전정선(Kasai Suzumi)

샘물한글학교 교장, 일반사단법인 재일조선족여성회 이사장

“우리말 우리글이 다음 세대를 이어 줍니다.” 이것은 지난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한 ‘2016 한글학교 교장 초청 연수’의 슬로건이다. 이는 민족 교육이 세대를 이어 준다는 뜻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말대로 우리말과 글로 일본에 있는 한민족의 우정과 애뜻한 마음은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

샘물한글학교는 일본 동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동포(중국 국적 소지자, 중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재일 동포를 이 글에서는 ‘재일 조선족’ 또는 ‘조선족’이라고 지칭함. 이하 같음.) 2세 어린이들에게,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심어 주는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어려서부터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어(漢語, 중국 한족이 쓰는 언어), 영어, 음악 등을 포함한 민족 언어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어린이들이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래 일본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샘물한글학교에 다니는 재일 동포 2세대들은 조부모는 한국 사람, 부모는 중국 출신 조선족,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코리아인’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어를 제1언어로 인지(認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가 민족 언어인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2007년도에 재일조선족여성회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국제화 시대에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본 생활을 보다 유익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일본 사회에서 겪는 취직, 사업, 가정 육아, 친목 등 일상생활의 고민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어 민족 교육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08년 2월에 샘물한글학교(어린이 우리말 교실)를 개교했다.

2008년 초창기 적은 수의 여성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어린이 우리말 교실 운영과 여성회 활동을 함께 시작하였다. 어린이 우리말 교실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인 전래 동요와 춤을 가르쳤고 동포 자녀의 어머니 및 동포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법률 자문, 비자 상담, 취직 상담, 배우자 찾아 주기, 육아 교실, 꽃꽂이 체험 교실, 한국 요리 체험 교실, 김치 담그기 체험 교실, 에어로빅 교실, 전통 무용 교실, 한복 입기 교실, 기노노(和服) 입기 교실,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체험 교실, 화장 교실, 여성 사업가 초청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신년 맞이, 송년의 밤 등과 같은 조선족 단체 활동을 조직하여 한복 입기, 우리말 하기, 우리 노래 부르기, 무대 경험 쌓기, 민속 문화 체험으로 우리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 주었고 교실에서 배운 전래 동요와 전통 무용 문화를 가르쳤다. 또 계절에 따라 벚꽃 놀이, 야외 농활 체험, 조선족 운동 대회, 등산 활동, 바비큐 모임, 민속 떡 만들기 체험, 역사·문화 탐방 등을 조직하여 우리 동포 간의 유대감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샘물한글학교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인 ‘재외동포 한글학교 한국어캠프(2017년 봄 일본 나가노)’와 ‘재외동포 한글학교 초등학생 차세대 모국방문 연수(2017년 여름 한국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생 차세대 모국방문 연수(서울올림픽회관)’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우리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심화 학습뿐만 아니라 한글 창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과학성 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되었다. 이처럼 샘물학교는 한민족의 정체성(identity)을 찾는 민족 교육 강화와 정체성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샘물한글학교 설립과 운영 초기의 어려움

샘물한글학교(어린이 우리말 교실)는 처음 8명의 어린이들로 시작하였다. 2008년 당시 학부모들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몹시 어렵게 일본으로 유학을 왔으니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다. 일본어를 잘 배워 일본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더 절실히 여겼던 것이다. 학교에 나오는 학부모들 중 다수가 중국에서 교사직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어 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그 때문에 설립 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한국어교육의 기반이 약하여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에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문 교재가 많이 부족했으며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본 서점에서 엔에이치케이(NHK) 라디오 한국어 강좌 입문편을 사서 인쇄해서 사용했다. 또 중국 연길시 정부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교육국으로부터 초등학교 조선어문 교재를 받아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금씩 한국어교육의 기틀을 잡아가니 점차 교재나 수업 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중국에서 발행한 교재보다는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행된 교재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기면 꼭 시간을 내서 대형 서점이나 근처 서점에 들러 한국어 수업에 알맞은 교재와 교구를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수 학습용으로는 불충분했으며 자비로 교재 구입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한국어 교재로 고민하던 중 2014년도에 동경 와이엠시에이(YMCA)에서 열린 '원코리아 동경대회'에서 재일조선족단체의 활동 소개와 재일조선족여성회 활동 현황, 샘물한글학교의 어린이 우리말 교실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재일 교포분의 조언을 받아 '지바 한국교육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한국어 교재 몇 부를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한국어 교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또 원코리아 동경대회에서 인연을 맺은 유지(有志)들에게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많은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했다.

재외동포재단과의 인연

2014년 12월 어느 날 송년 모임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동경지회 지회장의 조언을 받았다. 그 조언은 바로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지원을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접촉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를 여러 번 찾아갔다.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장을 비롯한 교육지원부 지인들의 따듯한 격려와 지지 아래 귀국 후 지바 한국교육원, 동경 한국교육원을 찾아다니면서 교육 지원 요청을 정식으로 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관계자들은 고향의 친정집 형제처럼 재외동포 교육 지원과 관련한 절차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지원 소개, 절차, 방법,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원을 받기 위한 수속 절차 및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샘물한글학교 운영 현황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노고가 많다는 응원과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샘물한글학교가 정식 한글학교로 인정을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재외 동포재단과의 인연을 이어 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2015년 12월 16일에 주일대사관 동경한국교육원 남정순 원장으로부터 ‘샘물한글학교’라는 등록 증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마치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재일 조선족으로 구성된 한글 학교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작은 소망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글 학교 등록 증서 발급 이후에는 한국어 교재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되어 교재와 관련한 짐을 덜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재 구입의 부담 없이 모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에서는 기자재, 누리집 개선을 지원해 주었고, 한글 학교 등록이 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니 더 많은 재일 동포 사업가와 재일 조선족 여성 사업가들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 주었다.

2016년 2월 입학식에는 재외동포재단 주일대사관 강윤모 주재관과 동경 한국교육원 유호선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동경지회장과 세계한인무역협회 지바지회장을 비롯한 재일 조선족 각 단체 회장,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후의 첫 입학식은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재일 조선족 사회에 우리 민족 교육이 온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샘물한글학교가 다음 세대를 이어 주는 우리말 계승 교육의 샘으로 발돋움하는 감동의 날

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주일 대사관 이찬범 총영사와 주재관이 샘물한글학교에 방문해 한글 교육에 봉사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었다.

요즘은 샘물한글학교 학예 발표회나 큰 행사인 재일 조선족 송년회에 주일 대사관 주재관을 비롯하여 재일 동포 사회에서 70년 역사를 지닌 재일본 민단본부 총무부장, 교육부장, 동경지부 교육부장이 참석한다. 특히 재일본 민단본부 총무장은 방문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샘물한글학교 어린이들에게 격려를 해 주셨다. 이처럼 재외동포재단과의 인연으로 재탄생한 샘물한글학교는 지금까지도 재일 동포 사회에서 한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우리글, 우리말, 우리 문화를 하나로 이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샘물한글학교의 교사들의 소질과 소양

샘물한글학교 교사들은 일본으로 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 교육에 애착을 갖고 중국에서 교사직에 종사했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수업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익히는 데에 힘쓰고 있다.

한글 학교 교사의 전문 지식 함양과 수준 향상을 위해 교장이 선두로 ‘서울대학교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했고, 재외동포재단 주최 ‘2016년 한글학교 교장 초청 연수’ 제1기생 교육을 받았다. 교감도 ‘연세대학교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했고, 교사 3명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한글학교 교사 인증 과정’을 이수했다.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 1명은 스테디 코리안 해외통신원 1기, 2기, 3기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에도

‘2018 한글학교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형에 1명의 교사가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동경 한국교육원 남정순 원장을 초청하여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역사·문화로 배우는 1일 한글 체험교실’의 일환으로 한복 예절과 관련한 체험 수업을 진행하였고 관련 한국어를 배웠다. 한편 2016년에는 동경 한국교육원 유호선 원장을 초청하여 한국어교사 연수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동경한국학교 정원미 음악 교사의 지도 아래 한국 전래 동화와 동요를 배웠고 한국어와 민속놀이도 배웠다. 2017년에는 재외동포재단 지원 사업인 ‘재일동포 민족교육(한국어) 방안 세미나 1박 2일 과정’에 많은 교사가 참가하여 한글교육 연수를 받았다.

2017년 6월~7월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한국어(예비)교원 국외 파견·실습 지원 프로그램’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예비 교원들에게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동포 교육 기관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선진화된 한국어 교수법을 전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샘물한글학교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사들이 한국어교육의 선진화된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필자는 샘물한글학교 외에도 지바현 노다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실 현장도 제공하였다. 2018년 7월과 10월에도 진행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에 샘물한글학교는 올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샘물한글학교 교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 기관과 교육 관련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샘물한글학교의 민족 교육을 위한 발자취

샘물한글학교는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민족 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전문 연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재일민단 창단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학술회에 참가하여 재일조선족여성회와 자원봉사로 운영해 가고 있는 샘물한글학교 현황을 소개했고 2016년 11월 8일에는 재외동포재단,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에서 주최한 ‘재일동포 민족교육 실태 심화조사 및 정책 방향 제시’ 결과 보고 회의에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샘물한글학교 현황을 소개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민단 본부장을 비롯한 재일 동포 사회와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 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호응을 받았다. 2016년 12월 동경 신오쿠보에서 한국 외국어대학교 두뇌한국21플러스(BK21+) 사업단과 일본조선족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학술 대회인 에스닉, 에스닉타운 연구와 한민족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구회에서 필자는 ‘한글학교와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샘물학교 설립 배경, 설립 과정, 활동 내용, 샘물학교의 의의, 학교 운영상의 과제를 발표했고, 연구 성과는 《재외한인연구》 제41호(2017년 2월)에 “재일조선족 한글학교의 의의와 가능성-관동지역 샘물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2017년 7월 말 중국 광주에서 열린 ‘도시 우리말 교육의 방법론과 실천’ 제3회 우리말 교사연수회에서 필자는 샘물한글학교 사례를 발표하여 중국 내 조선족 한국어 교육자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2018년 2월에는 전남 대세계한상문화연구원과 아시아 세미나하우스(BOA)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다문화사회와 마이너리티’ 학술회에서는 동경학예대학교 대학생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재일 중국 동포 어린이 한글 문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고, 한국어교육의

미래와 교실 운영의 정착을 주제로 토론했다.

샘물한글학교가 동경 중심에 등지를 틀기까지

2008년 2월부터 시작된 샘물한글학교는 교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매년 동경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을 전전공공하며 찾아다녀야 했다. 떠돌이 생활 10년 만에 동경한국학교가 5개 교실은 물론 비품 보관실까지 확보해 준 덕분에 겨우 보금자리를 찾았다. 현재의 동경한국학교에 등지를 틀기 전까지 교실을 찾아 떠돌아다녔던 상황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동경에서의 첫 시작은 닛포리(日暮里) 지역 시설이었다. 이후 와라비(蕨) 단지(団地) 시설, 오구(尾久) 후레아이히로바(ふれあい広場), 아카바네(赤羽) 맨션 시설, 다카시마다이라(高島平) 단지(団地) 시설 등으로 옮겨 다녔다. 이어 2014년도에는 학원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장소도 몇 개월간 빌리기도 했고 2015년 초부터 2018년 2월 초까지 3년간 아라가와 구립 평생학습센터(荒川区立生涯学習センター)에서 유모실과 4개의 교실을 빌려 사용했다. 이렇게 매년 4~5개의 교실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교실 예약을 해야 하고, 지정된 날짜 지 요금을 지불하러 일부러 시설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청(荒川区庁)에서 활동이 있을 때에는 교실을 양보해야 하기도 했다. 따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교실 장소 예약과 요금 지불 지정일을 일일이 확인해 가며 교실 확보에 신경을 써야 했다. 번번이 교실 장소를 예약해야 했으며 요금 지불을 하는 날도 신경 써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 학부모들에게 급하게 통보를 하거나,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날도 자주 있었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도구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매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동해야 하는 번

거로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복도나 화장실을 다닐 때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된다며 종종 주의를 줬고, 시설에서 쫓겨날까 봐 숨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하도록 지도해야 했다. 그래서 장난기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소리 높여 동요를 부르기도 힘들었다. 빌린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하여 3년간 큰 사고 없이 버티면서 장소를 해결에 몰두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8년도 새 학기에 재외동포재단 강운모 주재관을 비롯한 민단본부 오공태 단장과 민단본부 박상욱 총무국장, 동경지부 이선옥 교육부장, 동경한국학교 김득영 교장 등 유지(有志)들의 호응에 힘입어 동경한국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눈물 나게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으며 우리말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샘물한글학교 개교 10년 만에 새봄이 찾아온 것이다.

2018년도 화창한 새봄을 맞이하던 날, 샘물한글학교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배움의 요람이 마련된 것이다. 드디어 2018년 2월 24일 새 학기 첫 수업부터 동경 도심 신주쿠의 동경한국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샘물한글학교는 이제 10년간의 불안과 떠돌이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즐겁게 소리 내어 웃고 마음껏 뛰놀며 소리 높여 동요도 부르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워 가며 우리 노래와 우리 문화를 익혀 갈 수 있게 되었다.

“숨 쉴 수 있어서……말할 수도 있어서……살아 있어 행복해요.”, “오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문득 지난해 샘물한글학교 어린이들이 동경 올림픽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국제홍백가요무대에서 불러 노력상을 받은 노래의 가사가 떠오른다. 샘물한글학교 어린이들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 언어로 우리의 노래를 불러 2014년부터 일본 정부 관광청 장관상, 최우수상, 퍼포먼스상, 록킹상 등을 꾸준히 받고 있다. 우리말 우

리글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샘물한글학교 현황

샘물한글학교의 현재 등록 학생은 198명으로, 4개 학급, 교사 15명이, 5개의 교실과 교재 비품 보관실을 사용한다. 재외동포재단 산하의 한글 학교로서,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용 교재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는 교재로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한글기초 및 한글기초 학습장’, ‘국어 및 국어 활동’, ‘누리와 나라의 한국어 배우기’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학습지, 그림책(동화책 포함), 꼬마 사전으로 구성된 ‘한국어, 한국문화 배우기’를 지원받아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샘물한글학교는 더 이상 한국어 교재를 찾아 헤매지 않고, 교재 부족으로 고민도 하지 않게 되었다. 또 고정된 교육 장소도 지원 받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가 10년간 자택에 보관해 두었던 비품도 올해 동경한국학교로 옮겼다. 샘물한글학교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샘물한글학교 교실 풍경

샘물한글학교 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생 수업과 학부모 수업으로 구성된다. 샘물한글학교의 교육 체계는 담임 교사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된다. 학생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에 두고 이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실, 전통 무용 교실, 취미 교실, 육아 교실, 기타 교실도 계획

수립에 포함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된 이유는 자녀는 물론 학부모도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적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경 지역뿐만 아니라 지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등 가깝지 않은 지역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왕복 4시간 이상을 전철을 갈아타고 온다. 이 때문인지 학부모들은 샘물한글학교에 오는 이유가 공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외갓집에 놀러 와 우리말을 쓰면서 노는 기분을 샘물한글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또 어떤 학부모는 배움과 동시에 좋은 인연을 쌓아 가는 배움터 역할을 샘물한글학교가 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2018년 2월 11일 샘물 학교 수료식·입학식에서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저희 집은 아이 아빠가 한족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필수로 중국어로 이 야기를 하고 한국어는 거의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간혹 제가 부모님과 전화할 때만 우리 애들이 한국어를 듣는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일본에 오실 때에도 “엄마 애들하곤 중국어로 말해 줘.”라고 부탁을 하면서 어딘가 모를 죄책감을 느끼고 감미로운 우리말 노래를 혼자 감상하면서 쓸쓸함도 느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회사 친구를 통해 샘물한글학교를 알게 되었고 ‘한번 가 보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연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그 인연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운동대회 2번, 국제홍백가요전 3번, 송년회 2번으로 무대에 서고, 12일간의 한국어캠프 참가, 두만강국제청소녀사회전 꼬마시인상, 한국어 변론대회 은상과 우수상, 어린이마당 그림전시회상도 수상했습니다. 대단하죠? (생략) 여기에서는 우리말과 중국어, 음악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버스 여행, 어머니 강좌, 미술 강좌, 예절 강좌 등등 풍부한 과외 활동도 조직해 주고 우리 애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찾아서 마련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전정선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 하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아도 우리 애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회사 다니랴, 자신의 가족을 돌보랴, 수업 준비하랴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짜증 하나 안 내시고 항상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꼬마들과 학부모님들을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애들도 샘물학교 가는 날을 즐기고 있지만 제가 더 손꼽아 기다리고 애들을 데리고 외갓집 가는 기분으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외할머니,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모, 외삼촌, 그렇게 퐁퐁 뭉친 일본의 샘물 외갓집! 시름 놓으시고 외갓집에 많이 다니세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차세대 모국 방문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진 일기 책자를 만들어 왔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젊은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듯이 10만 명에 이르는 제일 조선족 사회에서 샘물한글학교는 점차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샘물학교는 중국 국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신입생들은 샘물학교를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거나,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다니는 우리 학교이기에 감사한다. 교실마다 한글을 읽는 정다운 어린이들의 우리말, 우리글 소리를 듣노라면 마냥 흐뭇하고 정겹기만 하다. 교실마다 “아아어어오오우우이이…….” 하고 한글을 읽는 모습과 동요를 부르며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는 모습, 자녀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배워 가는 학부모의 모습도 아름답다. 지난 학부모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 세무사 초청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앞으로는 부모들을 위해 민족무용 교실과 동경한국교육원의 원장을 초청하여 교육 전문가의 자녀 교육 강의로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즐거운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화의 배움터인 샘물학교의 풍경은 평화롭고 행복한 주말 쉼터와 같다. 이렇듯 마음껏 아이들이 작은 꿈을 키워 가는 쉼터,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샘물한글학교가 아닐까.

샘물한글학교 수업 내용

샘물학교 어린이 대상 수업은 4개 학급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 3세-5세 유아반. 교재는 《누리와 나라의 한국어 배우기》이고 수업 도구는 담임 교사들이 연초에 계획한 교안을 따른다. 주로 말하기, 듣기, 종이 접기 놀이, 그림에 색칠하기, 동요, 동화책 읽기, 동영상 보기 등 즐겁게 놀이로 익히고 체험으로 한국문화를 접하게 한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등 간단한 인사말부터 가르친다. 동요 놀이로 가사를 익히고, 종이 접기로 글자를 익히게 하며 가정에서도 비슷한 놀이를 반복하도록 한다. 교실에서 한국 동요를 배워서 무대에서 발표하게 한다. 한국어 외에 중국어와 영어도 가르친다. 숙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복습을 시키고, 놀이를 하며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 5세-7세 1반. 《한글학교 기초(상·하)》, 《한글학교 기초(학생용)》 교재를 사용하며 《한글이 야호》, 《쓰기 놀이터》와 《아름이와 다음이》의 《한국어 배우기 꼬마사전》을 참고하여 기본 자모음 카드, 낱말 카드, 그림 등으로 자모음을 가르친다. 교실에서 친구를 만나면 인사하기, 단정한 학습 자세를 통해서 즐겁게 공부한다. 모음 자음 이름 쓰기, 숙제도 열심히 한다. 받아쓰기도 고사리 손으로 칠판에 예쁘게 잘 쓴다. 자신의 이름, 아빠·엄마 이름 쓰기, 아이, 오이, 여우, 우유, 유리 등 수업에서 배운 자모로 낱말을 익혀 간다. 이외에도 동요, 동화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집에서 숙제로 부모와 함께 복습하도록 한다. 발음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다.

3. 8세-10세 소학 2반. 《초등학교 국어(가·나)》 및 《초등학교 국어활동》 교재와 《한글기초(상·하)》를 겸용하여 자음과 모음, 받침의 읽기, 쓰기, 듣기를 위주로 공부한다. 동요, 동화도 가르치고 그림 그리기 수업도 있다. 올해에는 역할극도 준비하고 있다.

4. 11세-13세 소학 3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1·1-2)》 교재를 사용한다. 읽기, 쓰기, 듣기, 낱말 익혀 글쓰기, 대화 연습 등을 공부한다. 제57회 한국어 능력 시험반 수업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말하기, 낭독, 시 작품 쓰기, 일기 쓰기, 한국어 변론대회 글쓰기도 한다. 2년간 한국어 변론대회에 6명이 참가해서 은상, 동상, 우수상을 탔다. 2018년 4월 16일에 실시된 한국어 능력 시험에 3명의 학생이 처음으로 응시했고, '2018년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에는 중고생 3명이 신청했다. 작년에는 '2017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에 2명이 참가했다.

이상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반에 3명의 교사가 각각 한국어, 중국어, 영어 교실에 투입되고, 각 담임 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다. 학생들은 연간 수료식 및 신학기 개교식, 벚꽃 놀이, 야외 학예 발표회, 여름 운동회,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을 위한 수업,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중국 두만강 국제 청소년 시화전, 국제홍백가요전, 한국어 변론대회, 한국어 학습 발표 대회 등을 포함한 국내외 행사 활동에 참가한다.

샘물한글학교 교사진은 자원봉사자로 중국에서 교사 경력과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과 대학교 석·박사, 유지(有志) 교육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토요일에 오후 12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한국어 검정 시험반 보충 수업, 한국어, 중국어 수업과 영어, 전래 동요,

그림 그리기 수업 및 공개 수업이 있다. 공개 수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1번씩 진행된다. 매번 수업 후 문제점과 교재 내용, 수업의 효율성, 출석률 등에 대한 교사 회의를 하고 있으며 채팅을 통해서 수시로 학부모들과 당일의 수업 내용, 숙제, 연습과 관련한 연락을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교실 수업 외에 다양한 교수법과 방법을 통하여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으로 즐기는 수업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한복 체험’, ‘예의범절’, ‘전통 한국 차 문화’, ‘설맞이 떡 만들기’, ‘옷놀이’, ‘김장 김치 만들기’ 등의 체험 교실이 있다. 한국 동요, 율동, 민요 부르기, 시와 글짓기, 그림일기, 그림 그리기, 크리스마스 작품 만들기, 어머니의 날 편지 쓰기, 예능 발표회 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 외 행사로 벚꽃 놀이, 운동 대회, 국제시화전, 국제홍백가요전, 한국어 변론대회, 학예 발표 대회, 모국 방문 캠프, 송년의 밤 예능 발표 무대 공연도 한다. 매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크고 작은 학술회, 글쓰기, 그림일기, 노래 자랑 행사에서 발표를 한다. 처음에 우리말을 전혀 모르던 일부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진행된 모국 방문 ‘2017년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에 참가할 정도로 성장했고 7명의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처음으로 모국 방문 캠프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중 손유나 학생의 ‘2017년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일기’가 인기를 끌었다.

‘2016년도 제17회 동경지역 한국어 변론대회’에 처음으로 노태승 학생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탔고 ‘2017년도 제18회 동경지역 한국어 변론대회’에 5명이 참가하여 모두 수상했다. 은상 1명, 동상 2명, 우수상 2명이 뽑혔는데 전원 샘물한글학교 학생들이다. 발표 제목은 은상을 받은 4살짜리 손리쿠의 ‘한국에 가 보고 싶습니다’, 허준우의 ‘나의 정체성’, 맹가영의 ‘자신의 뿌리’, 손유나의 ‘행복한 한국어’, 이수진의 ‘내 동생 유진’ 등이다.

손유나, 손리쿠 오누이는 재외동포교육 진흥재단 ‘제1기 재외동포 어린

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글과 그림으로 해석하여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큰 결실이 되어 주었기'에 각각 참가상을 탔다. 두 학생의 그림은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부대 행사인 그림일기 전시회에 전시됐다. 그동안 '2017년 일본지역 한글학교 한국어 집중캠프'에 5명, '2017년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초등학생 모국 방문에 7명, '2017년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대학생 모국 방문'에 2명이 참가했다. '2018년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에 2명의 학생이 참가하는데 그중에는 샘물한글학교 초창기 수료생도 있다. 이렇듯 한 가족이 한국 정부의 초청에 선정이 되는 등 조금씩 노력의 결실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그만 결실 때문인지 동경한국교육원은 '2016년 동경지역 최우수 한글학교'로 샘물한글학교를 선정하였다.

우리 학교는 2008년도부터 '어린이 우리말 교실'을 무모히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10년 만인 2018년 2월 24일부터 '샘물한글학교'로 학교다운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멀지만 착실히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필자는 인생을 즐겁게 바꾸는 명언 중에서 이 말을 단연 최고로 꼽는다.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 첫 번째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라."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노력으로 학교를 운영해 간다면 차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 세대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이라 믿는다. 설립 초기에 필자는 샘물학교의 이름 그대로 풍풍 솟는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이러한 멈추지 않는 걸음은 반드시 우리 어린 세대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오늘도 샘물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기를 다짐한다. 민족 교육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오늘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국립국어원 소식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2018년 1분기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규제 샌드박스(規制 sandbox)의 다듬은 말: **규제 유예 (제도)**
- 네거티브 규제(negative 規制)의 다듬은 말: **최소 규제**
- 밸류 체인(value chain)의 다듬은 말: **가치 사슬**
- 언더독 (효과)[underdog (效果)]의 다듬은 말: **약자 (효과)**
- 에이치엠아르(HMR: Home Meal Replacement)의 다듬은 말: **가정 간편식**

‘규제 샌드박스(規制 sandbox)’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규제 유예 (제도)’로 다듬었다. ‘네거티브 규제(negative 規制)’는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규제로서, 최소화한 규제이다. 이를 ‘최소 규제’로 다듬었다. ‘밸류 체인(value chain)’은 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를 ‘가치 사슬’로 다듬었다. ‘언더독 (효과)[underdog (效果)]’에서 언더독은 ‘약자’를 뜻하며, ‘언더독 효과’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 또는 약자로 연출된 주체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애착을 뜻한다. 이를 ‘약자 (효과)’로 다듬었다. ‘에이치엠아르(HMR: Home Meal Replacement)’는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이다. 이를 ‘가정 간편식’으로 다듬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바꾸고,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 최근 정부는 일반 원칙만 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생산 방식 그리고 **가치 사슬**(←밸류 체인)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 이길 확률이 적은 구단이나 선수를 앞세워 응원하게 만드는 **약자 효과**(←언더독 효과)는 스포츠물 영화에서 감동을 견인하는 주된 흥행 공식이다.
- 최근 1인 가구 수 증가와 집밥 열풍을 타고 죽, 컵밥, 냉동 피자 등 **가정 간편식**(←에이치엠아르, HMR)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 국어문화학교 운영 결과 보고

- 원내 국어문화학교
정규과정: 4회, 398명
특별과정: 3회, 205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일반과정: 80개, 기관 91회, 6,880명
특별과정: 15개 기관, 33회, 1,330명

3. 2018년 대학 전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



- 일시: 2018년 4월 13일(금) ~ 4월 14일(토)
- 장소: 광화문 신라스테이
- 참여자: 국립국어원 관계자 및 국내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 관리자급
전문 교원 10명
- 주요 내용: 효율적인 교실 운영을 위한 교사 재교육 관련 주제 특강,
집담회 운영

4. 2018년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배움이음터(상반기) 개최



대상	일시	대상 기관	특강 주제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4. 6.(금)	울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영산대학교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방안
	4. 14.(금)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어 평가 및 문항 개발 방안
	4. 23.(월)	강원대학교	한국어 이해 교수 방안
	4. 25.(수)	국민대학교	한국어 평가 및 문항 개발 방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교원	4. 13.(금)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과제 중심 교수와 평가
	4. 17.(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제성을 고려한 문법과 어휘 교육
	4. 27.(금)	부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제 수업에서의 말하기 활동의 의미와 적용 방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원	4. 18.(수)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한국어 문법 활용 교수 방안
	4. 19.(목)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4. 20.(금)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4. 27.(금)	동아대학교 동아시아다문화사회통합센터	
제2외국어로 서의 한국어(KSL) 한국어교원	4. 9.(월)	대구광역시교육청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이해
	4. 19.(목)	경상남도교육청	
	4. 20.(금)	전라북도교육청	

5. 2018년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현황

5.1. 캄보디아

- 파견 지역: 캄보디아(프놈펜)
- 파견 기간: 2018년 3월 21일(수) ~ 3월 24일(토), 1박 2일(합숙)
- 파견자: 정희원(어문연구실장), 이보라미(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관)
- 주요 내용: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RUPP) 한국어교육 워크숍 참석 및 강의 지원, 캄보디아 현지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및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등

5.2. 태국



- 파견 지역: 태국(사뭇 송크람)
- 파견 기간: 2018년 3월 28일(수) ~ 3월 31일(토)
- 파견자: 송철의(국립국어원장), 김혜민(한국어진흥과 연구원)
- 주요 내용: 한태 수교 60주년 기념 재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세미나 참석 및 강의 지원, 태국 현지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및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등

5.3. 중국

- 파견 지역: 중국(서주)
- 파견 기간: 2018년 4월 20일(금) ~ 4월 22일(일)
- 파 견 자: 이유원(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강현화(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주요 내용: 중국한국(조선)어연구교육학회 주최 장강삼각주지역 한국어 교육 연토회(研討會) 참가 및 발표, 중국 현지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및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등

6. 제11회 언어 자원 및 평가 학회 참석

- 출장 지역: 일본(미야자키)
- 출장 기간: 2018년 5월 9일(수) ~ 5월 11일(금)
- 출 장 자: 홍혜진(언어정보과 학예연구관), 최정도(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 출장 목적: 언어 자원 구축 및 활용 관련 연구·개발 동향 조사, 국외 언어 자원 표준화 동향 파악, 국외 언어 자원 및 언어 공학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언어 자원 관련 정책 수립 방향 모색

7. 국립국어원-서울도서관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의 보급을 통해 농인들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수) 서울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 서울시 공무원 대상 한국수어·농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한국수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민의 한국수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수어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외에도 향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8. 2018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관련 학술 행사(한국어교육학회) 개최

- 주최: 국립국어원
- 주관: 한국어교육학회
-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15:00 ~ 18:0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09호
- 주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텍스트 중심 국어교육의 의의

구분	주제 및 토론 의제	발표자 및 토론자
기초 강연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과 성과	이인제(한국교원대)
기획 발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텍스트 중심 국어교육의 의의	이재기(조선대)
집담회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중심 국어교육이 주요 내용 요소로 주목되는가? 그러한 요소들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로서 타당한가? • 텍스트 중심 국어교육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그 전망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성하고 있는가? •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이해 및 표현 능력, 문법 능력, 문학 능력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 설계 방향은 무엇인가? •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교육사적 지점과 성과는 무엇인가? •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남긴 국어학 및 국어교육 정책적 변화 요구는 무엇인가? 	김경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도영(춘천교대) 김명순(부산대) 이재승(서울교대) 이형래(서울사대부속초) 윤성원(경동고)

9. 우리말 꿈터 문화 행사 개최



- 일시/장소: 2018년 3월 26일(월) 10:00 / 국립국어원 1층 강당
- 대상: 학부모 및 지역 주민
- 강사: 이임숙 소장(맑은숲아동청소년상담센터)
- 강의 주제: 치유와 성장을 위한 부모의 말 공부

10. ‘제4회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전’ 개최

국립국어원은 국어사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4회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은 이 행사는 자기만의 창의적 낱말 뜻풀이를 직접 해 봄으로써 우리말과 국어사전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국어사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만남과 어울림’을 주제로 삼아 ‘그립다, 도란도란, 만남, 반갑다, 벗(=친구), 설레다, 약속, 어깨동무, 옹기종기, 활짝’이라는 총 10개의 낱말을 선정하였다.

공모전에는 개인이나 단체, 외국인 등 우리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문인, 기자, 국어 관련 전공 교수, 국어 교사, 국어 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2개의 상(우수상 1점, 특별상 1점)을 더 늘려,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8점, 특별상 4점 등 총 2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9일 한글날에 열리며, 수상작 전시회는 ‘2018 한글문화큰잔치’의 일부로 광화문 북측 광장 부근에서 열린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제4회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전

- 공모전 부문: 창의적 뜻풀이(제시 낱말 10개 중 5개 이상 뜻풀이)
 - ※ 제시 낱말: 그림다, 도란도란, 만남, 반갑다, 벗(=친구), 설레다, 약속, 어깨동무, 옹기종기, 활짝
- 응모 기간: 2018년 7월 16일(월)~8월 15일(수)
- 참가 대상: 낱말 뜻풀이에 관심 있는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등 참여 제한 없음.)
- 시상식: 2018년 10월 9일(화)
- 수상작 전시회: 2018년 10월 8일~9일/2018 한글문화큰잔치(광화문 북측 광장 부근)
- '제4회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전' 공고(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4&mn_id=17&b_seq=2096&pageIndex=1)



11.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11.1. 2018년 제1차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

- 일자: 2018년 4월 6일(금)
- 장소: 국립국어원

이번 위원회에는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위원 9명이 모여 ‘ㅎ’의 음운론적 분류, ‘그러다’류의 불규칙 활용, ‘저희 나라’의 적절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11.2. 제138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

- 일자: 2018년 4월 25일(수)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이번 위원회에는 외래어 심의회 위원 14명이 모여 슬로바키아의 정치가명 ‘라이차크, 미로슬라우(Miroslav Lajčák)’ 등 총 13건의 외래어 표기를 확정하였다.

12. 인사이동

12.1. 퇴직

- 송철의(국립국어원장): 근무 기간 만료(5. 25.)

송철의 제10대 국립국어원장은 2015년 5월 26일 국립국어원장에 취임하여 2018년 5월 25일까지 재임하였다. 2018년 5월 25일 이임식이 진행되었다.



12.2. 파견

- 위진(학예연구사): 법제처 파견(5. 28.)

12.3. 전보

- 이정희(행정사무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4. 1.)
- 김세훈(공업주사): 기획운영과 → 국립중앙도서관(4. 1.)
- 유향옥(행정사무관): 국립중앙박물관 → 기획운영과(4. 1.)
- 이희민(행정주사보): 국립중앙박물관 → 기획운영과(4. 1.)
- 홍사성(공업주사): 국립중앙도서관 → 기획운영과(4. 1.)
- 김선철(학예연구관): 언어정보과 → 국립한글박물관(5. 28.)
- 이승재(학예연구관): 국립한글박물관 → 언어정보과(5. 28.)
- 조운범(전산주사): 교육부 → 언어정보과(6. 1.)

12.4. 휴직

- 오미선(전산주사): 육아휴직(6. 1.)